

植物性 鄉藥名 語彙 研究

孫 炳 胎*

〈차 례〉

- | | |
|------------------------------|-----------|
| 1. 序 論 | 3) 果部 鄉藥名 |
| 2. 植物性 鄉藥名 語彙의 解讀 및
語源 考察 | 4) 穀部 鄉藥名 |
| 1) 草部 鄉藥名 | 5) 菜部 鄉藥名 |
| 2) 木部 鄉藥名 | 3. 結 論 |

1. 序 論

本 研究는 借字表記 植物性 鄉藥名을 解讀하여 그 語源을 밝히고 表記, 音韻, 形態, 意味 등의 國語學的 特徵을 考察하는 데 그 目的을 둔다.

國語 語彙의 種類는 多樣하지만 鄉藥名만큼 人間의 결에 密着되어서 당시의 言語 現實을 반영하여 變遷해 온 것도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약명이 다른 학문 분야라는 이유로 국어학에서 度外視해 오다가 最近에 와서야 ‘鄉名類’라고 하여 國語 語彙의 한 분야가 되었다. 鄉藥名은 차자표기로 된 것과 한글표기로 된 것이 있다. 이 둘은 相互 補完的 關係에 있다.

訓民正音が 創製되기 이전에는 漢字를 借用하여 우리말을 표기하였으

* 영남대학교 강사

니, 이른바 鄉札, 吏讀, 口訣 등의 文章表記와 人名, 地名, 官職名, 鄉藥名 등의 語彙表記가 그것이다. 借字表記 鄉藥名은 人名, 地名, 官職名の 固有名詞 借字表記보다는 假字와 末音表記字, 用字數가 많아서 言語 空間을 거의 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된 表記法이라 할 수 있다.

國語學 研究의 관련 분야로 佛書에 나타난 語彙 研究는 비교적 活潑했지만 醫方書에 나타난 語彙 研究는 미진한 편이어서 이 분야의 연구가 절실히 要請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作業은 意味도 모르고 藥材名을 사용하는 民間人에게 올바른 藥材 名稱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鄉藥名에 대해서는 語源의 研究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開拓의 餘地가 많은 國語學의 한 分野이다.

鄉藥名에 대해서 語源 研究를 하자면 相關 學問과의 情報交換이 要求된다. 왜냐하면 語源 研究는 音韻, 意味, 形態論的 事實, 그리고 言語外의 事實의 綜合的 研究이기 때문이다. 語源論은 理論은 거의 없고 方法은 많은 학문이다. 낱말이 걸어온 길과 그것들이 겪은 變化를 알려면 낱말에 대한 生涯의 歷史를 알아야 한다. 낱말의 歷史를 꾸미기 위해서는 낱말을 다른 낱말과 관련지어 歷史的으로 說明해야 한다. 鄉藥名의 語源을 밝히기 위해서도 本草學, 民俗學, 言語地理學, 固有名詞學, 動物學, 植物學, 方言學, 口碑文學, 韓醫學, 作名學, 등 關聯 학문 분야의 정보를 利用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本草學과 民間療法를 포함한 韓醫學에 대해 알아야 한다. 같은 鄉藥 藥材라도 地域에 따라 藥理學的 特性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며, 그 名稱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鄉藥名을 解釋함으로써 鄉藥 藥材의 性質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鄉藥 藥材에 대한 性質을 규명함으로써 鄉藥名을 解釋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語彙의 集合體가 言語라고 할 수 있기에 수집된 鄉藥 藥材名은 言語 研究의 기초가 된다. 이것은 國語 語彙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鄉藥 藥材名은 民間에서 사용되는 口語를 당시의 가장 보편적인 표기법으로 표기한 것으로 推定되기에 그 당시의 국어 實相을 가장 잘 반영한 語彙中的의 하나이고, 또 歷代 낱말자료집에 고르게 分布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鄉藥名은 醫方書, 農書, 諺解書와 낱말자료집

등에서 수집할 수 있다.

이런 鄉藥名을 類聚 分類하고 다른 語彙와 관련지어 그 生成, 成長, 死滅의 歷史를 살펴 그 來歷을 밝히는 것은 國語史的으로 意義있는 일이라 하겠다.

鄉藥名의 借字表記에 대한 集中的인 研究는 그리 많지 않다. 初期에는 주로 醫方書를 解釋하는 도중에 언급되는 정도였으나 그 후 차츰 국어학의 자료로도 중요시하게 되었다. 小倉進平(1932)(1933)에서는 처음으로 〈本草綱目啓蒙〉, 〈鄉藥採取月令〉, 〈鄉藥集成方〉에 나타난 朝鮮動植鑛物名을 解釋했다. 그 후 小倉進平(1940)에서는 〈鄉藥救急方〉을 국어학의 자료로 소개하였고, 方鍾鉉(1948)에서는 〈鄉藥救急方〉의 향약명 11종만을 제시하여 연구하면서 鄉藥名表記 研究가 高麗初 내지 新羅의 共通語 연구에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鄉藥名에 대한 研究 結果를 綜合하면, (1) 주로 初期에 醫方書를 解釋하는 가운데 間接的으로 언급된 것 (2) 각각의 醫方書를 대상으로 모든 借字表記 鄉藥名을 解讀하거나 선택하여 解讀한 것, (3) 모든 醫方書를 대상으로 鄉藥名을 類聚 分類하고 借字表記 鄉藥名을 解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으로는 醫方書類에 나타난 借字表記 鄉藥名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 자체를 分析 檢討하고 정리하는 작업, 그리고 이들 문헌에 나타난 鄉藥名 語彙들을 상호 비교하는 작업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글 향약명에 대한 考察도 있어야 鄉藥名 語彙體系가 樹立될 것이다.

借字表記 鄉藥名이 나타나는 醫方書에는 〈鄉藥救急方〉, 〈鄉藥濟生集成方〉, 〈鄉藥採取月令〉, 〈鄉藥集成方〉의 重刊本과 複製本, 〈村家救急方〉,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廣濟秘 鄉藥單方治驗〉 등이 있고, 그 외에 借字表記 鄉藥名이 있는 것에는 〈衿陽雜錄〉, 〈穡經〉, 〈及幼方〉, 〈山林經濟〉, 〈茲山魚譜〉, 〈林園經濟志〉, 〈五洲衍文長箋散稿〉 등이 있다. 그리고 醫書 診解書에는 〈救急方〉, 〈救急簡易方診解〉, 〈簡易酸瘟方〉, 〈診解痘瘡集要〉, 〈痘瘡經驗方〉, 〈瘡疹診解〉, 〈馬經抄集診解〉, 〈東醫寶鑑〉의 湯液篇, 〈濟衆新編〉, 〈方藥合編〉, 〈單方新編〉 등이 있다. 그 외 類解類와 分類語彙集, 方言集이 있다.

借字表記의 解讀은 漢字의 音, 訓, 讀, 假의 네 원리에 의해서 하고자 한다. 한자를 音으로 읽느냐 訓으로 읽느냐에 따라 音과 訓으로 나뉘지고, 우리말을 표기할 때에 뜻을 살려서 쓰느냐 無視하고 쓰느냐에 따라 讀과 假로 나뉘진다.¹⁾

鄉藥名의 變遷 樣相을 살필 때는 먼저 鄉藥名에 대한 借字表記 形態와 正音表記 이후의 문헌에 나타난 어휘들을 時代順으로 제시하여 解讀된 향약명과 한글표기 향약명을 比較, 對照한다.

本考에서 引用한 資料와 略號는 다음과 같다.

資 料	略 號	年 代	備 考
鷄林類事	〈계림〉	1101	漢陽大附設國學研究院 大提閣影印本, 1974.
鄉藥救急方(重刊本)	〈향구〉	1251	原刊本(1251)은 不傳, 重刊本(1417)은 傳存.
鄉藥救急方(方中鄉藥目 草部)	〈향구目〉	1251	重刊本(1417)의 末尾에 傳存.
鄉藥濟生集成方	〈향제〉	1398	大邱 楊浩烈氏 所藏, 第六卷.
鄉藥採取月令	〈향월〉	1431	嶺南大中央圖書館 所藏 프린트本.
鄉藥集成方(重刊本)	〈향집〉	1633	高麗大 晚松文庫 所藏.
鄉藥集成方(複製本)	〈향성〉	1942	京城 杏林書院 所藏版.
鄉藥集成方(鄉藥本草)	〈향본〉	1942	杏林書院本의 末尾에 傳存.
楞嚴經諺解	〈능엄〉	1462	東國文化史 影印本.
救急方上下	〈구방〉	1466	한글학회 영인본(1975).
杜詩諺解(初刊本)	〈두시초〉	1481	弘文閣 影印本.
衿陽雜錄	〈금양〉	1581	原著(1491), 서울아세아문화사 영인본(1981).
杜詩諺解(重刊本)	〈두시중〉	1632	弘文閣 影印本.
救急簡易方諺解	〈구간〉	1489	서울대 一養文庫, 嶺南大本 第 6, 7卷.

1) 남풍현(1981:15)을 참고했고, 略音假字와 略訓假字는 필자가 보태었다. 남풍현(1981)에서는 借字를 音, 訓, 讀, 假의 네 원리에 의해서 분류했고, 정철주(1987)에서는 音, 義, 詞의 세 원리에 의해서 체계화했는데, 借詞表記는 音과 義를 다 借用하는 것을 말한다.

資 料	略號	年 代	備 考
百聯抄解	〈백련〉	1510-1560/1723	
四聲通解	〈사성〉	1517	嶺南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四聲通解(重刊本)	〈사성중〉	1614	嶺南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瘡疹診解	〈창진〉	1518	弘文閣 影印本
簡易辟瘟方	〈간벽〉	1525/1578	弘文閣 影印本.
訓蒙字會	〈훈몽〉	1527	東洋學研究所 影印本.
村家救急方(初刊)	〈촌가〉	1538	이은규(1994가) 참조.
村家救急方(重刊)	〈촌구〉	1571	안병희(1978) 참조.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우마〉	1541(嘉靖版)/1578/1636(崇禎版).	
分門瘟瘧易解方	〈분문〉	1542	弘文閣 影印本.
新刊救荒撮要	〈신향〉	1660	嶺南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新增類合	〈신합〉	1576	東洋學 叢書 第2 輯.
詩經診解物名	〈시경〉	1588/1613	유재영(1990). 戊子新刊 嶺南營板.
本草綱目	〈본강〉	1590	高文社 影印本.
診解痘瘡集要上下	〈언두〉	16089	서울대 一叢文庫 所藏本.
診解胎產集要	〈언태〉	1608	國立圖書館 所藏本.
東醫寶鑑(湯液篇)	〈동탕〉	1613/1814	嶺南大제2 圖書館 所藏本.
經驗方	〈경험〉	1630	仁祖朝 1卷. 嶺南大 圖書館 東濱文庫本.
馬經抄集診解	〈마경〉	1635	弘文閣 影印本.
辟瘟方	〈벽방〉	1639	弘文閣 影印本.
辟瘟新方	〈벽신〉	1653	弘文閣 影印本.
痘瘡經驗方	〈두창방〉	1663	亞細亞文化史 影印本.
及幼方	〈급유〉	1689	동의학총서, 여강출판사.
譯語類解下	〈역어〉	1690	嶺南大 中央圖書館本.
診解脈藥症治方	〈남약〉	1694-1776	채인숙(1986).
山林經濟	〈산림〉	1718	민족문화문고간행회.
註解千字文	〈주천〉	1752	嶺南大 中央圖書館本.
方言類釋	〈방류〉	1778	弘文閣 影印本.
濟衆新編	〈재중〉	1799	嶺南大本.
五洲衍文長箋散稿	〈연문〉	1788-?	明文堂 影印本.
物譜	〈물보〉	1802	文雅社 影印本.
茲山魚譜	〈자산〉	1814	丁若銓 著 鄭文基 譯.

資 料	略號	年 代	備 考
物名考	〈물명〉	1820	文雅社 影印本.
方藥合編	〈방약〉	1884	嶺南大 中央圖書館本.
單方新編	〈단방〉	1908	嶺南大 圖書館本
字典釋要	〈자석〉	1909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醫方新監	〈의신〉	1915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朝鮮植物名彙	〈식회〉	1922	朝鮮總督府.
韓國動植物圖鑑	〈동식〉	1961/1976	이영노
漢朝植物名稱詞典	〈식명〉	1982	遼寧人民出版社.
朝鮮方言辭典(김병제)	〈김방언〉	1980	과학백과사전 종합 출판사.
藥用植物	〈약식〉	1990	대원사.
약이 되는 야생초	〈야초〉	1990	대원사.
圖解鄉藥(生藥)大辭典	〈향사〉	1990	永林社(1990).
집에서 기르는 야생화	〈야화〉	1991	대원사.

‘鄉藥’이란 말은 자기 鄉土에서 산출되는 藥草를 말한 것인데, 중국산의 藥材를 唐材라고 부르는데 대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의 總稱이다. 鄉藥은 결국 그 땅의 형질에 맞게 태어나고 성장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다. 鄉藥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高麗 前期에 간행된 〈鄉藥古方〉이 그 효시이다. 그 후에 출판되어 現存하는 유일한 醫藥書籍인 〈鄉藥救急方〉이 高麗 中期에 간행된 뒤로 鄉藥은 널리 알려진 것인데, 高麗말경에는 鄉藥에 대한 여러 醫方書들이 편성되었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濟生院에서 〈鄉藥濟生集成方〉 30권을 편집 간행하였다. 그 후 〈鄉藥惠民經驗方〉, 〈三和子鄉藥方〉, 〈鄉藥簡易方〉 등의 여러 鄉藥方이 간행되었다.

世宗大王은 鄉藥을 自主的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먼저 각 道 각 郡현에서 產出되는 鄉藥草의 분포 실태를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그 조사 실적은 뒷날 〈世宗實錄地理志〉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 鄉藥의 채집을 권장하기 위하여 향약의 採取시기의 早晚과 건조할 때 陰陽의 차이와 약효의 好否를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였는데 이 기록은 〈鄉藥採取月令〉이란 이름으로 편집 간행되었다. 그리고 藥理에 숙달한 사람들을 명나라에 가는 사신들과 同行하도록 하여 우리나라에서 產出되지 않

는 唐材와 鄉藥材를 비교 감별하게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신중히 그 藥效들을 실험하였으며 구하기 어려운 중국약을 찾아 다니다가 치료할 시기를 잃기보다는 차라리 향약으로 치병하도록 권장하여서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鄉藥의 生産 조사, 採取, 鑑別 등 여러 방법의 연구를 끝마치고, 다시 集賢殿 학사와 의관들에게 명하여 본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종래의 鄉藥 방서들을 널리 수집 첨가하여 <鄉藥集成方> 85권을 종합 集大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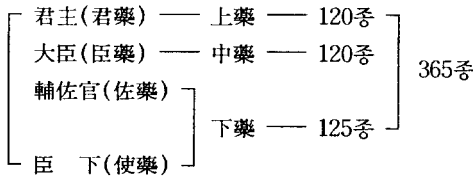
鄉藥은 세종의 鄉藥政策(해민정책, 향약교육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달했다. 신라인들은 중국의 것에 대립시켜 自國固有의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鄉’을 冠하여 사용했다. 그래서 鄉藥은 ‘固有의 藥’이란 뜻이다. 다시 말하면 漢藥에 對比해서 鄉藥이라고 했다. 본래 시골은 서울에 대해서 鄉村을 가리키던 말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의미의 변경 지방에 대해서 내부 일대의 중간을 가리키는 나라란 뜻으로 쓰이다가 점차 鄉村의 뜻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鄉藥이란 말은 중국에 대한 ‘우리 나라의 약’이란 뜻으로 쓰이다가 ‘서울에 대한 시골’ 즉 ‘鄉村, 窮巷의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의미하게 되었다. 鄉藥 藥材名을 흔히 줄여 鄉藥名이라 한다. 그리고 鄉名은 藥材名 뿐만 아니라 農書에 나오는 사물명 이룰때면 농기구명이나 곡식명 등에도 쓰인 말이다.

中國의 醫方書의 體系와 우리 나라의 醫方書의 體系를 比較, 對照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中國의 <神農本草經>에 대해서 살펴 보자. 神農은 三皇의 한 사람으로 모든 약물을 맛보아 五苦六辛의 맛을 분별해 놓았으며 農耕과 藥草의 守護神이었다. 神農이 썼다고 하는 <神農本草經>은 중국 최초의 藥物學이라고 한다. 이 책은 실제로 前漢시대에 쓰여진 것이라 보지만, 그 원전은 기원전 4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²⁾ 또한 이것은 모든 本草經의 기초가 되었다. 原本은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陶弘景이 註釋을 붙인 <名醫別錄>이 있다. <神農本草經>은 藥物을 君主(君藥), 大臣(臣藥), 輔佐官(佐藥), 一般臣下(使藥)의 階級에 比喻하여 分類하고 있다. 醫師들은 君, 臣, 坐, 使의 合理的 結合에 의해

2) 서재극(1995:181) 참조.

3) 김두중(1979:4) 참조.

生氣의 復活을 도모하도록 處方을 해야 한다고 했다. 上藥으로는 120종이 있으며 格으로는 君藥이라 이른다. 이는 壽命을 연장시켜 주며 이로써 하늘에 順應한다. 毒이 없으며 多量을 장기간 복용하여도 해가 없다. 신체를 경쾌하게 하면서 精氣를 성하게 한다. 中藥은 120종에 이르는데 格으로는 臣藥이다. 天性을 기르고 이어서 仁義에 순응한다. 下藥도 125종에 이르며 格으로는 佐使藥에 해당된다. 병을 고치는 데 주로 쓰일 때는 義에 순응한다. 이상의 上, 中, 下 三品에는 365種,⁴⁾ 365가지의 用法이 있으며 한 용법이 하루에 상응하며 이로써 1년을 형성한다. 그리고 種과 法의 양자를 합해서 730개의 名稱을 둔다. 이와 같이 藥에는 君, 臣, 佐使의 格이 있고, 이는 서로 補하기도 하고 또한 억제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 후 名醫들이 代를 이은 각자의 著述이 있었는데, 특히 唐代의 孫思邈(581-682)이 지은 <千金要方>은 素問의 심오한 뜻을 발휘한 것으로 거기에서는 藥을 분류할 때 玉石, 草, 木, 獸, 蟲魚, 菜, 米로 했으며, 그것을 다시 <神農本草經>의 分類 방식에 따라 上·中·下品으로 分類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鄉藥 醫方書인 <鄉藥集成方>의 鄉藥本草 各論에서는 아래와 같이 本草의 藥材名을 內容別로 類聚하고 이것을 다시 上·中·下品으로 分類하고 있어 <千金要方>과 동일하나, 草部의 上·中 下品을 다시 上, 下로 하위분류하고 있는 것과, ‘藥’을 ‘部’로, ‘玉石’을 ‘石’으로, ‘米’를 ‘米穀’으로, ‘草’를 ‘草’와 ‘果’로 바꾼 것, 그리고 ‘人部’를 추가한 것이 <千金要方>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

4) <神農本草經>에 나타난 365종의 藥名 目錄에 대해서는 정해철(1985:705)를 참조하기 바람.

그리고 <東醫寶鑑>에서는 ‘石部’를 다시 ‘石部, 金部, 玉部, 水部, 土部’로 세분하고, ‘蟲魚部’는 ‘蟲部, 魚部’로 나누었으며 ‘米穀部’는 ‘穀部’로 대체되어 그 分類가 보다 細分化되었음을 볼 수 있다.

<東醫寶鑑>의 湯液編

水部(33), 土部(18), 穀部(107), 人部(23), 禽部(107), 獸部(236), 魚部(53), 蟲部(95), 果部(91), 菜部(122), 草部(267), 木部(156), 玉部(4), 石部(55), 金部(33)

이상의 것을 종합하여 우리 醫方書의 내용을 체계화하여 그 관계를 要約 類聚하면 다음과 같다.

<千金方>	<鄉藥集成方>	<東醫寶鑑>	<要約>	<類聚分類>
玉石藥	石部	水部	植物性藥	草部
草藥	草部	土部		木部
木藥	木部	穀部		果部
獸藥	人部	人部		穀部
蟲魚藥	獸部	禽部		菜部
菜藥	禽部	獸部	動物性藥	人部
米藥	蟲魚部	魚部		獸部
	果部	蟲部		禽部
	米穀部	果部		魚部
	菜部	菜部		蟲部
		草部	鑛物性藥	水部
		木部		土部
		玉部		石部
		石部		金部
		金部		玉部

2. 植物性 鄉藥名 語彙의 解讀 및 語源 考察

植物性 鄉藥名 語彙는 草部, 木部, 果部, 穀部, 菜部로 세분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藥材는 매우 다양하며 動物性, 植物性, 礦物性 語彙 중에서 植物性 語彙가 가장 많고, 植物性 語彙 중에서도 특히 草部에 속하는 藥材名이 두드러지게 많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주로 自然의 鄉土에서 藥材를 취하며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草部 鄉藥名

草에는 山草, 毒草, 石草, 芳草, 蔓草, 苔草, 濕草 등이 있다. 또한 草部를 上品, 中品, 下品으로 나누고 각 品을 上, 中, 下로 다시 下位 分類할 수 있다.

(1) 葛根 / 鹿藿, 黃斤, 葛藤, 葛麻, 苦葛, 米葛, 鹿豆, 葛布, 葛藤子⁵⁾

- a. 吡乙根 (향구目 2)
- b. 吡乙○夫乙田仲 (향월 4)⁶⁾
- c. 츄불휘 (구방下 4) (구간 1-113) (동탕 726) (우마 8) (제중 8-3)
- d. 생갈근 날츄불휘 (분문 26)
- e. 츄불회 (구황 3)
- f. 갈 츄 (훈몽上 9) (역어하 40)
- g. 갈근 (연두下 72)
- h. 츄리불회 (산림 522)
- i. 칩쌀이 (단방 152)
- j. 칩뿌리, 칩 (동사 860)

5) 標題語의 제시 방법은 漢語 植物性 藥材名을 그 特性에 따라 다섯 개의 部로 下位 分類하여 가나다 순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 異名도 함께 제시하여 解讀에 參考한다. 異名은 주로 <본강>, <향집>, <동탕>에서 수집했다. 資料는 時代別로 제시하여 藥材名의 變遷을 살펴보기에 쉽게 했다. 맨 끝에는 方言 資料를 제시하여 解讀의 傍證 資料로 한다.

6) (향월 4)는 <鄉藥採取月令>의 4월 採取 項目에 속함을 나타낸다.

k. [鄉名]⁷⁾ 츨뿌리. (향본 37)

1. 칠기, 칠개이, 칠거리, 칠기뿔거지 (동남방언), 질기(울진), 덜근(경기방언).⁸⁾

(a)는 ‘叱(즈:音假) 乙(ㄷ:略音假) 根(불휘:訓讀)’ 즉 ‘츨불휘’로 解讀된다. ‘叱’의 傳統的 漢字音은 <新類下26>에 ‘츨’로 되어 있다. ‘叱’은 대개 ‘즈’음 系列의 ‘즈/스’이나 ‘스’音 系列의 ‘술/스/스’音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⁹⁾ 여기서는 ‘즈’음 계열의 ‘즈’에 해당되는 借字이다. 그 용례로 ‘阿叱加伊實(麻子, <鄉救下34>)’가 있다. ‘乙’은 獨立 音節로 쓰이면 ‘을’音, 音節끝에 分布하여 末音表記로 쓰이면 ‘ㄷ’音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叱乙’은 ‘츨’로 解讀된다. ‘츨’은 後代形 ‘츨’에 對應된다. 여기서 ‘즈>츠’의 變化는 자연스러우나 宗성의 ‘ㄷ’이 ‘ㄷ’으로 바뀌는 것은 재구형 ‘*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츨’은 ‘*츨’의 ‘ㄷ’ 중 ‘ㄷ’만 표기되었다. ‘叱乙’의 13세기 再構形은 ‘*츨/*츨기’였을 것이다. 現代 東南方言에 ‘츨’의 方言形이 ‘칠기, 칠개이, 칠거리’ 등으로 分布하는 것으로 보아 ‘츨’을 再構形으로 잡는 것이 無難할 것이다. (b)의 ‘ㅇ’은 字間 空白의 表記로 ‘츨’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ㅇ’의 예는 <향집 83>에 木蠹을 ‘登外ㅇ未飛者’로 ‘登外 츨 환생 못다 된 등에(나뭇잎 속에 있는 등에)’에서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前半部의 明細化에 대한 것이 後半部에 說明形 構造로 나타나고 있다. 後半部는 前半部의 ‘叱乙’ 植物의 ‘뿌리 부분’을 指稱한 借字表記로 보인다. 여기서 注目되는 부분은 ‘夫乙田仲’이다. 앞의 ‘叱乙+根’과 對應시켜 보면 ‘根:夫乙田仲’이 對應된다. ‘田方言呼 밧而今轉爲갓又呼앗’ (黃胤錫 原著 강헌규 譯註, 華音方言字義解, 45쪽)을 참조하여 ‘夫乙田仲’을 解讀하면, ‘夫(부:音假) 乙(ㄷ:略音假) 田(갓/앗:훈독) 仲(지:음가, 仲=地)’ 즉 ‘불갓지’로 된다. 그 古形은 ‘*츨

7) <鄉藥集成方> 杏林書院本은 後代의 文獻이라 借字表記 鄉藥名은 그 重刊本과 앞선 시대의 것을 베껴쓰고 관호안에 그 解讀形을 表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뒤의 한글 향약명은 後代人이 덧붙인 것이기에 [鄉名]이라는 지시어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 제시하여 解讀에 참고한다.

8) 김태정(1989:54) 참조. 慶北 東南方言 資料는 孫炳胎(1992)를 參照하고, 그 외는 <韓國方言資料集>과 各種 方言辭典類를 參考하여 제시했다.

9) 이은규(1993:12) 참조.

기불갓'으로 추정된다. '仲'이 '地'와 같음을 밝히고자 한다. 崔孤雲은 檀君 桓因時代의 神志 篆古碑文을 현대의 漢文으로 翻譯해 帖으로 만들어 天符經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81字로 되어 있고 暗誦되어 온 것을 수록한 관계로 겉보기에 7字중 6字는 ㅍ이 같으나 글자형은 다르다. 그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김일훈, 1994:20-26) 참조.

崔孤雲 事蹟本 碩 愧 杳 演 同 仰 中^{*}
 妙香山 石壁本 析 匱 妙 衍 動 昂 地
 奇正鐵 蘆沙本 析 匱 妙 衍 動 昂 中
 一十當 逸史本 析 匱 妙 衍 動 昂 地

위에서 보면 '地'字와 '中'字만이 ㅍ이 다르고 글자도 다른 것처럼 보인다. 아마 篆碑文에서 '地'로 옳겼으나 그뒤 암송되어 온 것을 기록할 때, 中(仲과 ㅍ이 같음)으로 옳겨 '地'와 '中'의 ㅍ은 같았다고 추정된다. 異本間에 '地'자가 두 번, '中'자가 두 번으로 表記된 것은 결코 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中/仲=地'의 假定下에 '夫乙田仲/中'과 '夫乙田地'는 類似할 것 같으니, '夫乙田仲'은 '불(夫乙)+갓(田)+지(仲=地)>불갓지'로 解讀할 수 있을 듯하다.¹⁰⁾

한글표기에서 '츄'은 '츄>츄>칙', '츄>츄>칠', '츄>츄'의 세 가지 유형으로 실현되었다. 차자표기의 '叱/즐'은 '즐>질', '즐>딜'로 바뀌어 실현되었다. 前者는 前舌母音화된 것이고, 後者는 前舌母音化를 경험한 다음 다시 逆口蓋音화된 것이다. '즐'에 '불휘'가 부가되어 '즐+불휘>즐불휘>츄불휘>츄불회>츄뿌리>츄뿌리>칠기뿌리(칠기뿔거리)'로 변천했으며 <구급방>시기에 'ㅈ>ㅊ'의 有氣音화가 일어났다. 또한 17세기 언해

10) (a)의 '根(불휘)'이 訓讀字로 쓰이다가 (b)에 와서는 '夫乙田仲(불갓지)'과 같은 音假字로 대체된다. <향월>시기부터 音假借가 進行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츄불휘'는 '츄+불휘'로, '날츄불휘'는 '날(生)+츄(葛)+불휘(根)'로 분석된다. 그리고 '츄불휘>츄불회'는 非圓盾化에 의한 것이다. '츄리불회'는 '츄+리+불회'로 분석되며 이것은 '츄+리+불회'에서 'ㄱ'이 탈락된 것으로 복합어 형성 과정에서 古形 '叱/즐'의 '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츄뿔이'에서의 '칙'은 '츄'츄'에서 '르'이 탈락된 표기이고, '뿔이'에서 '뿔'은 형태소를 밝혀 표기한 흔적이 보인다. '츄'이 '츄'혹은 '츄>칙'으로 되는 것은 '츄'이 '츄'혹은 '츄'으로 바뀌는 것과 ㅍ을 같이 한다.

서에서는 (g)에서와 같이 漢語名 그대로 ‘葛根’이 사용되기도 하여 固有語와 漢語의 浮沈이 엇보인다.

‘叱’은 그 字形의 轉訛에서 書體上 ‘死’의 省劃字(권재선, 1980:420)로 보기도 하고, ‘時’의 楷書體(김완진, 1985:6)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는 ‘叱’字가 漢子이면서 한자가 아닌 글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叱’의 형상은 ‘死’나 ‘時’에서 빌렸으며, 그 품이나 訓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국어 표기 위주의 특이한 표음문자로 승화된 것이라 본다. 또한 ‘旃羅尼師今, 脫解尼師今(三國史記)’에서와 ‘弩禮尼叱今一作尼師今, 脫解尼叱今(三國遺事)’에서와 같이 ‘師’와 ‘叱’은 같은 漢字로서 한 편이 俗字, 略字, 省劃字이든지 혹은 다른 한자라 할지라도 그 음이 비슷한 類音字 일 것이다.

(2) 京三稜 / 草三稜, 鷄爪三稜

- a. 結次呂笠根 (향구下 3)
- b. 結叱加次 (향구目 4)
- c. 每作只根 京三稜 (향월 2) (향집 79) (촌가 14) (향성 636)
- d. 牛夫月乙 草三稜 (향월 9) (향집 79-24)
- e. 미자깃불휘 (구간 2-5)
- f. 牛夫月乙 / 쇠부달 (촌가 62)
- g. 삼능 (언태 51)
- h. [鄉名] 牛天(夫?)月乙. 매자기뿌리. (향본 45)
- i. [鄉名] 每作只根 (매자기뿌리). (향본 58)
- j. 매자기 (식명 346) (동사 65)

(a)는 ‘結(미즈:훈독) 次(즈:음가, 添記字) 呂(ㄹ:약음가) 笠(갈:훈독) 根(불휘:훈독)’ 즉 ‘미죽갈불휘’로 解讀된다. (c)(e)에서 ‘每作只/매자기’, ‘미자기’가 나타나므로 ‘結’은 원래 ‘밧’이나 현실음과 後代語形과의 對應을 고려하여 ‘結’을 ‘미즈’로 解讀한다. <계림 268>에 ‘笠曰蓋音渴’이 있어 ‘笠’의 訓인 高麗語는 ‘*갈’이고, 15세기음도 ‘갈’, 현대음은 ‘갓’이다. (b)는 ‘結(미즈:훈독) 叱(즈:약음가) 加(가:음가) 次(즈:약음가)’ 즉 ‘미죽갓’으로 해독된다. ‘笠(갈)’과 ‘加次(갓)’은 구별되었으며 내파되어

‘ㄷ’과 ‘ㅈ’이 混記된 것이다. (a)(b)에서 ‘ㄷ:ㅈ’, ‘ㄷ:ㅈ’이 대응된다. 또 ‘좁>좁’의 초성과 종성이 일치하는 음운 변화가 특이하다. (c)는 ‘每(ㄷ:음가) 作(자:약음가) 只(기:음가) 根(불휘:훈독)’ 즉 ‘미자기불휘’로 해독된다. (a)(c)에서는 ‘미좁>미죽’에서 ‘ㅂ>ㄱ’으로의 변화와 훈독자 ‘結-’에서 음가자 ‘每-’로의 변화를 볼 수 있다. (d)는 ‘牛(쇼:훈독) 夫(부:음가) 月(돌:음가) 乙(근:약음가, 末音添記字)’ 즉 ‘쇼부돌’로 解讀된다. 이것은 이 식물이 부들과 外形의으로 類似한 속성을 지녔기에 특정명시 하위구별표지 ‘쇼’가 附加되어 붙여진 이름이고, 후대로 이어지는 語形은 ‘매자기’와 ‘쇠부들’이다. <향구>에서는 京三稜과 草三稜의 구별이 없다가 <향월>이후 두 植物의 辨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景天 / 戒火, 火母, 救火, 據火, 愼火草, 血山草

- a. 戒火 景天 (향구中 20)
- b. 戒火 俗云 塔菜 (향구目 1)
- c. 집우디기 (동탕 725) (물명 102)
- d. 집우지기 (산림 405)
- e. 큰평의 비름 (식명 346)
- f. 평의 비름 (동사 1047)
- g. [鄉名] 집우지기 (향본 35)
- h. 넓은 잎 기린초, 평의 비름.

‘景天’의 異名이 ‘戒火’이고 戒火의 俗名은 塔菜이다. (b)의 ‘塔菜’는 ‘塔(탑:음독) 菜(낙:훈독)’ 즉 ‘탑낙물’로 해독된다. 이 약초는 잎이 층층으로 되어 있어, 塔을 연상할 수 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동탕 725>에서 ‘景天’에 대해 ‘苗葉似馬齒莧而大作層而生莖’이란 설명이 塔菜의 語源 糾明에 端緒를 제공해 준다. 한글 표기에 ‘집우디기’형이 나타나는데 ‘집우디기/집우지기’의 語源은 ‘집웅+지기>집웅지기>집우지기’로 이 식물을 ‘지붕에 올려 불을 막는다’란 의미의 ‘지붕’과 관련된다고 추정된다.¹¹⁾ ‘지기/디기’는 풀을 지칭하는 접미어로 쓰였다. 후대에는 ‘큰 평의 비름, 평의 비름’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잎의 모양이 ‘평의 비름’처럼 동

11) ‘今人盆盛植屋上以辟火故謂之愼火草’ <동탕 725>

글동글하기 때문에 붙여진 名稱이다.

(4) 苦蓼/ 水槐, 苦蘆, 地槐, 驕槐, 白莖

- a. 板麻 (향구증 19) (향구목 2) (향월 3) (향집 79)
- b. 苦蓼 (향제 8)
- c. 뽀너싣불휘 (구간 1-98)
- d. 뽀너삼불휘 (동탕 726)
- e. 뽀녕암 (광제 25)
- f. 뽀너습불휘 (제중 8-5)
- g. [鄉名] 板麻(쓴너삼). 도둑놈의몽치. 도둑놈의집팽이. 뱀의정자. (향본 37)
- h. 여삼대

苦蓼은 묘 주변에 많다. 이 사실은 이 鄉藥名의 造語 배경에 民間語源을 추정해 볼 수 있게 한다. 겉면의 색은 황갈색이며, 껍은면은 황백색이고 강한 苦味가 있다. (a)는 ‘板(널:훈독, 널빤지의 널) 麻(삼:훈독)’ 즉 ‘널삼’으로 해독된다. ‘麻’는 ‘삼’으로 <三國史記 卷34>에서 ‘三支縣本三支縣一云麻枝’라고 한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다. 그러나 (c)의 ‘뽀너싣불휘’에서 보면, ‘麻’는 ‘삼’에 對應되고, 또 복합어가 단일어보다 古形을 유지함을 감안할 때, ‘板麻’는 ‘널삼’으로 解讀해야 할 것이다. 13세기 국어에서는 설단자음 ‘△’에 先行한 ‘ㄱ’은 아직 탈락되지 않았고, 후대에 와서 ‘ㄱ’이 탈락되어 ‘너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너삼’은 ‘△>ㅅ’ 변화에 의하여 ‘너삼’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ㅇ’ 변화에 의하여 ‘너암’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모음충돌회피로 ‘녕암’이 되었다.

한글표기에서 ‘뽀’를 겹두시켜 ‘뽀너삼’으로 되어, ‘단너삼[黃耆]’과 구별하고 있다. 漢語에 대응되는 온전한 鄉藥名은 ‘뽀너삼불휘’로 자리잡게 되었다. (g)의 한글 표기에서 ‘쓴너삼’은 ‘쓴(쓰다,苦)+너삼(널삼)’으로 분석된다. ‘도둑놈의몽치’는 ‘도둑놈+의+몽치’로 분석되어 이 藥草의 뿌리를 지칭하고 있고, ‘도둑놈의집팽이’는 ‘도둑놈+의+집팽이’로 分析되고 이 약초의 줄기를 지칭하며, ‘뱀의정자’는 ‘뱀+의+정자’로 分析되며 이 藥草의 全草를 指稱하고 있다.

(5) 瓜萑根 / 地樓, 澤姑, 黃瓜, 天瓜

- a. 天原乙 (향구中 28)
- b. 天叱月乙 (향구上 9)
- c. 天乙根 (향구목 2)
- d. 天叱月伊 (향월 6) (향집 79)
- e. 하눌드래 팔, 하눌드래 루 (훈몽상 9)
- f. 天叱他里 / 하눌타리 (촌가), 天圓子 天乙他里 / 하눌타리 (촌구)
- g. 하늬다래 (구간 1-22)
- h. 하눌타리불휘 (우마 12) (동탕 726)
- i. 천화분 (마경下 5) (단방 132)
- j. 하날타리불휘 (산림 522)
- k. 하날탈이 (물명 79)
- l. 하날타리 (방약 298)
- m. [鄉名] 天叱月伊 (한울타리)뿌리. (향본 37)
- n. 하늘타리뿌리 (동사 820)
- o. 하늘수박, 하늘수박

과루가 노랗게 익어 나무가지에 둥근 보름달같이 달려 있는 것에서 달과의 類似性을 찾을 수 있다. (a)의 ‘天’은 瓜萑의 別名 ‘天圓子, 天瓜’의 ‘天’을 고려하면 訓讀하여 ‘하늘’, ‘原’은 異表記 ‘月’과의 대응을 고려하여 혼차하여 ‘들’이지만 대립모음으로 모음조화를 고려하면 ‘돌’로 된다. 그리고 ‘月’은 訓讀되어 ‘돌’로 된다. ‘乙’은 음차되어 ‘ㄹ’로 선형어의 末音を 첨기하고 있다. 그래서 (a)는 ‘하늘돌’로 解讀된다. (b)의 ‘叱’을 음차자 ‘ㅅ’ㅍ의 표기로 보면 ‘天+叱+十月乙’로 분석되어 ‘하늬돌’로 해독된다. 여기에 ‘애’가 접미되어 (g)와 같이 ‘하늬다래’가 된다. (c)는 ‘하늘불휘’ (d)는 ‘하늬돌이’, (f)는 ‘하늬타리, ‘하날타리’로 解讀된다. 瓜萑根에 대한 借字表記의 기본형은 ‘天叱月乙根’이다. ‘天乙根’은 ‘原’이 생략되었고 ‘天叱月伊’는 명사형성 접미사 ‘伊’가 접미되고 末音添記가 없다. <촌가>의 ‘-타리’는 유기음화 과정을 겪은 당시 현실음을 잘 반영한 표기라 볼 수 있다. 이 유기음화는 ‘하날ㅎ’의 ‘ㅎ’ 종성 체인의 영향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화로 여겨진다. ‘他(타)’의 유기음 표기는 고유어 ‘하늘타리’의 ‘타’에 대응한 표기로 볼 수도 있고, 차자표기 ‘叱+月’의 2字가 ‘他’의 1字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i)의 ‘천화분’은 ‘하늘타리’의 꽃가루를 나타낸다. 그리고 접미사 ‘伊’첨가 후에는 借字表記에서 ‘天叱月伊, 天叱他里’처럼 4개의 形態 要素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후대에 와서 ‘하늘타리’에 ‘불휘, 씨, 가로, 열매’ 등의 접미 요소가 붙어 복합어를 이루고 있다. ‘한울타리뿌리’는 ‘한울(하늘, 天)+탈(달, 月)+이(명사형성접미사)+뿌리’로 분석된다. ‘하늘’은 ‘하날’ 혹은 ‘한울’로 변천했다. ‘하늘타리’는 민간에서 ‘하늘수박’으로 불린다.

(6) 瞿麥 / 天菊, 巨句麥, 大菊, 大蘭, 山竹, 洛陽花

- a. 石竹花 (향구中 8) (향집 79) (산림 513)
- b. 鳩目花 又 石竹花 (향구目 2)
- c. 석죽화 이삭 (구간 3-92) (동탕 727)
- d. 石竹花 / 석족화 (촌구 87)
- e. 구믹 (언두下 18)
- f. 석준화 (제중 8-15)
- g. 퍼랑이꽃 (물명 3-67)
- h. [鄉名] 石竹花(석죽화) · 패랑이꽃 (향본 39)
- i. 패리꽃, 파리꽃, 패랭이, 참대풀, 술패랭이, 구름패랭이

이 약초는 바위틈에서 잘 자라며 잎줄기가 대[竹]와 비슷하다고 하여 ‘石竹花’라 하고, 흑색의 扁平한 종자의 모양이 귀밀과 비슷하여 瞿麥이라 命名했다. (a)는 ‘石(석:음독, 훈몽상2) 竹(듀:음독, 훈몽상4) 花(화:음독)’ 즉 모두 음독되어 ‘석죽화’로 해독된다. (b)는 한어명 瞿麥이 국어에 수용되면서 ‘瞿麥’음이 訛傳되어 ‘鳩目’으로 음차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풍현(1981:42)에서는 이 풀 씨앗이 비둘기눈과 유사성이 있어 擬音假字 표기의 범주에 넣었고, 이덕봉(1963:13)에서는 비둘기눈꽃’으로 해독하고, 이은규(1993:37)에서는 용자례에 따라 ‘구목화’로 재구했다. 후대에 와서 ‘석죽화>석족화’의 구개음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석죽화가 ‘퍼랑이’ 형으로 대체되어 ‘퍼랑이’에 ‘참, 술, 구름’등의 접두어가 붙어 파생어를 이루고 있다. ‘퍼랑이>패랭이’의 語源은 ‘평랑립(平涼笠)’이고 이것은 ‘땃개비로 엮어 만든 갖의 한 가지’이다. ‘패랭이(석죽화)’는 그

꽃 모양이 흡사 器物인 ‘平涼笠’과 같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술패랭이’는 실로 만든 오색 수술같은 꽃술이 길게 늘어진데에 命名의 緣由가 있다. ‘패랭이꽃’은 ‘ㅣ’모음 동화 현상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방언에서는 ‘패랭이, 패리’로 불린다.

(7) 芎藭 / 胡藭, 香果, 青穹

- a. 芎芎草 (향구下 34) (‘芎乙草’처럼 보이지만 선행어 芎의 反復字이다)
- b. 蛇休草 又 蛇避草 (향구目 1)
- c. 芎藭 (향제 9) (향집 78)
- d. 朱書 蛇体草 蛇避草 (향월 3)
- e. 궁궁잇불취 (구간 2-8)
- f. 천궁 (언두上 14) (두창방 18)
- g. 궁궁이 (동탕 723)
- h. [鄉名] 궁궁이뿌리 (향본 31)
- i. 궁개이, 궁기이

(a)는 ‘芎(궁:음독) 芎(궁:음독) 草(플:훈독)’ 즉 ‘궁궁플’로 해독된다. 후대에 ‘플’대신 ‘이’가 附加되어 ‘궁궁이’가 되고, ‘뿌리’가 부가되어 ‘궁궁뿌리’로 쓰였다. ‘蛇休草, 蛇避草’는 <향구>이후 15세기에는 鄉藥名으로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前者는 ‘궁궁이플’ 싹이 돋을 때의 줄기의 모습을 뱀이 서리고 있는 모습에 비유한 것으로 보이고, 後者는 ‘궁궁이’의 특이한 냄새 때문에 뱀이 이 풀을 싫어한다는데 命名의 緣由가 있는 것 같다. (d)는 朱書로 보아 ‘蛇体草’에서 ‘体’가 아니고 先代形 ‘休’일 것이다. ‘蛇休草’는 ‘蛇(브얌:훈독) 休(말:훈가) 草(플:훈독)’ 즉 ‘브얌말플’로 解讀된다. 여기서 ‘말/休’은 ‘말다(捲)’의 훈가자이다. ‘休’에 대해서는 ‘刀古休伊(蒼耳)/도고말이’의 용례가 있어 이를 傍證해 준다. ‘蛇避草’는 ‘蛇(브얌:훈독) 避(들흠:훈가, 두리(怖)의 변한말) 草(플:훈독)’ 즉 ‘브얌들흠플’로 잠정적으로 解讀해 둔다. 그 근거는 뱀이 궁궁이플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궁궁이플을 장독대에 심고 뱀의 접근을 막고 있다는 俗說에 있다. 또한 ‘地頭乙戶邑(虎驚草)/싸들흠’의 용례가 있어 이를 傍證해 준다. ‘驚’은 15세기의 ‘두리-(怖)’에 대응한다. 남풍현

(1981:47)은 13세기때 ‘避’의 훈이 ‘두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¹²⁾ ‘궁궁이’와 같은 식물의 單語族에 漢語名 ‘蕪蕪’는 鄉藥名 ‘궁궁이싹[芎藭苗]’을 뜻하며 江籬, 川芎苗 등의 異名이 있다. ‘궁궁잇불휘’는 ‘궁궁+이(명사형성접미사)+ㅅ(사이시옷)+뿌리(부위명사하위구별표지)’로 분석된다. ‘궁궁이’는 漢語名 ‘川芎’으로 쓰이기도 한다. 지금은 ‘궁궁이’는 야생의 것을 의미하고 ‘천궁’은 재배한 약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漢語名 ‘芎藭’에서 차용된 ‘궁궁이’에서 ‘궁개이’ 혹은 ‘궁기이’로 변하여 사용되고 있다.

(8) 桔梗 / 桔草, 利如, 房圖, 齊莞, 苦梗

- a. 道羅次 (향구上 8)
- b. 刀스次 (향구目 4)
- c. 都乙羅叱 (향월 2) (향집 79)
- d. 道乙阿叱 / 돌앗 (촌구 128)
- e. 도랏 (구간 2-65) (훈몽上 7) (역어下 11)
- f. 돌랏 (경험 3)
- g. 길경 (창진 34)
- h. 도라지 (산림 1-124)
- i. [鄉名] 都乙羅叱(도랏) · 도라지. (향본 49)
- j. 돌가지, 돌개, 도래

(a)는 ‘道(도:음가) 羅(라:음가) 叱(스:약음가)’ 즉 ‘도랏’으로 解讀된다. (b)도 모두 음차되어 ‘도랏’으로 해독된다. ‘스’는 ‘羅’의 略字이다. (c)는 ‘都(도:음가) 乙(르:약음가) 羅(라:음가) 叱(스:약음가)’ 즉 ‘돌랏’으로 해독된다. (d)에서 ‘叱’은 한글표기 ‘돌앗’의 ‘ㅅ’과 대응되므로 ‘스’으로 略音假借하여 ‘돌앗’으로 해독한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도랏, 돌랏, 도라지’로 불리었다. 여기서의 ‘도랏>돌랏’은 ‘ㄹ’이 兩音節化된 것이고, ‘도랏>도랏’의 ‘스>ㅅ’은 音節末에서

12) ‘두르-(怖)’를 ‘避’의 동작인 ‘두르-(回避)’가 그 原因인 ‘怖’의 뜻으로 바뀐 데서 분화된 단어로 보았다. ‘두리두리’는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할 때 아기한테 흔히 사용한다.

‘스’이 ‘시’으로 中和된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빛이>빛이’, ‘꽃이>꽃이’로 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그리고 <산림>에서 이미 ‘이(伊)’字의 접미로 ‘돌 +이>돌 이>돌라지>도라지’가 되었다. 방언형 ‘돌가지’는 ‘돌앗+이’에 ‘ㄱ’이 개입되어 ‘돌갓이>돌가지’로 변천했다.

(9) 藍藤根

- a. 加士草 (향월 12) (향집 78)
- b. 加士沙伊/가사새 (촌구 69)
- c. 가사새 (동탕 723)
- d. [鄉名] 加士草(가사새). (향본 31)
- f. 가새풀

이 약초의 뿌리는 ‘족두리풀 뿌리(細辛)’와 비슷하며 여러 가닥의 실같이 보인다.¹³⁾ (a)는 ‘加(가:음가) 士(스:음가) 草(새/플:훈독)’ 즉 ‘가사새/가사플’로 해독된다. 여기서 ‘草’는 ‘플’로 해독될 가능성이 더 많다. ‘새’는 (b)의 ‘沙伊(사이)’의 조합형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오늘날에도 ‘억새, 속새, 박새, 놀구새’ 등에서의 ‘새’는 ‘플’을 의미하나 ‘새풀’의 ‘새’는 칼날같이 날카로운 풀잎을 의미한다. ‘草’가 ‘새’혹은 ‘플’로 혼차됨은 주목되는 것이다. ‘草’의 ‘무’字는 옛음이 ‘새’였기 때문에 ‘草’를 ‘새’로 읽는다.¹⁴⁾ 방언에서는 두 訓을 아울러 일컬어 ‘새풀’이라고도 한다. ‘沙伊(새)’는 ‘草’에 대응되는 고유어로 ‘플’ 이전의 古形이라 할 수 있다. (a)에서 ‘草’는 (b)의 ‘沙伊’와 대응이 된다. 즉 1字 訓讀字에서 2字 音假字로 바뀐 것이다. 正音表記 前後에 ‘새’와 ‘플’이 共存하다가 그 이후는 플로 대체된다. 借字表記에서는 ‘가사플, 가사새’로 불리었으나 한글표기에서는 ‘가사새, 가사새’로 일관되고 있다. 菴은 새 지비라 <法華二244>, 軒 새 지비로소니 (一草堂)<朴초七2> ‘에서 ‘새’는 ‘草’를 의미한다. ‘가사’의 語源을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이 본초의 덩굴잎이 가사(袈裟)를 聯想할 수 있기에 梵語에서 借用되었다고 추정된다. 둘째는 잎의 가장자리 모양이 가위의 톱날을 연상할 수 있기에 ‘가사, 가

13) 根如細辛生新羅國<향성609>

14) 황윤석 原著 강헌규 譯註 (1995:24) 참조.

사, 가시개, 가새' 등의 어형과 관련지어 器物 가위에 의한 隱喻的 名稱이라 할 수 있다. '가사새'의 形態的 分析은 '가사(加士) + 새(草)'로 확정된다.

(10) 藍實 / 蓼藍

- a. 靑台 靑苔 (향구上 1) (향구上 9) (향구目 2)
- b. 靑乙召只 (향구상 2)
- c. 靑台 (향월 4), 靑黛 (향월 4)
- d. 靑黛實 (향집 78-17)
- e. 청딛줍 (구간 2-84)
- f. 족 (구급하 5)
- g. 족삐 (동탕 243)
- h. 쪽씨 (동사 263)
- i. [鄉名] 靑黛實(쪽씨). (향본 31)

(a)는 '靑(청:음독) 台(타:음독)' 즉 '청타'로 해독된다. 이것은 異表記(d)의 '靑黛實'이 있기에 해독에 도움을 준다. (b)는 '靑(프르:훈독) 乙(으:약음가자) 召(조:음가) 只(가:약음가, 기→기)' 즉 '프를족'으로 解讀된다. '靑(프르)'은 末音添記字 '乙'이 있는 것으로 보아 訓讀됨이 틀림없다. '召'는 '屈召介, 屈召介伊'의 用例에서 보듯이 '조'로 音借되었다.

'只'는 '多只/닥(楮實)'〈향구목 3〉의 용례에서처럼 선행어에 붙어 '기' 종성을 표기하고 있어 여기서는 '召'와 어울어져 '召只'이 되어 '족'으로 解讀됨을 알 수 있다. (d)의 '實'은 '삐'로 보아 '청타삐'로 解讀된다. (i)는 (d)의 것을 베낀 것임을 알 수 있다. 후대에 '삐'가 붙어 '족삐'가 되고 '쪽씨'로 불린다.

(11) 漏蘆 / 野蘭

- a. 伐曲大 (향집 78)
- b. 絕殺大 / 곡대 (촌구 99)
- c. 절곡대 (동탕 724)
- d. 법고치 (물보 318)

- e. [鄉名] 伐曲大(질국대)뿌리. (향본 33)
f. 삐국채

(a)는 倣借되어 ‘벌국대’로 해독되고 후대의 ‘삐국채’와 관련시키면 ‘절국대, 절곡대’는 ‘벌국대’처럼 삐꾸기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것에 그 語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 즉 ‘벌곡대, 벌고칭, 삐국채’의 語形과 ‘절곡대, 절국대, 질국대’의 語形이 공존했다. ‘절국대’는 ‘벌국대’가 訛傳된 것으로 보이고 소리에 의한 比喻의 命名으로 ‘질국대’는 ‘절곡대’의 誤字로 보인다. ‘질국대’는 ‘질국(‘절국’ 즉 ‘벌곡’의 소리)+대(줄기)’로 분석된다. 그리고 <동탕 691>에 ‘布穀’이 ‘벽국새’로 되어 있어, ‘布穀’과 (a)(e)의 ‘伐曲’은 그 音이 類似하므로 위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삐국채’는 漏蘆가 꽃필 무렵에 삐국새가 울기 때문에 時間的 隣接에 의한 意味의 類似로 名稱이 變移된 예이다.

(12) 當歸 / 乾歸, 川芎, 日當歸, 文無, 大芹, 象馬

- a. 黨歸菜 (향구중 24)
b. 且貴草 (향구목 2)
c. 僧庵草 (향월 2) (향집 79) (촌가)
d. 승암초불취 (구간 2-5) (광제 2)
e. 승엄초불취 (동탕 727)
f. 승검초불취 (방약 268)
g. [鄉名] 僧庵草(승엄초)뿌리. 승검초뿌리. 신감채뿌리. (향본 38)
h. 당기, 토당기, 일당기

(a)는 ‘黨(당:음가) 歸(귀:음독) 菜(채:음독)’ 즉 ‘당귀채’로 해독된다. (b)는 ‘且(단:음가) 貴(귀:음가) 草(초:음독)’ 즉 ‘단귀초’로 解讀된다. 이것은 漢語名 ‘當歸’에서 訛傳된 것으로 보이며 音相이 비슷하여 국어화 되는 과정에서 ‘당귀초’와 공존한 語形이다. (c)는 ‘僧(승:음독) 庵(암:음독) 草(초:음독)’ 즉 ‘승암초’로 解讀된다. 金斗燦(1983:33)에서 지적했듯이 ‘僧庵’은 <훈몽중 56>의 ‘庵訓’에서 ‘달암僧居草舍’로 나와 있어 그 ‘僧’字와 ‘庵’字間에는 意味가 통한다. 그래서 모두 音讀字로 보고 이것은

佛家에서 緣由된 翻譯漢字語의 造語로 추정된다. ‘僧庵草’는 후대형 ‘승암초, 승엄초’에 대응되며 ‘승엄초>승검초’에서 ‘ㄱ’ 첨가 현상을 보인다. ‘신감채’는 ‘승검초’의 풀이 訛傳된 것이라 여겨진다. (g)에서는 ‘승엄초’의 ‘古形’과 ‘승검초, 신감채’의 改新形이 공존하고 있다. 當歸는 ‘당귀’ 혹은 ‘僧庵草’에서 변화한 ‘승검초’로 불리고 재래종은 ‘토당기’,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일당기’라 부른다.

(13) 大小薊根

① 大薊/虎薊, 馬薊, 山中旁, 鷄項草, 野紅, 鐵刺文, 猫薊.

- a. 大薊 大居塞 (향월 4) (향집 79)
- b. 한거식 (구간 3-97)
- c. 大居塞/큰거식 (촌구 52)
- d. 향가식 (동당 730)
- e. 엉것귀 野紅花 (역어下 39)
- f. [鄉名] 大薊 大居塞(대거새). 엉경귀. (향본 43)
- g 향가새 (약초 28)
- h. 엉경꾸, 엉경귀, 엉거시, 엉거꾸, 가시나물.

(a)는 ‘大(한:훈독) 居(거:음가) 塞(시:음가)’ 즉 ‘한거시’로 解讀된다. 이 藥草의 잎줄기에 큰 가시가 있는 것이 향약명 語源의 기반이 된다. ‘居塞’의 용례는 ‘居塞蓮(鷄頭實)’의 ‘거시런삐’가 있다. 여기서도 ‘居塞’는 날카로운 ‘큰 가시’를 의미한다. ‘한거식’은 후대에 오면서 ‘한거시, 한거식, 향가식’로 되었다. ‘엉것귀’는 ‘엉경귀’ 혹은 ‘엉거꾸’로 변천했다.

방언형 ‘엉거시’는 ‘엉거꾸’와 ‘가시’의 혼태로 된 것이다. 오늘날은 ‘엉경귀’로 불린다. 이 풀의 꽃에 점액성이 있어 엉기는 성질이 있는데에 그 命名의 緣由가 있는 듯하다.

② 小薊/蒺藜子

- a. 曹方居塞 (향월 4) (향집 79)
- b. 羅邑居塞/남거식 (촌구 53)
- c. 蠟居塞 (구방하 122)

- d. 조방거시 (구간 3-97)
- e. 조방거시 (동탕 730)
- f. 조방이 (사성上 23) (훈몽上 4)
- g. 조방가새, 조방이 (물명 94-9)
- h. 小薊[鄉名] 曹方居塞(조방거새)뿌리. (향본 43)
- i. 자라귀, 조바리 (야화 89)
- j. 쪼바리, 조뱅이.

영경귀와 조뱅이의 구별은 가시의 크기와 성질로 구분되는데 영경귀는 가시가 크고 날카로운데 비해, 조뱅이는 작고 부드럽다. (a)는 ‘曹(조:음가) 方(방:음가) 居(거:음가) 塞(식/시:음가)’ 즉 ‘조방거시’로 解讀된다. ‘曹方’은 指小語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大居塞’의 ‘大[한]’에 대응되기 때문이다. 조방은 방언 ‘조방무시’에서 보인다. ‘조발무시>조밭무시>조박무시>조방무시’로 변했을 것이다. ‘조방무시’는 조밭 사이에 자란 볼품 없는 주먹만한 작은 무를 지칭한다. ‘조방거새’의 ‘曹方’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추정한다.

(b)는 ‘羅(나:음가) 邑(ㅂ:약음가) 居(거:음가) 塞(시:음가)’ 즉 ‘납거시’로 解讀된다. (c)의 ‘蠟’을 고려할 때 ‘羅邑’이 ‘납’으로 解讀됨이 확실하다. ‘蠟’도 지소적 의미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후대로 오면서 ‘거시’가 ‘이’로 대체되어 ‘조방이, 쪼방이’로 되었다. ‘납(蠟)’이 접두되어 ‘납거시’로 되기도 했다.

(14) 獨活 / 羌活, 虎王師者, 獨搖草

- a. 虎驚草 (향구目 1)
- b. 朱書 虎驚草 (향월 2)
- c. 地頭乙戶邑 (향집 78)
- d. 독활 (구간 1-89), (두창방 18), (언태 38)
- e. 싯돌흙 (동탕 721), (산림 538), (세종 8)
- f. 돌흙 木頭榮 (동탕 719)
- g. 뭇돌흙 (방약 265)
- h. [鄉名] 地頭乙戶邑(뭇돌흙)뿌리·뭇돌흙뿌리. (향본 27)
- i. 땅두릅, 땅돌굽

漢語名 ‘獨活’은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저절로 흔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獨搖草’라고도 한다. (a)(b)는 ‘虎(범:訓讀, 대범) 驚(두리:訓讀) 草(풀:訓讀)’ 즉 “범두리풀”로 解讀된다. 여기서 ‘虎’는 ‘범’으로 解讀될 수 있으나, ‘대범’의 어형에서 복합어는 더 고품을 유지하기에 ‘범’으로 해독한다. ‘驚’은 ‘怖(두렵다)’와 관련지을 수 있다.¹⁵⁾ 흔히 植物名 앞에 動物名을 接頭시켜 또 다른 類似한 식물명을 派生시키는 것과 같다. 虎驚草는 “호두리새, *범노라새” 등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虎’는 ‘두리’나 ‘노라’를 강조하기 위해 접두시킨 것이라 보인다. 이 語形은 <月令> 이후 소멸되었다. 고유어를 借字로 표기하자면 먼저 고유어를 음절 분석해서 그 분석된 음절의 음성형태에 가장 가까운 借字를 대비시켜야 한다. 여기서 고유어 “*둘흙”에 대응되는 음차자를 대비시켜 보면, ‘둘=두(頭)+을(乙)’과 ‘흙=호(戶)+읍(邑)’으로 된다. 그래서 (c)는 ‘地(따:訓讀) 頭(두:音假) 乙(에:略音假) 戶(호:音假) 邑(에:略音假)’ 즉 ‘*사들흙’으로 解讀된다. 略音假字 ‘乙’과 ‘邑’은 각각 선행어 ‘둘’과 ‘흙’의 末音을 表記한 것이다. 對立母音間의 母音調和와 複合語의 認識에 의해서 ‘*사들흙, *삿들흙’으로 실현될 수 있다. ‘*삿들흙’은 ‘*사+ㅅ+들흙’으로 語根(上位區別標識) ‘*들흙’에 접두어 ‘*사’가 붙어 파생어를 이루고 있다. ‘*삿’의 ‘ㅅ’은 이른바 ㅎ終聲의 표출 변음이라 하겠다. 한글 표기에서 ‘*사, 뵤, 뵤’의 변천을 보여준다. <향본>에서는 ‘*따’와 ‘*뵤’가 공존하고 있다. 표제어의 그 異名으로 ‘虎王師者’가 있어 ‘虎驚草’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虎驚草’는 漢語에서 온 것이라 추정된다. ‘獨活’은 “*범두리풀, *사들흙, *삿들흙, *뵤들흙”으로 변천된다.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는 ‘虎驚草’와 ‘*사들흙’이 우세하고 17세기에는 한자어 ‘獨活’로 대체되었다가 19세기 이후는 다시 고유어 ‘*뵤들흙, *뵤들흙’으로 대체되었다. (h)는 ‘*따/뵤+ㅅ+들흙+뿌리’로 분석되어 특징명시 하위구별표지인 ‘*따’와 ‘*뵤’는 신출되는 장소를 의미하고, ‘*뿌리’는 약재의 사용 부위를 명시해 주는 구별표지이며 ‘ㅅ’은 복합어 인식의 흔적이라 볼 수 있다. ‘*뵤들흙’은 ‘*뵤에서 돌아나는 두

15) 남동현(1981:65)에서 ‘驚’은 15세기의 ‘두리-怖’에 대응된다고 했고, 최범훈(1980:407)은 ‘驚’을 ‘노리’로 해독했다. 이규경(1788?)이 지은 <白雲筆>의 야채, 산채의 속명은 주로 음차표기되어 있다. 虎驚草는 한자어의 異名을 고려하여 풀 讀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름'을 일컫는다. '참두름'은 '木頭菜'이며, '개두름'은 가시가 굵은 '읍나무(엥개나무)'에서 돋은 어린 순이다. <향집>이래로 '地頭乙戶邑'이 한글표기에도 반영되어 '땃돌흙', '땃돌흙'이 되었다.

(15) 馬兜鈴 / 都淋藤, 獨行根, 雲南根, 獨走根

- a. 勿叱隱阿背 (향구中 1)
- b. 勿叱隱提阿 (향구中 1)
- c. 勿兒隱提良 (향구目 5)
- d. 勿兒冬乙羅 (향월 7)
- e. 勿兒隱冬乙乃 (향집 79-46)
- f. 冬兒冬乙羅 / 쥐방울 (춘구 108)
- g. 쥐방울 (동당736) (경험 2) (산림 535)
- h. 등치, 방울풀열매 (동사 306)
- i. [鄉名] 勿兒隱冬乙乃 쥐방울 (등치). (향본 55)
- j. 쥐방울뿌리, 마도령 (식회 128)
- k. 쥐방울, 마두령

漢語名 '馬兜鈴'은 '말방울'을 의미한다. 이 본초 식물의 꽃이 흡사 말의 목에 달랑거리는 방울같이 생겼다. 그래서 '말방울풀'이라고도 한다. (a)-(f)의 차자 향명을 해독함에는 말방울의 모양과 그 소리를 연상할 필요가 있다. 먼저 (f)부터 해독해 보면, '冬(돌:음가) 兒(아:음가) 冬(돌:음가) 乙(ㄷ:약음가) 羅(라:음가)' 즉 '돌아돌라'로 된다. 이것은 말방울 소리의 '달랑달랑'과 음상이 통한다. 이러한 추리로 (e)도 해독하면 '勿(말:훈가) 兒(아:음가) 隱(ㄴ:약음가) 冬(돌:음가) 乙(ㄷ:약음가) 乃(나:음가)' 즉 '말안돌나'로 된다. 여기서 '勿/말'은 한어 '馬/말'에 대응되는 음이다. '隱'은 전통적인 吏讀 表記로 관형사형 어미 'ㄴ'을 표기할 때 쓰인다. '乙'은 '冬'의 발음을 첨기한 것이다. 활음을 고려하면 '말안돌라'로 된다. (e)를 형태적으로 분석하면 '勿+兒隱+冬乙乃'로 된다. 즉 '말에 달린 달랑이'란 뜻일 것이다. (d)는 '勿(말:훈가) 兒(아:음가) 冬(돌:음가) 乙(ㄷ:약음가) 羅(라:음가)' 즉 '말아돌라'로 해독된다. (a)(b)(c)를 형태적으로 분석하면 '勿+叱+隱+阿背', '勿+叱 隱+提阿',

‘勿十兒十隱十提良’로 된다. ‘叱隱’은 ‘兒隱’에 대응되므로 앞에서처럼 ‘은’에 해당된다. 또 ‘提兒, 提良’은 ‘冬乙羅, 冬乙乃’에 대응되므로 ‘提’는 ‘ㄷ / ㅌ / ㅍ’에 해당된다. 그래서 (b)는 ‘勿(말:훈가)叱(즈:약음가)隱(ㄴ:약음가)提(티:의음가)兒(라:음가)’로 즉 ‘말즌티라’로 해독된다. (c)는 ‘兒(스:음가)’로 보면 ‘말스티라’로 해독된다. (a)의 ‘阿背’는 ‘提兒, 提良’에 대응이 되어 ‘아비’로 보아 (a)는 ‘물즌아비’로 해독된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代表形 ‘勿兒隱冬乙羅(물스틀라)’ 어형은 ‘취방울’로 대체되어 오늘날 漢語名 ‘馬兜鈴’과 공존한다. ‘취방울’은 ‘취(지소적 의미)十방울(鈴)’로 분석된다.

또 다른 해독을 시도해 보면, ‘叱’과 ‘兒’를 관형어 구실의 차자로 보고자 한다. 즉 ‘叱’은 ‘ㅅ’으로, ‘兒’는 ‘ㅇ’로 해독한다. 그리고 ‘隱’을 吏讀表記 ‘ㄴ’으로 보지 않고, 음가자 그대로 ‘은’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면 (a) - (e)는 각각 다음과 같이 형태 분석된다. ‘勿十叱十隱阿背’, ‘勿十叱十隱提兒’, ‘勿十兒十隱提良’, ‘勿十兒十冬乙羅’, ‘勿十兒十隱冬乙乃’로 각각 된다. 위에서 셋째 부분은 ‘은달랑’을 방증한다. 또 ‘叱’을 ‘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례는 ‘天叱月乙(瓜蓂), <향구상9>, 山叱水乃立(柴胡), <향구목1>, 山叱伊賜羅次(郁李), <향구상12>’ 등이 있다.

그리고 ‘兒’는 ‘ㅇ’로 음차하나 ‘ㅣ’ 음이 부가되어 ‘이’의 속격으로 처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解讀하면 (a)몹은아비 (b)몹은티라 (c)물이은티라 (d)물이돌라 (e)물이은돌라 (f)돌ㅇ돌라와 같다. 위에서 논의한 것들은 同一音相의 불완전한表記로도 볼 수 있다.

(16) 馬 勳

- a. 馬夫乙葦 (향월 12)
- b. 馬夫乙伐士叱 (향집 79)
- c. 馬夫乙葦 / 물불버섯 (촌구 72)
- d. 물불버섯 (동탕 737)
- e. [鄉名] 馬夫乙伐士叱(말불버섯). (향본 58)
- f. 말버섯(평안방언), 말불버섯

(a)는 ‘馬(물:훈독) 夫(부:음가) 乙(ㄷ:약음가) 葦(버섯:훈독)’ 즉 ‘물

불버섯'으로 해독된다. (b)는 '馬(물:훈독) 夫(부:음가) 乙(ㄷ:약음가) 伐(버:약음가,벌-버) 士(스:음가) 叱(스:약음가)' 즉 '물불버섯'으로 해독된다. 유창돈(1980:150)에서 '夫乙(불)'은 '불[卵]'을 뜻한다고 했다.

그리고 '伐士叱(버섯)'의 3音借字는 '茸(버섯)'의 1訓讀字로 교체되기도 했다. '말버섯'은 '말불버섯'에서 금기어 '불'을 피하여 표기하려했으나 '불'의 'ㄷ'이 殘在한 語形이라 볼 수 있다.

(17) 麥門冬 / 烏韭, 禹韭, 禹餘

- a. 冬乙沙伊 (향구중 33)
- b. 冬沙伊(향구目1)(향월2)
- c. 麥門冬 (향제 58)
- d. 薦 寄生草 겨스사리 (사성하 13)
- e. 冬兒沙里根 (촌가 21)
- f. 맥문동入불취 (구간 2-109)
- g. 겨우사리불취 (동탕 721)
- h. 겨아사리 冬靑子 (역어下 40)
- i. 겨우사리불취 (제중 8-2)
- j. [鄉名] 겨우사리뿌리. (향본 27)
- k. 겨실사리뿌기, 맥문뿌리이

漢語名 '麥門冬'은 이 약초의 잔뿌리에 달린 흑이 귀밀쌀 같으면서 그 모양이 구슬을 꿰맨 듯하기 때문에 그 塊莖의 모양을 따서 '맥문동'이라命名했다.¹⁶⁾ 또한 生長의 特性上 겨울에도 푸른잎을 그대로 달고 있는 '四季不凋常綠冬靑'이어서 '겨우사리'로 불린다. (a)는 '冬(겨울:훈독) 乙(ㄷ:약음가) 沙(사:음가) 伊(리:음가)' 즉 '겨울사리'로 해독된다. 또는 '沙伊'를 '새(草)'로 보아 '겨울새'로도 볼 수 있다. 여기서 '乙'은 '冬(겨울)'의 末音 'ㄷ'을 침기한 것이다. (b)는 '冬(겨울:훈독) 沙(사:음가) 伊(이:음가)' 즉 '겨울사이'로 해독된다. (c)는 漢語名을 표기하고 있어 당시 지식층을 대상으로 한 것 같다. (d)의 '겨스사리'에서 '겨스'는 '겨울'의 'ㄷ'이 '스' 앞에서 탈락된 것이다. 여기서 '沙里/사리'는 '沙伊'의 '사

16) 《東醫寶鑑》의 '葉青似莎草四季不凋根作連珠形似 麥類故名麥門冬' 참조.

十이'에서 hiatus 회피현상으로 중간에 'ㄹ'이 개입된 것이다. (e)는 '冬(겨울:훈독) 兒(술:음가, 말음첨기) 沙(사:음가) 里(리:음가) 根(불휘:훈독)' 즉 '겨울사리불휘'로 解讀된다. '兒'를 사용한 것은 古語 '술'을 取倅한 것이다.¹⁷⁾ 이것이 차자표기의 대표형이라 할 수 있고, '겨울(冬)十사리/살이(生)十불휘(根)'로 분석된다. (f)는 한어명 '맥문동'에 '불휘'가 부가될 때 'ㅅ'이 개재되어 복합어임을 인식하게 한다. (g)~(j)까지는 '겨으사리, 겨아사리, 겨우사리'로 모음의 변화만 보일 뿐이다. '麥門冬'에 대응되는 고유어는 '겨으사리불휘'형이다. 한글표기 향명은 '겨술사리불휘 > 거스사리불휘'에서 'ㄹ' 탈락을 경험하며, '겨스사리불휘 > 겨으사리사불휘'에서는 '△ > ∅'의 변화가 보이며, '겨우사리불휘 > 겨우사리뿌리'에서는 'ㅎ'탈락과 비원순화를 경험했다. 그리고 방언형 '겨실사리뿌기'에서 '겨실'은 '겨술'이 '겨슬'로 '△ > ㅅ'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다시 '스'가 '시'로 전설모음화된 것이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겨실'에서 'ㄹ'이 탈락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방언에 따라서는 'ㅅ'앞에서 'ㄹ'이 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18) 茅香花/ 茅香, 茅根, 蘭根, 地管, 兼杜

- a. 茅錐 (향구中 17)
- b. 茅根 置伊存根 (향구中 28)
- c. 茅香 白茅香 (향월 5)
- d. 뒷불휘 (구방下 27)
- e. 뒷불휘 (구간 3-94) (동탕 728) (산림 528)
- f. 흰취꽃 (동탕 732)
- g. 흰불휘 (제중 8-17) (방약 267)
- h. 흰씨겔이 (단방 14)
- i. [鄉名] 흰씨꽃. (향본 47), 茅根 [鄉名] 띠뿌리. (향본 41)
- j. 띠뿌리 (동사 325)
- k. 띠, 삐비, 빨기, 망우초

(a)는 '茅(뒷:훈독) 錐(쥬:음독, [集韻] 朱惟切)' 즉 '뒷쥬'로 解讀한

17) 방종현(1963:91) 참조.

다. ‘뒷’은 (b)의 ‘置伊存’에 근거한다. 이것은 ‘뒷’이 싹을 내밀어 뾰족한 모습을 송곳에 比喻한 名稱이고, <동탕 728>에서는 ‘茅鍼’이라하여 ‘茅’을 뾰족한 침에 비유하였다. (b)는 ‘置(두:약훈가) 伊(이:음가) 存(잇:훈가) 根(불휘:훈독)’ 즉 ‘뒷잇불휘’로 해독된다.

보통 ‘存(잇)’은 吏讀에서 有情物에 쓰이고 ‘有(잇)’은 無情物에 쓰이는데 여기서는 무정물에서 쓰인 ‘存(잇)’이 주목된다. ‘存’은 ‘有’와 訓이 같은데서 유추되어 혼용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이것은 향약명이 表音借表記의 영향을 받은 데 기인된다. 후대로 오면서 ‘뒷>뒷>쐤>쐤>뒷’로의 변천 양상을 보인다.

(19) 木賊 / 節服草, 節節草

- a. 省只草 (향구中 23) (향구目 3)
- b. 束草 (향월 3) (향집 79)
- c. 속새 (구방下 88) (동탕 736) (동사 331)
- d. 속새 (제중 8-10) (방약 282)
- e. [鄉名] 束草(속새). (향본 57)
- f. 뒷속새 筆管草 (식명 45)
- g. 속새풀

(a)의 ‘省’의 音價에 대해서는 ‘文獻備考’의 설명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方言呼省爲所或作蘇… 反又轉爲所乙” 여기서 ‘省’을 ‘所(蘇)’ 또는 ‘所乙’이라고 解讀했는데,¹⁸⁾ ‘所’보다는 ‘所乙’을 더 古形으로 보고자 한다. 동남 방언에 송편의 속을 ‘솔기’ 혹은 ‘솔’이라고 한다. 또 김밥 속에 넣는 것도 ‘김밥솔’이라고 한다. ‘木賊’은 줄기가 살대 같고 잎은 없고, 마디가 있으며 莖의 內部가 비어 있어 筆筒狀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 것에 이 식물의 語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a)는 ‘省(솔:음가, 俗音借) 只(기:음가) 草(새:훈독)’ 즉 ‘솔기새’로 解讀된다. 후대에 오면서 ‘솔기새’와 ‘속새’가 공존하다가 ‘속새’로 바뀐 것이라 여겨진다. (b)는 ‘束(속:음가) 草(새:훈독)’ 즉 ‘속새’로 解讀되어 (a)의 2借字 ‘省只’가 1借字 ‘束’ 즉 ‘省只草’束草’로 대체되는 改新이 주목된다. 漢語名 ‘木賊’에

18) 남풍현 (1981:71) 참조.

대응되는 고유어는 ‘술기새’ 혹은 ‘속새’이며 지금은 ‘속새풀’이라고 한다. (f)의 ‘띠속새’는 ‘속새’가 ‘띠풀’과 비슷하여 ‘띠속새’라 命名된 것이다. (g)는 ‘속새’에 ‘풀’이 부가되어 복합어를 이루고 있다. 古形에서는 ‘새’와 ‘풀’은 같은 의미로 쓰였으나 지금은 그 의미가 다르다. ‘새’는 ‘날카로운 풀잎’을 의미하고, 풀은 草本을 가리킨다.

(20) 半夏 / 守田, 羊下, 地文, 示姑, 和姑

- a. 雉矣毛老邑 (향구上 5)
- b. 雉矣毛立 (향구目 2)
- c. 半夏 (향제 14)
- d. 雉毛邑 (향월 5)
- e. 雉毛奴邑 (향집 79-29), 雉毛奴邑 / 췌의모름 (촌구 54)
- f. 氣無老 (연문 3)
- g. 외모름불취 (구간 1-47)
- h. 괴물웃 (경험 1)
- i. 외물웃 (동탕 733) (제증 8-4)
- j. 외물웃 (산림 523) (방약 294)
- k. 괴무릇 (물보 10)
- l. 외무릇 (물명 98)
- m. [鄉名] 雉毛奴邑 (괴무릇). 메누리목쟁이밀. (향본 48)
- n. 끼무릇, 메누리목쟁이밀, 췌의무릇, 살마 (제주), 땅구슬, 목까끄래이, 개토란

(a)는 ‘雉(외:훈독)矣(의:음가, ‘외’의 말음첨기)毛(모:음가)老(로:음가)邑(ㅂ:약음가)’ 즉 ‘외모름’으로 해독된다. 또는 ‘雉矣(외:의훈독)’으로 볼 수도 있다. (b)는 ‘외모름’으로 解讀되고, (d)는 ‘외모음’으로 해독되는데, 여기서는 ‘ㄹ’이 반영되지 않았다. (e)는 ‘외모름’, (f)는 ‘기무로’로 각각 해독된다. (d)에서는 ‘奴/老’가 생략되었고, (f)에서는 ‘邑’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d)와 (f)는 불완전한 표기라고 볼 수 있다. (g)는 차자표기의 해독형에 불취가 부가된 것이다. (h)에서 (k)까지는 ‘괴물웃>괴무릇’으로 ‘->ㅍ’와 ‘ㄹ’의 연철을 찾을 수 있다. (i) (j)는 ‘ㅍ’와 ‘ㄱ’의 차이를 보이고, (l)(m)은 ‘외>췌’로 원순모음화를 보여 준다. (m)의 ‘메누리목쟁이밀’은 ‘메누리+목쟁이+밀’으로 분석되며,

이것은 시어머니가 알미운 며느리에게 半夏를 목에 넣게 하여 까끄럽게 했다는 속설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 약초는 그 특성에 따라 異名과 방언형이 다양하다. 구슬같은 것이 땅속에 있다고 해서 ‘땅구슬’이라 命名되었고, 이 약재를 목안에 넣으면 까끄럽기 때문에 ‘목까끄래기’라고 한다. 지금은 외래중앙형으로는 漢語名 ‘半夏’로 통용되고, 전래민간형으로는 ‘목까끄래이’라고 한다.

(21) 白頭翁¹⁹⁾ / 老姑草, 野丈人, 胡王使者, 奈香草

- a. 注之花 (향월 2) (향집 79)
- b. 注之花 / 주짓꽃 (촌구 38)
- c. 주지꽃 又云할미십가빗불취 (동탕 735)
- d. 주지꽃 (경험 3)
- e. 주짓꽃 할미십가빗불취 (연문 44)
- f. 할미꽃 (물보 10)
- g. [鄉名] 注之花(주리(지?)꽃). 할미씨까비. 할미꽃. 노고초. (향본 54)
- h. 주지꽃, 할미씨까비, 할미꽃, 노고초

(a)는 ‘注(주:음가), 之(지:음가), 花(꽃:훈독)’ 즉 ‘주지꽃’으로 解讀되며, 여기서 ‘주지’는 이 꽃이 진 후의 모습이 ‘주지탈’이나 사자의 머리털을 연상할 수 있기에 붙여진 것이라 볼 수 있다. (b)(c)에서는 ‘꽃’이 ‘씨’으로 경음화된 형태를 보여준다. ‘할미십가빗불취’는 ‘쭈굴쭈굴하고 볼품없는 뿌리’를 신체의 일부에 비유한 命名인 것으로 보인다.

후대에 오면서 ‘할미씨’으로 語形이 改新되는데, 이것은 漢語名 ‘白頭翁’에서도 의미하는 바, 이 약초는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이 맺힌 모양이 흡사 솜털몽치 같기도 하고, 늙은이의 흰 머리카락이 들성들성 나 있는 것과 흡사하다. 그래서 翻譯借用語로 ‘할미씨’이라 命名한 것이다.

19) 할머니가 큰 손녀의 팔시에 못이겨 가난하지만 착한 작은 손녀를 찾아가다가 산마루에서 허 기에 지쳐서 쓰러져 숨졌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무덤을 만들었더니 아름모를 풀이 자라나 흰머리의 할머니같이 되어서, 이 풀을 백두옹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야화 28> 참조.

(22) 白藪 / 白藥子

- a. 犬刀叱草 (향구중 20)
- b. 犬伊刀叱草 (향구中 16) (향구目 2)
- c. 白藪 (향제 45)
- d. 加海吐 (향월 8)
- e. 犬矣吐邑 / 가히툼 (촌구 64)
- f. 가희툼 (동탕 734) (산림 210)
- g. 가히툼 (방약 300)
- h. [鄉名] 가해툼. (향본 50)
- i. 가위툼 (식명 23) (동사 443)

이 약초는 가지 끝에 다섯 개의 작은 잎이 췌기 모양과 같고, 잎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이다. 이것이 鄉藥名의 命名의 근거가 될 수 있다. (a)는 ‘犬(가히:훈가) 刀(도:음가) 叱(뺱:약음가) 草(플:훈독)’ 즉 ‘가히똥플’로 해독된다. (b)의 ‘伊’는 ‘犬:가히’의 발음을 표기한 것이다. ‘犬:가히’의 근거는 <계림>의 ‘犬曰家’ 豨와 (d)의 ‘加海吐’의 ‘加海’에서 ‘ㅎ’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후대에 오면 ‘ㅎ’음이 탈락된다. (e)는 ‘犬(가히:훈독) 矣(의:음가) 吐(토:음가) 邑(밀:약음가)’ 즉 ‘가희툼’으로 해독된다. 이것은 ‘가히+이+툼’이 ‘가히툼’으로 실현된 것인데 이것은 ‘아비+의’가 ‘아비’로 되는 현상과 케를 같이 한다. ‘가히툼’은 그뒤에 모음변화로 ‘가희툼, 가히툼, 가해툼’ 등으로 바뀐다. (b)와 (e)의 ‘刀叱/똥’과 ‘吐邑/툼’의 대응에서 ‘똥>툼’의 변화가 주목된다. 즉 ‘가히똥플’은 ‘가히+똥+ㅅ+플’로 분석되는데 ‘똥’의 ‘ㅅ’이 ‘ㅅ’ 앞에서 탈락되어 ‘똥’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집(家)+ㅅ→깃’이 되는 것과 같다.

後代로 내려오면서 ‘犬’의 훈차음 ‘가히’가 ‘가위’형으로 바뀐다. 그것은 이 약초의 잎 모양이 가위툼날 혹은 톱풀(耨, 神草)같이 생긴 데서 緣由한 것 같다. 가위의 어형 변천은 ‘割子蓋>ㅁ새>가위>가위’로 된다.²⁰⁾ 남풍현(1981:78)에서 ‘똥/툼’을 ‘爪’의 의미로 봐서 이 풀의 모양을 개발툼 모양의 풀로 보고 있으며, 이은규(1993:82)에서는 ‘犬’의 의미가 ‘가위’形으로 語形이 交替되었다고 보고 있어, 語源을 역시 ‘犬’에 두고 있다.

20) 남풍우 (1960:123) 참조.

(23) 白附子 / 烏頭, 烏喙, 草烏, 側子, 回回蒜

- a. 白波串 (향월 7) (향집 79)
- b. 白波串 / 바곳불취 (춘구 122)
- c. 흰바곳불취 (구간 2-6)
- d. 흰바곳 (동탕 736)
- e. [鄉名] 白波串(흰바곳). (향본 56)
- f. 노랑돌쩌귀, 돌쩌귀물, 늦젓가락나물, 노젓나물, 늦재가치나물, 젓가락나물, 자래초

(a)는 ‘白(흰:훈독) 波(바:음가) 串(곶:음가)’ 즉 ‘흰바곳’으로 解讀된다. 여기서 ‘波’음은 <훈몽상2>에서 ‘파’이나 ‘바’의 유기음화는 후대에 일어나기에 ‘바’음으로 해독한다. ‘串’은 <우마>의 ‘所乙串叱’에서 ‘곶’으로 되고, 地名에서는 ‘고지’로 되기도 한다. 노랑돌쩌귀의 母根과 子根을 ‘白附子’라 하고, ‘돌쩌귀’ 혹은 ‘늦젓가락나물’을 ‘草烏頭’라 한다.

‘흰바곳’은 후대로 오면서 ‘흰바곳>흰바곳>흰바곳>흰바곳’으로 변천했고, ‘늦재가락나물’은 ‘르’이 개입되어 ‘늦질가락나물’이 되고, 또 ‘가락’이 탈락되어 ‘늦질나물>노젓나물’로 바뀌었다. 이 나물은 잎자루가 길다랗게 늦재가락처럼 보이는 데서 그 命名의 緣由를 찾을 수 있다.²¹⁾

(24) 白芷 / 芳香, 白菖, 澤芬

- a. 仇里竹根 (향집 79) (향월 2)
- b. 仇里大根 (춘가)
- c. 白芷 藥草 구릿대 (사성)
- d. 킷지 (언두 66)
- e. 구릿대불취 (동탕 728)
- f. [鄉名] 仇里竹根(구리대)뿌리. (향본40)
- g. 구릿대

이 약초는 미나리과의 다년생 草本으로 특이한 芳香이 있으며 맛은 아열하며 두통에 탁효하다. (a)(b)에서 訓假字의 ‘竹’과 音假字의 ‘大’는 서

21) 孫炳胎(1992:16) 참조.

로 같은 것으로 사용된 것이다. ‘竹曰帶 <계림>’와 ‘대독 竹 <훈몽上8>’에서 ‘竹’을 ‘大’라고 한 것은 고려때부터 지금까지 같다. (a)는 ‘仇(구:음가) 里(리:음가) 竹(대:훈가) 根(불휘:훈독)’ 즉 ‘구리대불휘’로 解讀된다. 이 식물은 줄기가 구렁이 무늬처럼 알록달록한데서 그 命名의 緣由가 있다고 본다. ‘구리대뿌리’는 ‘구리(구렁이)+때(대 즉 줄기)+뿌리’로 분석된다.

(25) 百合 / 摩羅, 強瞿, 中蓬花, 卷丹, 虎皮百合, 紅百合 (야화 102)

- a. 百合根 犬伊那里根 (향구中 18)
- b. 犬乃里花 (향구中 2)
- c. 犬伊日 (향월 7)
- d. 介伊日伊 (향집 79)
- e. 犬伊日根 / 개나리불휘 (춘구 11)
- f. 개나리불휘 (구간 2-111)
- g. 개나리불휘 (동탕 728)
- h. [鄉名] 介伊日伊(당개나리)뿌리·(백합꽃)뿌리. (향본39)
- i. 산나리, 참나리, 호랑나리

百合은 그 球根이 많은 鱗片으로 집합되어 있어 ‘百合’으로 命名되었다고 본다. (a)는 ‘犬(가히: 훈독) 伊(이: 음가, ‘히’의 말음첨기) 那(나: 음가) 里(리:음가) 根(불휘)’ 즉 ‘가히나리불휘’로 해독된다. ‘개(犬)’의 변천은 ‘犬曰家穉<계림>, 가히견(犬)<훈몽上19>’에서 보이듯이 ‘가히>가이>개’ 또는 ‘가히>개’와 같다. (b)는 ‘가히나리꽃’, (c)는 ‘가히날’로 解讀되고, (d)는 ‘介(개:음가) 伊(ㅣ:약음가) 日(날:훈가) 伊(이:음가)’ 즉 ‘개날이’로 解讀된다. (e)의 <춘가>는 당시 시골의 방언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犬(가히:훈독) 伊(ㅣ:약음가 ‘히’의 말음첨기) 日(날:훈가)根(불휘:훈독)’ 즉 ‘가히날불휘’로 해독되고, ‘개나리불휘’로 실현되었다. ‘日伊, 乃里, 那里’의 ‘伊, 里’는 ‘나리’의 ‘ㅣ’末음을 添記한 것이다. 이 藥名은 類概念語인 ‘日(那里, 乃里)’를 動物(犬)名으로 수식하는 구조로서 種概念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유개념어는 식용 가치가 높은 것이고, 새로 造語된 種概念語 ‘개나리’는 식용 가치가 없거나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야생성이란 의미 자질을 내포하고 있고, 표기면에서 ‘那里/乃里’가 ‘日’로 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介伊’는 15세기초에 ‘개’로 발음되어 13세기의 ‘犬伊/가히’와 대응된다. 즉 ‘가히’가 ‘介’로 축약된 것이다.

후대 어형과 대응시켜 볼 때 ‘犬伊那里根’이 基本形이다. ‘百合/개나리’와 ‘連翹花/개나리’는 同音異意語이다. 前者는 첫 음절을 長音으로 발음하고, 後者는 둘째 음절에 액센트를 둔다.²²⁾ ‘나리’앞에 ‘산-, 참-, 호랑-’ 등의 앞가지의 하위구별표지가 붙어 장소, 가치성, 모양 등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당개나리뿌리’는 ‘당(唐, 외래의)+개(야생)+나리+뿌리’로 분석된다.

(26) 蛇床子 / 蛇粟, 蛇米, 秦棘, 思益, 蠅毒

- a. 蛇床菜子 (향구中 21)
- b. 蛇音置良只 (향구目 2)
- c. 蛇都羅叱 首書又蛇音置良只 (향월 4) (향집 78-26)
- d. 蛇道乙羅叱/빅암돌랏 (촌구 47)
- e. 사상자 (언태 2)
- f. 빅암도랏씨 (동탕 725)
- g. 쥐손풀 (광제 33)
- h. 사상조년출 (단방 109)
- i. 蛇都羅叱(배암도랏씨) (향본 34)

(a)는 ‘蛇(사:음독) 床(상:음독) 菜(느물:훈독) 子(씨:훈독)’ 즉 ‘사상느물씨’로 해독되고 (b)는 ‘蛇(빅암:훈독) 音(口:약음가, ‘빅암’의 末音添記) 置(두:약훈가) 良(라:약음자) 只(기:음가)’ 즉 ‘빅암두라기’로 解讀된다. ‘蛇’는 ‘빅암, 빅암’으로 해독된다. (c)는 ‘蛇(빅암:훈독) 都(도:음가) 羅(라:음가) 叱(스:약음가, 슬→스)’ 즉 ‘빅암도랏’으로 해독되어 모음조화를 고려한 표기이고, ‘良’이 ‘羅’에 대응되어 ‘良’이 ‘羅’의 표기임을 입증해 준다. 형태 변천 양상을 보면 ‘置(두)>都/道’로의 모음 변화와 ‘-良只’에서 ‘-羅叱’로의 語末 形態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道乙羅叱(-돌랏)’은 ‘-置良只(-두러기)’의 語源이 喪失되면서 民間語

22) 김주원(1995), ‘중세국어 성조와 경상도 방언 성조의 비교 연구’ 참조.

源에 의하여 그와 類似한 語形으로 바뀐 것이다. 蛇床子の 鄉名 ‘뱀도랏’과 漢語名은 共存하여 쓰였다.²³⁾ 蛇床과 桔梗은 외형상은 유사성이 별로 없지만 그 씨앗이 서로 類似하여 그 命名의 緣由가 있는 것이다. ‘쥐손풀’은 이 약초의 꽃 모양이 우산을 뒤집어 놓은 듯한 쥐발의 모양을 하고 있는 데에 그 命名의 緣由가 있다. ‘뱀암두라지’는 후대로 오면서 ‘도랏’에서 ‘돌랏’으로 ‘ㄹ’의 兩音節化가 나타난다.

(27) 山慈姑 / 老鴉, 金燈, 團慈菰

- a. 馬無乙串 (향집 79)
- b. 물물웃 (구간 6-19)
- c. 가치무릇 (동탕 737)
- d. 물무릇 (물명 3-63)
- e. [鄉名] 馬無乙串 말무릇·가치무릇. (향본 57)
- f. 금동롱, 물곶, 물구지 (평안)

(a)는 ‘馬(물:훈독) 無(무:음가) 乙(ㄹ:약음가) 串(곶:음가)’ 즉 ‘물물곶’으로 해독된다. 이것은 후대로 오면서 ‘물물곶>물물웃>(물무릇)>물무릇>말무릇’으로 변천하여 ‘ㄹ’ 아래에서 ‘ㄱ’ 탈락 현상을 보인다. ‘ㄱ’ 탈락은 ‘솔곶(羊蹄)>솔웃>솔웃’과 ㄱ을 같이 한다. 그러나 평안방언 ‘물곶, 물구지’에서는 ‘ㄱ’이 남아 있다. 접두어 ‘물-’ 대신 ‘가치-’ 형으로 改新되어 ‘가치무릇>까치무릇’으로 되기도 한다.

(28) 酸漿 / 燈籠草, 王母珠

- a. 叱科阿里 (향월 9) (향집 79) (촌가 50)

23) 중국 양주 지방의 傳説로 어느 마을에 피부병이 돌아 藥이란 藥은 다 발라보아도 효험이 없었다. 醫員은 뱀섬에 가서 깃털처럼 생겼고 꽃은 우산처럼 생긴 약초의 삶은 물에 목욕하면 피부병이 낫는다고 하기에, 한 청년이 용기를 내어 뱀이 싫어하는 옹황주를 준비했다. 약초위에 독사 한 마리가 파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옹황주를 뿌려 그 약초를 캐고 씨를 따서 가져와 삶아 그 물로 목욕을 하니 피부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청년은 그 후 그 약을 기억하기 위해 이 약초를 처음 발견했을 때 독사가 약초위에 파리를 틀고 앉아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즉 藥草가 독사의 침상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뱀의 침상’ 이란 뜻으로 藥草 이름을 ‘蛇床’이라 하고 그 씨를 ‘蛇床子’ 俗名으로 ‘뱀도랏씨’라 했다. 선용(1994:17-25) 참조.

- b. 찻리 (구방上 63)
- c. 찻와리여름 (동탕 729)
- d. 찻아리 (역어下 40)
- e. 우아리나무꾼이 (단방 23), 우와리 (단방 44)
- f. [鄉名] 叱科阿里(짜리). (향본 41)

(a)는 ‘叱(ㅅ:약음가) 科(과:음가) 阿(아:음가) 里(리:음가)’ 즉 ‘찻아리’로 解讀된다.²⁴⁾ 이것은 ‘叱科阿(의성어 ‘찻’)+里(접미어)’로 분석된다. 酸漿의 익은 열매를 따서 씨를 제거하고 입안에 넣어 이로 누르면 ‘짜아짜아’ 소리가 난다. 여기서 取音한 것이, 이 植物에 대한 鄉藥名の 語源 근거가 된다. 語頭的 ‘ㅅ’ 音 表記에 ‘叱’이 사용된 예로는 ‘馬叱同仇 阿里/말뚝구아리’의 ‘叱’과 吏讀 ‘-叱分/쑤’의 ‘叱’ 등이 있다. “찻아리 > 짜리”에서 ‘아’탈락이 있고, “짜아리 > 쑤와리”에서는 ‘w’가 첨가되었으며, ‘짜아리 > 쏘아리 > 우아리’에서는 ‘아’ 탈락이 있고, ‘우아리 > 우와리’에서의 ‘w’ 添加는 ‘보아 > 보와’에서의 것과 軌를 같이 한다.

(29) 商陸 / 昌陸, 當陸, 夜呼, 中庸, 白昌

- a. 者里宮根 (향구中 11) (향구下 4)
- b. 章柳根 (향구目 2)
- c. 這里居 朱書 文章柳 (향월 8)
- d. 這里君 (향집 79)
- e. 자리군 章陸也 (사성下 7)
- f. 者里芎 (촌가)
- g. 자리공불취 (동탕 734) (제중 8-8) (방약 290)
- h. 자리공불회 (산림 515)
- i. 자리광이 (물보 10)
- j. [鄉名] 這里君(자리공)뿌리. (향본 52)
- k. 자리공, 자리롱, 수리치, 부시깃.

(a)(b)(c)는 모두 漢語名 商陸과 그 異名 ‘將陸, 章柳根, 當陸, 昌陸’ 등에서 訛傳된 것이라 짐작된다. 즉 ‘章柳根’의 音讀字와 ‘這里君’의 音假

24) ‘叱’의 音價에 대해서는 ‘葛根’항을 참조할 것.

字는 매우 類似한 音으로 되었다. 또한 <본강 654>에서도 ‘…訛爲商陸又訛爲當陸此音訛爲章柳’가 있어 그 뒷받침이 되고 있다. (a)는 ‘者(자:음가) 里(리:음가) 窟(궁:음가, 궁-공)’ 즉 ‘자리궁’으로 해독된다. (c)는 ‘這(자:음가, 저-자 <이두사전 66>) 里(리:음가) 居(거:음가)’ 즉 ‘자리거’로 해독된다. 여기서 ‘居’는 ‘君’의 誤字일 것이다. (d)는 ‘자리군’으로 해독된다. 후대에 오면서 ‘불휘’, ‘이’ 등이 附加되어 각각 ‘자리공불휘, 자리광이’가 되고, 또 ‘공’의 激音化로 ‘자리공’으로 변했다.

(30) 菥蓂子 / 葦薜, 丁薜, 葦菥, 大薜, 馬辛, 大薺, 狗薺

- a. 豆衣乃耳(향구中 26) (향구下 38)
- b. 豆音矣薺(향구目 2)
- c. 豆音矣羅耳(향월 8) (향집 79)
- d. 豆乙音羅伊/두릅의나이(촌구 37)
- e. 둔두루미나이 廿(구간 1-7)
- f. 두르미나이씨, 굴근나이씨 蕺子(동탕 723) (제증 8-8)
- g. 두루미나이씨 葦薜子(산림 1-197)
- h. 한시나이 葦薜(물명 85)
- i. 두르미나이씨(방약 287)
- j. 두루미나이가 葦(자석 319)
- k. 솟따지, 덩녀즈(식취 175)
- l. [鄉名] 한새냉이. (굶은나이가)씨. (향본 30)
- m. 葦薜 [鄉名] 豆音矣羅耳(두루미나이가)씨. 꽃다지씨. (향본 49)
- n. 황새냉이, 황새나냉이, 꽃따지

이 약초는 냉이와 비슷한데 잎이 크고 가늘다. (a)는 ‘豆(두:음가) 衣(의:음가) 乃(나:음가, 내-나) 耳(시:음가)’ 즉 ‘두의나시’로 解讀된다. (b)는 ‘豆(두:음가) 音(음:음가) 矣(의:음가) 薺(나시:훈독)’ 즉 ‘두음의 나시’로 解讀되고, (c)는 ‘두음의 나시’, (d)는 ‘두릅나시’로 해독된다. ‘羅’는 ‘라’로 여기서는 ‘나’에 代用된다. 특히 (d)에서는 ‘ㄹ’음이 나타남이 주목된다. 이것은 ‘金非音(馬齒莧)’이 ‘金非陸音, 金非麩’으로 표기되는 것과 畵를 같이 한다. ‘豆+衣, 豆+音’은 hiatus 회피 현상으로 ‘ㄹ’의 개입이 있었다. (a)-(d)는 모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전반부는 ‘두루

미'에 해당되는 '豆靑矣, 豆衣, 豆乙靑'이 있으며, 후반부는 '냉이'에 해당되는 '薺, 乃耳, 羅耳'가 있다. 이 식물은 一名 '大薺'라고 한다. '大'를 '漢, 汗, 干, 翰' 등으로 表記하고 있는데, 비록 글자는 달라도 뜻은 통한다. '漢, 汗'은 풀을 취한 것이고, '洪, 鴻'은 그 訓을 취한 것이다. '한시, 한새, 황새'의 어형은 '大'의 靑, 訓과 관련이 있다.²⁵⁾ 지금도 민간에서는 '한새 냉이'를 '황새냉이' 혹은 '황새나생이'라고 한다. 약용 식물은 그것이 귀하여 구하기 어려우면 흔히 약효가 비슷한 것과 바뀌어 쓰인다. 蕪蓂子(한새냉이)와 葦薺(두루미냉이, 꽃다지)이 그 한 예이다. 두 풀은 외형상 비슷하나 한새냉이잎이 꽃다지잎보다 둥근 편이다. 아물든 이 두 풀은 보통의 냉이보다 크거나 맛이 없어서 주로 약용으로 사용된다.

한글표기 '두루미'는 이 새가 울 때 '뚜름뚜름'하며 운다고 하여 '두름이, 두루미'로 命名되었다. 葦薺를 '두루미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물이 맛이 없고 씨가 긴 뿔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키가 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흔히 식물명 앞에 동물명을 부가하여 식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야생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후대에 오면 '꽃다지'로도 불린다. 또 '두루미나이의'의 '나이'는 '나시>나이>냉이>냉이'의 음운 변화를 겪은 것을 보여 준다. 이 약초의 전래 민간형은 '황새냉이, 황새나생이, 두루미냉이'이고 외래 중앙형은 '정력자, 석명자'로 불린다. '꽃다지'는 現代語로 한꺼번에 노란꽃이 많이 피어 있는 데서 命名된 것이다. '두루미냉이'의 씨는 긴 뿔 모양이고 크며, 보통 냉이씨는 세모꼴이다.

(31) 細辛 / 小辛, 馬蹄香

- a. 洗心 (향구目 1) (향구上 6)
- b. 細心 (향월 6)
- c. 세신入불취 (구간 1-29)
- d. 세신 (분문 12)
- e. 세심 (산림 1-243)
- f. 족두리풀 杜衡 (산림 1-200)
- g. 족도리풀불취 (방약 267)

25) 황윤석 原著 강헌규 譯 (1995:26) 참조.

- h. 조리풀 (식취 128)
- i. [鄉名] 죽도리풀. 만병초. (향본 29)
- j. 쪽도리풀, 조리풀, 시금치, 늦동애뿌리

(a)(b)(e)는 ‘細辛’에 대해 그 取晉이 同一하다. (a)는 ‘洗(세:음가)心(심:훈가)’ 즉 ‘세심’으로 해독되고, (b)는 ‘細心’과 같은 의미로 보고 ‘細(세:음독)心(심:훈가)’ 즉 ‘세심’으로 해독된다. ‘細心’의 晉 ‘세심’은 漢語名 ‘세신(細辛)’의 둘째 音節의 末音 ‘ㄴ’이 ‘ㄹ’으로 바뀐, 音의 訛傳으로 설명이 가능하나, 자음동화의 결과로 설명하자면 ‘불휘’가 接尾되는 경우이다. ‘세신+불휘>세심불휘’와 같이 ‘ㅂ’앞에서 ‘ㄴ’음이 ‘ㄹ’음으로 바뀐 다음, ‘불휘’가 떨어진 형태가 표기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細’는 ‘실같이 뿌리가 가늘다’는 데 語源이 있고, ‘心(심)’은 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方言의 ‘티눈의 심’에서 ‘심’은 뿌리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를 傍證한다. 이 풀은 뿌리가 가마솥을 닮은 술처럼 뻣뻣하고 몹시 가늘며 맛이 맵고 시기때문에 ‘細辛’ 혹은 ‘小辛’이라 한다고 했다.²⁶⁾ 또한 그 꽃이 죽도리 모양 같다고 해서 민간에서는 ‘죽도리풀’이라고 하고, 혹은 조리 모양과 같기에 ‘조리풀’이라고도 부르며, 온갖 병에 두루 쓰이기에 ‘만병초’라고 하며, 시다고 해서 ‘시금치’라고도 한다.²⁷⁾ 이 藥草의 命名의 緣由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뿌리의 모양과 맛의 특징을 대상으로 한 ‘세신/세심, 시금치’가 있고, 둘째는 꽃의 모양을 대상으로 한 ‘죽도리풀, 조리풀, 늦동애’ 등이 그것이다.

(32) 升麻 / 周麻

- a. 雄骨木 (향구上 10)
- b. 雄鳥老草 (향구目 1)
- c. 知骨木 又 雄鳥老草 (향월 6)
- d. 升摩 (향집 78)
- e. 雄脚 / 쇠장가리 (촌구 22)

26) 其根細而其味極辛故名之曰細辛<本綱1-25> 참조.

27) 방중현 (1963:92) 참조.

- f. 승맛불휘 (구간 1-26)
- g. 쇠당가리 (분문 24)
- h. 승마 (언두下 51)
- i. 쇠덜가랏불휘 (동탕 722)
- j. 쇠절가랏불휘 (산림 529)
- k. 쇠덜가랏불휘 (방약 265)
- l. [鄉名] 끼덜가리뿌리 (향본 28)
- n. 황새승마, 끼덜가리, 승마 (식명 561)

(a)는 ‘雉(쇠:훈독) 骨(골:음독) 木(나모:훈독)’ 즉 ‘쇠골나모’로 해독된다. 또는 (c)의 ‘知骨木’ 표기를 重視해 ‘雉骨’을 音讀하여 ‘雉(지:음독) 骨(골:음독) 木(나모:훈독)’ 즉 ‘지골나모’라고도 해독된다. (b)는 ‘雉(쇠:훈독) 鳥(도:음독) 老(로:음가) 草(플:훈독)’ 즉 ‘쇠도로플’로 해독된다. (e)는 ‘雉(쇠당/쇠장:훈독) 脚(가리:훈독)’ 즉 ‘쇠당가리>쇠장가리’로 해독된다. 방중현(1963:91)에서 ‘雉’를 ‘쇠’로 읽은 반면에, 남풍현(1981:96)에서는 ‘雉’를 ‘씨’로 해독했다. 그리고 이은규(1993:106)에서는 用字例에 따라 ‘雉’를 ‘씨’로 해독했다. 다른 해석으로는 ‘쇠(雉)+당가리(腸脚)’ 즉 ‘쇠+장가리(장다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약초 줄기의 특징이 꿩의 다리에 비유되므로 ‘장가리(腸脚)’로 형태 분석한 것이다. ‘脚’은 혼차하여 ‘가리’를 표기한 것인데, 후대의 한글표기 ‘가리’와 같은 계통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다리[脚]의 방언형 ‘가랭이, 가리, 가리이, 갈기’와 꼬챙이의 방언형 ‘꼬장가리, 씨장가리, 꼬장개이’의 ‘-가리, -개이’와 대응이 된다. (i)의 ‘쇠 가랏불휘’는 ‘쇠(雉)+ (膝)+가리(脚)+스+불휘’로 분석되고, (j)의 ‘쇠절가랏불휘’는 ‘쇠(雉)+절(膝)+가라(脚)+스+불휘’로 분석된다. 여기서 ‘가라’는 ‘다리(脚)’의 방언형 ‘가라지’가 있어서 傍證된다. (k)의 ‘쇠덜가리’는 ‘쇠(雉)+덜(절:무릎)+가리(脚)’로 분석된다. 이 本草植物의 鄉藥名은 그 줄기가 꿩의 다리 같다는 데서 命名된 듯하고, 漢語名 升麻는 잎이 麻와 같고, 그 대가 위로 곧게 上昇하는 데에 이 藥草의 語源의 緣由를 찾을 수 있다.²⁸⁾

28) <본강>의 升麻항에 ‘其葉似麻其性上昇故名’로 되어 있고, <동탕2-41>의 升麻항에는 ‘其葉如麻故名爲升麻 用細則如鷄骨’로 되어 있다. 升麻根을 가공한 것이 ‘鷄骨(雉骨)’과 같다고 했다.

(33) 耳實(蒼耳子) / 羊負來

- a. 升古_ㄴ伊 (향구上 3)
- b. 刀古休伊 (향구目 1)
- c. 升古休伊 (향월 4)
- d. 吐叱古_ㄴ里 / 뚝고마리 (촌구 90)
- e. 뚝고마리 (구간 2-94)
- f. 뚝고마리 穡, 俗呼蒼耳 (훈몽상 8)
- g. 도스고마리 (역어下 40)
- h. 돌고마리 (동탕 726)
- i. 독고말이 (산림 131), 돌고말이 (산림 48) 돌고아리 (산림 48)
- j. 뚝고므이 (광제 30)
- k. 독쇼말이 (단방 70)
- l. 도쇼마리, 장의즈, 청이즈 (식회 372)
- m. [鄉名] 독고마리. (향본 36)
- n. 도꼬마리, 뚝꼬리, 창이자 (식명 59)
- o. 도꾸말대, 독꾸말대, 도꾸마리, 독말풀

(a)는 '升(되:음가) 古(고:음가, 혹은 약음가 'ㄱ') ㄴ(마:음가, 固有 漢字音) 伊(이:음가)' 즉 '되고마이'로 해독된다. <계림>에 '升曰刀'로 되어 있다.²⁹⁾ (b)는 '刀(도:음가) 古(고:) 休(말:훈가) 伊(이:음가)' 즉 '도고말이'로 해독된다. '刀古休伊'의 '刀'는 '도'로 '되고말이'의 '되'에서 'ㅣ'가 탈락된 것이다. (c)는 '升(되:훈가) 古(고:음가) 休(말:훈가) 伊(이:음가)' 즉 '되고말이'로 해독된다. 이것은 (a)의 升古와 (b)의 休伊를 조합한 것이다. (d)는 '吐(도:음가) 叱(스:약음가) 古(고:음가) (마:음가) 里(리:음가)' 즉 '뚝고마리'로 해독된다. '吐叱古_ㄴ里'의 '吐'는 中古音으로는 '도'이나 여기서는 先代形의 '升, 刀'에 대응되어 '도'로 代用되어 音借로 볼 수 있다. 이것은 '吏讀, 吏頭, 吏吐'의 예에서 방증된다. (e)는 (c)의 것을 이어받아 '스'를 부가한 것이다. (f)는 (b)와 같은 계통이다. (f)의 '스'이 (h)의 'ㄷ'으로 된 것은 8중성 체계에서 7중성 체계로 바뀐 데에 기인된다. (i)는 (h)의 'ㄷ'이 'ㄱ'앞에서 동화되어 'ㄱ'으로 된 것이

29) 홍순택(1964:68)에서 '升'의 訓 '되'의 構成을 '도+이(점미사)'로 <계림유사>의 '升曰刀'는 아직 '-이' 接尾辭가 붙기 이전의 語形으로 파악했다.

다. (j)는 ‘ㄹ’이 탈락되고 ‘ㅏ’가 ‘ㅡ’로 바뀌었다. (k)(l)(n)은 경음이 반영되었으나, (m)은 경음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先代의 차차표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의 ‘도꾸마리’는 (n)의 ‘도꼬마리’에서 모음조화가 파괴된 것이다. 蒼耳子를 달인 물을 복용하면 귀와 눈이 밝아지고, 개한테 물린 데와 모기한테 물린 데의 독까지 풀어낸다고 한다. 이 藥草의 씨는 양털에 붙어서 옮겨지므로 ‘羊負來’라 한다. 漢字語 蒼耳의 代表像은 ‘귀를 밝게 한다’에 있고, 鄉藥 藥材名 ‘독고말이’의 代表像은 ‘독을 풀어 낸다’에 있다고 본다. ‘象耳實’의 ‘耳’는 ‘象’의 ‘뿔고마리’ 끝음절 말음 ‘ㅣ’를 표기한 것이다.³⁰⁾

蒼耳의 異名에는 蒼耳, 象耳, 猪耳, 卷耳, 爵耳, 耳璫草, 進賢菜, 野茄 등이 있다. ‘독고말이’의 語源을 漢語의 異名 ‘猪耳’와 ‘卷耳’의 合成語로 볼 수 있다. ‘猪耳+卷耳>猪耳卷耳>*돌귀말이>뿔고말이>독고말이>도꼬마리’로 되었다. 이 藥草의 잎에 기생벌레가 붙은 것은 잎이 말리어 그 모양이 흡사 돼지귀같이 생겼기에 이 鄉藥名의 命名의 緣由가 된다. 도꼬마리의 줄기와 잎에 기생하는 벌레는 종기, 毒瘡에 특효가 있어 옛부터 민간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借字表記 ‘刀古休伊’는 ‘刀古十休伊’로 分析되어 ‘刀古’는 ‘猪耳’의 “돌기, 도고”에 對應되며, ‘休伊’는 ‘卷’의 ‘말이’에 對應된다. ‘뿔고마리>뿔고마리’에서 ‘ㅏ>ㅓ’의 變化는 八終聲 規則의 適用을 받다가 七終聲 規則의 適用을 받았기 때문이다. ‘뿔고마리>독고마리’에서 ‘ㅓ>ㄱ’의 變化는 同化作用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현대어 ‘뿔고’를 ‘뿔고>독고’로 音聲 實現하는 것과 체를 같이 한다.

(34) 柴胡 / 地蕪, 山菜, 茹草, 山芹

- a. 山叱水乃立. 椒菜 (향구目 1)
- b. 猪矣水乃立. 青玉葵 (향구下 40)
- c. 山芹 (촌가), <缺> (촌구 20)

30) 또 다른 한편으로는 ‘되고, 도고’를 ‘독/도고’로 解讀하여 ‘古’를 末音 添記字 ‘ㄱ’으로도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되고마리, 도고말이’를 ‘독마리’ 즉 이 열매의 달인물을 먹거나 상처에 붙이면 독을 말아낸다는 民間俗說에 그 의미가 있다고 추정된다. ‘刀(升)+古休(ㄱ)伊’의 분석 이외에 ‘刀(升)叱古+休(ㄱ)伊’라는 분석도 추정해 볼 수 있다.

- d. 석훗불취 (구간 2-12)
- e. 뫏미나리 (분문 25) (방약 263)
- f. 석호 (언태 58)
- g. 뫏미나리 (동탕 721)
- h. 참늑물불취 (산림 1-190)
- i. [鄉名] 뫏미나리뿌리·참나물뿌리. (향본 27)
- j. 산미나리, 참나물뿌리, 민미나리, 돌미나리, 불미나리, 매나리 (울진)

(a)는 ‘山(되:훈독) 叱(스:약음가) 水(물:훈독) 乃(나:음가, 내-나) 立(립:음가)’ 즉 ‘뫏물나립’으로 해독된다. 후대로 오면서 ‘뫏물나립>뫏므나리>뫏미나리(뫏미나리)>(뫏미나리)>민미나리(뫏-멘-민)’로 발달했다. ‘ㄴ’음 앞에서의 ‘ㄹ’탈락과 音節末에서의 ‘ㅂ’탈락 현상이 보이며, 또 ‘- > ㅍ’로의 전설모음화를 거친다.³¹⁾ (b)는 ‘猪(돌:훈독) 突(의:음가) 水(물:훈독) 乃(나:음가) 立(립:음가)’ 즉 ‘돌의물나립’으로 해독된다. <鷄林>의 ‘猪曰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猪’의訓 ‘돌’의 역사가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 방언에서는 ‘돌미나리’로 불린다. 이것은 논밭둑에 앞줄기 부분이 자색을 띠고 있기에 ‘불미나리’라고도 민간에서는 말한다.

나물중에 으뜸인 산에 나는 ‘참나물’과 논밭둑에 야생하는 ‘돌미나리’, 약재로 쓰이는 ‘시호’는 혼용하여 불리었다. ‘미나리’에 ‘돌[猪]’이나 ‘되[山]’의 야생성을 의미하는 接頭語를 附加시켜 어휘를 확장한 조어법이 이미 13세기에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語形이 바뀌는 形態論的인 것으로 ‘뫏미나리’에서 ‘참미나리’ 혹은 ‘참나물’로 語形이 변한다. 당시의 돌미나리는 참미나리의 俗稱으로 여겨지고 현대의 돌미나리는 들에 자라는 野生의 미나리를 일컬어 말한다.

(35) 惡實 / 鼠粘子, 牛蒡, 大方子, 鼠蟻子

- a. 鄉名 亦同 惡實 (향구중 11)
- b. 苦牛蒡子 (향월 無)
- c. 卽 苦牛蒡實 (향집 79)

31) 三國史記 地名에서 ‘買’는 ‘水, 川, 河, 井’ 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水乃立’을 ‘매(뫏)나리’로 해독할 수도 있다. 이기문(1963:87)에서는 ‘水乃立’을 ‘물나리>므나리>미나리’로 설명했다.

- d. 牛蒡子 / 우윙씨 (촌구 68)
- e. 쓴우윙씨 (구간 2-67)
- f. 우왕 (사성下 36) (훈몽上 8)
- g. 우윙 씨 (동탕 729)
- h. 윙윙 (경험 4)
- i. 우윙 (역어下 10)
- j. 윙씨 鼠粘子 (광제 29)
- k. 우방즈 (단방 89)
- l. [鄉名] 우윙씨. (향본 42)
- m. 우병씨, 우영씨

(a)의 <향구>에서는 漢語名을 鄉藥名으로 사용하였기에 音讀하여 ‘악실’로 된다. <本草綱目>(1590:575)의 ‘惡實’에 ‘牛蒡’은 그 異名으로 나와 있다(惡實卽牛蒡子也). (b)는 ‘뽕(쓴:훈독) 牛(우:음독) 蒡(방:음독) 子(씨:훈독)’ 즉 ‘쓴우방씨’로 해독된다. 그러나 ‘쓴우병씨’로도 해독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병>w(오/우)’의 변화를 입어 (e)의 ‘쓴우병씨’로 바뀌었다. ‘牛蒡’의 변천 과정을 다시 보면, ‘우방’으로 쓰이다가 모음조화에 의해 ‘우병’으로 되기도 하는데, 이 단계에서 ‘병’이 다시 ‘w’로 바뀌자 전자는 ‘우왕’, 후자는 ‘우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식물의 열매는 겉표면이 갈고리 모양의 솜털로 덮혀서 보드라운 털에 쉽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다른 곳에 옮겨지기에 (j)와 같이 ‘鼠粘子’라고도 한다. 이것은 ‘蒼耳子’를 ‘羊負來’라고 하는 것과 케를 같이 한다. 動物 隱喩에 의한 命名이다.

(36) 羊蹄 / 土大黃, 紅筋大黃, 落蹄

- a. 熊月背 (향구上 5)
- b. 所乙串 (향월 無) (향집 79)
- c. 所乙古叱 (우마 5)
- d. 所乙串 / 솔웃 (촌구 70)
- e. 蹄 솔웃대 俗呼羊蹄菜 又 馬蹄菜 곰돌이, 솔웃 초 錐 (훈몽상 5)
- f. 솔웃불취 (역어下 11) (동탕 735)

- g. 소로더이 (물명 3-92)
- h. 소로장이썰이 (단방 22)
- i. 所乙串 (소루쟁이·송구지). (향본 53)
- j. 송구챙이(경주), 곤달비나물, 솔구차리(영덕), 솔구지.

(a)는 ‘熊(곰:훈독) 月(달:훈독) 背(비:음가)’ 즉 ‘곰달비’로 해독된다. <계림>에 ‘紫曰質背’로 되어 있어 ‘羊蹄’의 紫赤의 속성이 진달래의 자적색 속성과 일치하므로 羊蹄를 ‘熊月背(곰달비), 진달래를 ‘盡月背(전달비)’라고 하는 것이 수공이 간다. 이것은 ‘곰달비>곰달비>곰달비>곤달비’로 변천했다. ‘ㄱ>ㄴ/ㄷ’로의 음운변이가 있다. (b)는 ‘所(소:음가) 乙(ㄷ:약음가) 串(곶:음가)’ 즉 ‘솔곶’으로 해독된다. 방언형에 ‘솔구차리’가 있어 ‘솔곶’의 ‘ㄱ’이 아직 남아 있다. 후대에 오면서 ‘솔’의 ‘ㄷ’ 아래에서 ‘곶’의 ‘ㄱ’이 탈락되어 ‘솔곶>솔웃>솔웃’으로 발달한다. (c)도 ‘솔곶’으로 해독되어 (b)의 ‘串’이 ‘古叱’로 2자 음가자로 바뀌었다.

한글 표기에서 후대에 ‘당이’가 부가되어 ‘솔웃당이’가 되는데, 音節末音 ‘ㄷ(ㄷ)’과 音節頭音 ‘ㄷ’의 同音重出로 音節末音이 탈락되고, 또 연음화되어 ‘소로당이’가 된다. 그리고 다시 구개음화되어 ‘소로장이’가 된다 음 ‘j’가 탈락되어 ‘소로장이’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ㅣ’역행동화와 모음 조화과괴에 의해 ‘소루쟁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본강> ‘根似長蘆葍而莖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뿌리는 길고, 줄기 아랫부분은 붉은색이다. 그리고 어린순은 나물로 먹기도 한다. 이 식물의 뿌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깊이 내려가 있다. 그래서 방언 ‘송구챙이’는 器物에 의한 隱喩로 ‘송곳+챙이’로 분석된다. 즉 ‘송곳챙이>송곳챙이>송구챙이’로 발달되었다. ‘솔구차리’는 “솔곶”에 “-아리”의 접사가 붙어 ‘솔곶+아리>솔곶아리’가 되고 이것은 ‘솔고차리>솔구차리’로 발달했다. ‘송곶’은 ‘솔웃’에서 왔다고 본다. ‘솔웃’은 ‘솔곶’이 변한 것인데 ‘솔곶’은 ‘솔(松)+곶(뾰족하게 나온 곳)’으로 분석된다. ‘송곶’은 처음에는 ‘소나무로 만든 뾰족한 것’을 의미했으나 차츰 ‘쇠로 만든 뾰족한 것’을 지칭하게 되었다고 본다.

(37) 羊躑躅 / 山躑躅, 杜鵑花

- a. 盡月背 (향월 3) (향집 79)
- b. 진돌윗곳 (구간 2-44)
- c. 진돌위 (훈몽上 4)
- d. 턱톡곳 (동당 734)
- e. 진달리 (역어下 39)
- f. 털дук, 딘달리 杜鵑花 (물명 4-13)
- g. [鄉名] 盡月背(진달래)·철쭉. (향본 52)
- h. 철쭉, 연달래, 개달래, 개꽃

(a)는 ‘盡(진:음독) 月(돌:훈가) 背(비:음가)’ 즉 ‘진돌비’로 解讀된다. ‘돌비’는 紫色을 나타내는데 표기된다. ‘진돌비’는 ‘자주빛이 짙은 색의 꽃’으로 풀이된다. ‘진돌비’는 ‘진돌외, 진돌위, 진달이, 진달리, 진달래’ 등의 어형으로 발달해서 ‘β>w>∅’의 변화를 보여주며, (f)의 ‘딘달리’는 역구개음화와 모음변화를 겪은 형태이다. 이것들은 ‘전래민간형’의 향약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턱톡, 털дук, 철죽, 철쭉’ 등의 어형 발달에서는 ‘ㅌ>ㄷ’과 ‘ㄷ>ㅌ’의 음운 변천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어형들은 ‘외래중앙형’의 향약명이라 부른다.

[圖經]에 이 풀을 羊이 먹으면 미쳐 날뛰다가 죽는다고 해서 ‘洋躑躅’이라고 했다. 현재 부르는 ‘철쭉’은 ‘洋’의 ‘躑躅’음이 訛傳되어 변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현대는 ‘참꽃’을 ‘진달래’라 하고 개꽃인 ‘연달래’를 ‘철쭉’이라 한다.

(38) 藺茹 / 狼毒

- a. 烏得夫得 (향구中 21)
- b. 五得浮得 (향구目 3)
- c. 吾獨毒只 (향월 5) (향집 79-48)
- d. 吾獨毒只 狼毒 (향월 2)
- e. 吾獨毒只 / 오독도기 (촌구 26)
- f. 오독또기 狼毒 (동당 735)
- g. [鄉名] 吾獨毒只(오독도기). (향본 56)

(a)(b)에서 ‘烏:五’, ‘夫:浮’의 異表記 대응으로 보아 음차임에 틀림없다. ‘烏/五(오:음가) 得(득:음가) 夫/浮(부:음가) 得(득:음가)’ 즉 ‘오득부득’으로 해독된다. (a)와 (c)에서 ‘烏:뫼’는 ㅍ이 같고 ‘得:獨’은 ㅍ相에 의한 差異이고 ‘夫得:獨只’의 대응에서는 ‘夫得’형이 ‘毒只’형으로 語形上 改新이 있었다. (c)(d)(e)는 ‘뫼(오:음가) 獨(독:음가) 毒(도:약음가, 독→도) 只(기:음가)’ 즉 ‘오독도기’로 해독된다. (f)는 경음이 반영되어 있고, (g)는 중간본의 것을 옮겨 놓은 듯하다. 藺茹와 狼毒은 약재로서는 차이가 있으나 향명으로는 <향월>과 <동탕>의 표기로 봐서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득부득, 오독독, 오독도기, 오독뽀기’등은 의성어로서의 상징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어형은 후대로 오면서 이 약물의 약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약재는 상한 살을 썩혀내고 개충을 죽이고 고름과 죽은 피를 없애는 효능이 있다. 다시 말하면 독이나 부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약성 때문에 ‘-毒只’란 어형이 접미된 것으로 보인다.

(39) 女萎 / 萎蕤, 黃精, 地節, 玉竹, 馬薹

- a. 萎蕤 豆應仇羅 (향월1), 豆應仇羅 / 둥구라 (촌구 1)
- b. 女葦 萎蕤 豆應仇羅 (향집 78)
- c. 斗應九厓 (연문 9)
- d. 둥글네 (물보 10)
- e. 둥구리 (물명 3-67)
- f. [향명] 豆應仇羅(둥글레)뿌리. (향본 27)
- g. 둥그리, 둥글레, 황정, 둥구리

이 식물은 잎이 대잎 같고 열매는 염주알 만하고 둥글며, 여물면 검은 색으로 된다. 둥근 열매 모양과 그 뿌리의 끝부분이 둥글다는데에 이 향약명의 命名의 緣由가 있다. 이것은 민간에서 造語된 전래민간형의 향약명이라 여겨진다.³²⁾ (a)는 ‘豆(두:음가) 應(응:음가) 仇(구:음가) 羅(라

32) 황윤석 原著 강현규 譯 (1995:21)에 의하면, 몽골족의 한 갈래인 달단족은 ‘둥글다[圓]’는 말로 ‘統格落’이란 말을 쓴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圓을 ‘斗應斤來’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즉 ‘ $\text{t}-\text{g}-\text{r}$ ’, ‘ $\text{d}-\text{g}-\text{r}$ ’로 子ㅍ이 대응된다.

:음가)’ 즉 ‘두응구라’로 해독된다. ‘둥응구라’의 끝음절 ‘라’는 ‘레,네,리’로 변천했음을 알 수 있다.

후대로 오면서 ‘ㅡ’탈락과 ‘ㄴ’이 첨가되어 ‘두응구라>둥구라>(둥굴라)’가 되고, 이 ‘둥굴라’에서 모음변화된 ‘둥굴레’는 다시 ‘둥구리’로 실현되기도 한다. 지금은 ‘둥굴레’로 통용된다.

(40) 龍膽 / 陵游

- a. 觀音草 (향집 78) (촌구 5)
- b. 과남풀 (동당 722) (제중)
- c. 초롱담 (물보 10)
- d. 관음풀, 과남풀 (물명 3-67)
- e. [향명] 觀音草(관음풀·과남풀). (향본 29)
- f. 초롱담

이 풀은 맛의 쓰기가 동물의 쓸개즙 같아서 民間에서는 초롱담(草龍膽)이라 부른다.³³⁾ 漢字語 ‘龍膽’의 ‘膽’은 그 뿌리의 맛이 쓰다는 데서 緣由된 이름이고, ‘龍’은 植物名에 흔히 附加되는 비유의 하위구별표지로서 原意味(여기서는 쓴 맛)를 과장하여 표현할 때 습관적으로 덧붙인 것으로 보여진다. ‘觀音草’는 ‘觀音柳(능수버들)’, ‘觀音竹’ 등의 식물 이름과 같이 ‘觀音+草’의 複合語이다. 觀音은 ‘觀世音菩薩’의 준말로 관음이 붙은 식물을 집안에 두면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는 민간설이 있다. 그래서 觀音을 식물 이름에 즐겨 쓴 것 같다. (a)의 ‘觀音草’는 ‘觀(관:음독) 音(음:음독) 草(풀:훈독)’ 즉 ‘관음풀’로 解讀된다. 鄉藥名으로는 ‘관음풀’과 ‘초롱담’이 공존하다가 ‘용담’으로 쓰이게 되었다. ‘과남풀’은 향명 ‘관음풀’의 音이 訛傳된 것으로 보인다. ‘용담’은 ‘초롱담>초롱담’으로 ‘ㄹ>ㄴ’의 변화를 보여 준다. 民間에서는 ‘초롱담’이 ‘초롱꽃’에 유추되어 ‘초롱담’으로 불리고 한의약을 조제하는 곳에서는 ‘龍膽’으로 통용된다.

(41) 牛膝 / 百倍, 牛罈

- a. 牛膝草 (향구目 1)

33) ‘味苦如膽故俗呼爲草龍膽’ <동당 722> 참조.

- b. 牛無樓邑 (향집 78)
- c. 牛無邑 / 쇠무름 (촌구 3)
- d. 쇠무름불취 (구간 3-96)
- e. 우슬 (언태 2)
- f. 쇠무름디기 (동탕 721)
- g. 쇠무름지기 (산림 515)
- h. [鄉名] 牛無樓邑(쇠무름지기)뿌리. (향본 26)
- i. 우슬, 우실, 우조아리, 우쭈아리, 말종아리(영천)

(a)는 ‘牛(쇼:훈독) 膝(무름:훈독) 草(플:훈독)’ 즉 ‘쇼무름플’로 해독된다. 그러나 ‘衣, 依, 袞’ 등이 介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쇼>쇠’로도 볼 수 있다. ‘쇠’는 ‘쇼+히>쇠’와 ‘쇼>쇠’의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쇼’가 관형사형으로 쓰임으로서 ‘쇠’가 된다. (b)는 ‘牛(쇼:훈독) 無(무:음가) 樓(루:음가) 邑(비:약음가)’ 즉 ‘쇼무름’으로 해독된다. (c)는 ‘牛(쇼:훈독) 無(무:음가) 邑(비:음가)’ 즉 ‘쇼무읍’으로 해독된다. 이것은 ‘무+읍’에서 ‘르’이 개입되어 ‘름’으로 되어 ‘쇼무름’ 혹은 ‘쇠무름’으로 실현된다. ‘쇠무름디기/지기’와 ‘쇠무름’은 공존했다. ‘-디기/ -지기’는 ‘플’에 대응된다.

한글 표기에서 보이는 음운 변화로는 ‘쇼’가 복합어를 이룰 때 ‘쇠무름’의 ‘쇠’와 같이 ‘ㅣ’가 첨가되고 있다. 이것은 ‘쇼+히(관형격조사)’에서 모음충돌로 ‘ㅇ’가 삭제된 형태이다. 그러한 예는 ‘쇠귀노물’, ‘쇠기름’ 등이 있다. 또한 ‘무름’에서 ‘무름’으로의 ‘->ㅍ’, ‘쇼’에서 ‘쇼’로의 ‘고>고’의 음운 변화도 보인다. 牛膝에 대한 향약명은 한어명을 번역 차용한 어휘로 이 풀의 줄기, 마디 모양이 흡사 쇠무름과 같다는 외형적 속성 때문에 쉽게 대중에게 이해되고 전달될 수 있는 향명이다. 방언형 ‘우쭈아리’는 ‘우(牛)’와 ‘종아리(膝의 주변)’의 합성어로 ‘우종아리>우조아리>우쭈아리>우쭈아리’로 변했다. 이 방언형은 漢語 ‘牛膝’과 고유어 ‘쇠무름지기’의 혼태형이라 볼 수 있다.

(42) 遠志 / 棘莞, 絳纒, 細草, 小草

- a. 非師豆刀草 又 阿只草 (향구目 1)

- b. 阿只艸 又 朱書 非師豆刀草 (향월 8)
- c. 阿只草 / 아기풀 (춘구 34)
- d. 아기춧불취 (구간 3)
- e. 원지 (언태 2)
- f. 아기풀불취 (동탕 722)
- g. 아기풀 狗尾草 (역어下 40)
- h. [鄉名] 阿只草(아기풀)뿌리. (향본 29)
- i. 애기풀

(a)(b)에서의 ‘非師豆刀草’는 ‘비사두도풀’(남풍현, 1981:106)의 표기로 추정해 둔다. ‘阿只草’는 ‘阿(아:음가) 只(기:음가) 草(플:훈독)’ 즉 ‘아기풀’로 해독된다.³⁴⁾ 여기서 ‘阿只’의音を ‘아기’로 확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초(草)는 ‘艸’字로도 나타난다. 이것은 이 약초가 민간에서 흔히 쓰이며 또한 밀착되어 있었음을 입증한다. ‘草’를 ‘새’라고도 하나 여기서는 ‘草’를 訓讀하여 ‘플’로 읽는다. ‘아기/阿只’는 指小的인 뜻으로 ‘遠志’의 一名인 ‘小草’의 ‘小’에 대응된다. ‘아기풀’은 전체적으로 모양이 작으며, 가련하고 작은 꽃이 피는 데서 命名의 緣由를 찾을 수 있다. ‘애기’가 들어가는 용례는 ‘애기똥풀(白屈菜)’이 있는데 이와 같은 명칭은 이 풀의 줄기를 자르면 주황색의 유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애기의 똥’에 비유한 것이다.

(43) 薏苡仁/ 解蠱, 屋茨, 芑實, 籟米

- a. 伊乙每 (향구中24) (향구目 1)
- b. 有乙梅 (향월 7)
- c. 율미밭, 율미씨 (구간 1-11)
- d. 율미밭 (동탕 684)
- e. 율미 (산림 490)
- f. 율매밭 (제증 8-7)
- g. 율무우 (물명 3-58)

34) 신라의 웃대(上世)에서는 새로 태어난 어린 아이를 알지(關知)라 불렀고, 오늘날에는 변하여 곧 ‘아기(阿基)’ (혹은 ‘阿只’라 하니 ‘只’의 音은 ‘기’다)라 부른다. (황윤석, 1995:8) 참조.

- h. 울무밭 (방약 340)
- i. [鄉名] 울무 (향본 28)
- j. 울미쌀, 울무

(a)는 ‘伊(이:음가) 乙(을:음가) 每(미:음가)’ 즉 ‘이을밀’로 해독되고, (b)는 ‘有(유:음가) 乙(르:약음가) 梅(미:음가)’ 즉 ‘울미’로 해독된다. ‘有乙-’의 표기로 보아 <향월>에서부터 지금까지 같은 계통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일미/이을미>울미/유을미>울미>울매’ 혹은 ‘울무’로 변천했음을 알 수 있다. 후대에 ‘밭’, ‘씨’가 접미되어 복합어 ‘울피밭’ ‘울피씨’ 등의 형태가 나타난다. 漢語 ‘蕙苾仁’의 ‘仁’은 ‘人’으로도 대체됨은 <향구>의 ‘郁李人(산매자)’와 <촌가>의 ‘郁李仁(산매자)’가 있다. (a) (b)의 ‘每’와 ‘미’는 ‘밭’에 대응되는 ‘米’의 음가자 ‘미’로 후대에 다시 ‘밭’이 붙어 ‘울매밭’로 異形態의 疊語를 이루고 있다.

(44) 茵陳蒿 / 山茵陳

- a. 加火老只 (향구中 2) (향월 4)
- b. 加外左只 (향집 78-276)
- c. 加外作只/가외자기 (촌구 48)
- d. 더위자기 (동탕 726)
- e. 더위지기 (제중 8-1)
- f. 접이쑥, 청호 (단방 55)
- g. 사철쑥, 다부제기, 다복쑥, 생당쑥 (식명 736)
- h. [鄉名] 加外左只 (더위지기). (향본 35)
- i. 인진교, 자불쑥(경주방언), 인정쑥(영덕방언), 귀배방쑥(군위방언).

이 약초는 줄기가 겨울에도 죽지 않고 있다가 봄에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a)는 ‘加(더:훈가) 火(불:훈독) 老(노:음가) 只(기:음가)’ 즉 ‘더블노기’로 해석된다. ‘더블/다블’은 방언형 ‘자불’과 대응이 된다. 이것은 그 形態가 ‘자부룩하다’는 데에 命名의 緣由가 있다고 본다. (b)는 ‘加(더:약훈가) 外(외:음가) 左(자:음가, 石蜂千字, 자) 只(기:음가)’ 즉 ‘더외자기’로 解讀되나 모음조화를 고려한다면 ‘더위자기’로 된다. 이것은 ‘더블-’에서 ‘ㄹ’의 탈락과 ‘ㅂ’음의 약화와 전설모음화의 과정을 거친다.

즉 ‘더불>더울>더위(더외)’로 발달된다. 경상도 방언에 더위를 ‘더부, 더비’라고 하기에 이를 방증한다. (c)는 모두 음借 내지 약음차되어 ‘가외자기’로 한글 표기되어 있다. 이후에는 이에 대응되는 어형이 보이지 않는다. <촌가>의 鄉藥名 表記는 왕명에 의해 專門家가 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古老들의 경험을 엮은 것이라 짐작되기에 解讀을 잘못할 수 있어 鄉藥名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加’자를 음借할 것이 아니라 訓借하여 ‘더외자기’로 解讀함이 옳을 듯하다. 또한 이 藥草는 그 生長 形態가 ‘다북썩’처럼 다북하게 생겼기 때문에 ‘더북하다’의 ‘더북’에 ‘-지기’ 접미사를 부가하여 ‘더북지기’로 命名했고, 이 語形은 ‘더북지기>더부지기>더뽀지기>더우지기>더위지기’로도 변천했다고 추정해 본다.

(45) 齊芘 / 白馬肉, 南沙蔘

- a. 獐矣加次 (향구上 1)
- b. 獐矣皮 (향구目 4)
- c. 季奴只 (향월 2) (향집 79) (촌가)
- d. 계로깃불취 (구간 3-2)
- e. 계로기 (훈몽上 7) (동탕 717) (역어下 11)
- f. 계로기 (산림 407) (사성下 27) (임원 7)
- g. 계로기 (방약 255)
- h. 계록이, 모시디, 계로기 (식회 338)
- i. [鄉名] 季奴只(계로기). 모시때. (향본 46)
- j. 모싯대, 잔다구, 잔대, 찢대

(a)는 ‘獐(노르:훈독)矣(위:음가)加(가:음가)次(츠:약음가)’ 즉 ‘놀이갓’으로 해독된다. (b)도 마찬가지로 ‘놀이갓’으로 해독된다. ‘皮’는 ‘皮曰濁翅<계림>, 영의갓(狐皮)<訓民正音解例>, 싹 가춘 조티 몰흔거시라(地皮未爭也)<능엄7-11>’에서 보이듯이 古形은 ‘갓’이다. ‘皮’는 ‘갈시/걸시’ 혹은 ‘갓/겻’ 혹은 ‘갓/겻’ 혹은 ‘가죽/거죽’ 혹은 ‘갑데기/겹데기’ 혹은 ‘깁데기/겹데기’ 혹은 ‘갑질/겹질’의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언에 ‘皮’의 뜻으로 ‘까실/꺼실’이 있어, 고려어 ‘간지>가지’의 傍證 자료가 된다. (a)에서 ‘加次:皮’가 대응되므로 두 자의 음차자 ‘加次’에서

한 字의 훈독자 ‘皮’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c)는 ‘季(계:음가) 奴(노:음가, 노-로) 只(기:음가, 지-기)’ 즉 ‘계노기’로 해독되나 ‘ㄹ’이 개입되어 ‘계로기’가 된다. ‘계로기’형이 후대에 이어지다가 ‘모싯대’로 교체됨을 보여 준다.

(46) 地膚子 / 地葵, 地麥, 益明

- a. 唐榼伊 (향구中 23)
- b. 唐榼 (향구目 2)(향월 7)(향집 78-26)
- c. 땃뿌릿씨 (구간 3-108)
- d. 대뿌리여름 (동탕 725)
- e. 땃쓰리 (물명 3-104)
- f. 티뿌리씨(방약 287)
- g. 대솔이씨 (단방 134)
- h. [鄉名] 唐 (담싸리씨). (향본 35)
- i. 대싸리, 담싸리, 비싸리, 공쟁이

(a)는 ‘唐(대:훈독) 榼(뿌리:훈독) 伊(이:음가, ‘리’의 末音添記)’ 즉 ‘대뿌리’로 해독된다. 여기서 ‘唐’의 ‘대’는 ‘夷’와 관련이 있다. 末音添記가 있어 ‘榼’이 訓讀 鄉名임이 입증된다. 후대에 ‘대뿌리’형을 유지하되 ‘、’모음의 변화와 ‘ㅅ’이 첨가되었다. 즉 ‘대뿌리>땃뿌리>땃쓰리>땃싸리’로 발달한다. ‘대뿌리>땃쓰리>담싸리’의 과정을 거쳐 발달했다.

(47) 車前子 / 當道, 茺菹, 蝦蟆衣, 牛遺, 馬烏, 牛舌草, 蛙葉, 車過路草

- a. 吉荆菜實 (향구目 1)
- b. 炒車前子 大伊古尖 (향구中 16)
- c. 布伊作只 (향집 78)
- d. 차전님 (구급上: 85)
- e. 뽕이 (구간 3-87)
- f. 뽕이씨, 길경이씨 (동탕 722) (산림 514) (제중 8-5)
- g. 길경이 (물보 10) (물명 3-93)
- h. 길경이씨, 차전자 (단방 36) (단방 41)
- i. [鄉名] 布伊作只(뽕이)씨. 길장구씨. 질경이씨 (향본 28)

- j. 질경이, 질게이, 배짜개, 길짱구, 길장귀, 배부재이, 뱀조개, 뱀쟁이, 뱀
째이

이 약초는 道路邊과 牛馬足跡, 수레바퀴 자국속에서도 강인하게 번식
한다고 하여 車前草라고 命名했다. (a)는 ‘吉(길:음가) 刑(형:음가) 菜
(나물:훈독) 實(씨:훈독)’ 즉 ‘길형나물씨’로 해독된다. (b)의 異表記 ‘大
伊古尖’ ‘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질기이’라고 부를때는 ‘질경이>질거이
>질게이>질기이’로 설명된다. (c)는 ‘布(뵤:훈독) 伊(ㅣ:음가,말음첨
기) 作(자:약음가) 只(기:음가)’ 즉 ‘뵤자기’로 해독된다. 뵤짱이는 아이
들이 질경이잎으로 베짜기 놀이를 하는 데서 연유된 것이다. 방언형 베
짜개, 배부쟁이, 뱀쟁이 등의 방증자료가 보인다.

현대에는 漢字 車前子 ‘길경’이 ‘질경’으로 바뀌어 쓰인다. 뵤짱이는 ‘뵤
十짜다+양이’로 분석된다. ‘뵤’는 ‘뵤 포(布) <훈몽中30> <유합上26> <석
천39> <역어하5>’ 등에서 확인된다. ‘-양이’는 접미사이다. ‘길장구’는 ‘길
경’과 ‘뵤장이’의 혼태형으로 볼 수 있다.

(48) 菖蒲 / 昌陽, 白菖, 泥菖, 水菖

- a. 松衣 尓 (향구目 1) (향월 4)
- b. 消衣 尓 (향구上 3)
- c. 昌陽 (향집 78-1)
- d. 松衣 尓 叱根 (우마 8)
- e. 돌서리엿송의맛불휘, 石菖蒲 (구간 2-28) (우마 8)
- f. 菖 창포 창, 부들 창, 부들 蓀 (훈몽上 8)
- g. 석창포 (동탕 720)
- h. 돌박히난 창포 (광제 13)
- i. [鄉名] 석창뿌리 (향본 24)
- j. 쟁피, 석창뿌래이

菖蒲의 訓에 ‘부들’이 있는 것은 이 식물의 지상 부분의 특성을 부들잎
에 비유해서 붙인 명칭으로 그 외형의 특징을 명시한 것이고, ‘消衣 尓,
松衣 麻’는 땅 속의 뿌리를 지칭한 것으로 그 용도상의 가치에서 나온 鄉
藥名이다. 菖蒲는 제주도의 돌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약재로 쓰이기에

석창포라 한다. 석창포는 창포에 비해 등심줄이 없고, 돌틈에서 자란다. ‘松衣’나 ‘消衣’는 단지 音相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때 두 가지 解讀이 가능하다. ‘消衣’를 기본형으로 잡아 ‘없애는(除), 내쫓는’ 등의 의미로 볼 때, 초성이 ‘스’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석의(돌틈에서 나는) + 마(피근)’ 즉, ‘석창포’는 ‘석위마>성위마>송위마>쇼위마>소의마’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의마’에 ‘ㄹ’이 개입되어 ‘소리마’로 된다. 이덕봉(1981:124-126)은 ‘消衣’를 단오의 고유어 ‘수리날’과 관련지어 ‘松衣/소리’와 ‘消衣/쇼리’로 추정하여 단오절의 풍속(창포물에 머리를 감아 잠귀를 물리치는 풍습)에 창포의 語源을 관련시켰다. 이은규(1993:141)는 재구형을 각각 *소리마/*소의마’로 잡고 있다. 방언형 ‘쟁피’는 ‘창포’가 변한 것이다.

(49) 茜根 / 地血, 筴蕪, 茜草, 茅鬼(훈몽9)

- a. 高邑豆訟 (향집 78)
- b. 古邑豆訟 (향월 2)
- c. 古邑道松 (촌가)
- d. 곡도송 천 (훈몽上 9)
- e. 곡도송 (동탕 725) (사성下 4)
- f. 곡도송 (역어하 40)
- g. 곡도손 草 (방약 25)
- h. [鄉名] 高邑豆訟 (꼭두선이)뿌리 (향본 34)
- i. 꼭두서이, 꼭두서니, 꼭두선

이 풀은 染料로 사람의 피빛같이 빨강고 곱게 물들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년출로 뻗어가는 것으로서 가시같은 것이 많이 붙어 있다. (a)(b)(c)는 모두 한 계통으로 모두 音借한 표기다. ‘高’와 ‘古’는 異表記字이지만 그 音에 있어서는 ‘고’이다. 그리고 ‘豆訟’과 ‘道松’의 글자 차이는 있으나 그 音이 近似하여 각각 ‘두송’과 도송’이다. ‘古(고:음가) 邑(ㅂ:약음가) 豆(두:음가) 訟(송:음가)’ 즉 ‘곱두송’으로 해독되나 (c)와 같이 모음조화를 고려한 표기가 있어 ‘곱도송’으로도 해독된다. 후대에 오면서 ‘곱’이 ‘곡’으로 바뀐 것은 <촌가 24>의 黃芩의 향명 ‘裏朽草’에서

의 ‘裏[습]’가 ‘속’으로 바뀐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 鄉名은 後代에 내려오면서 ‘곱두송, 곱도송, 곡도송, 곡도손, 곡도손이, 곡두선이, 꼭두서니’ 등의 語形 變遷을 보여준다.

(50) 天南星 / 南星, 虎掌,³⁵⁾ 蛇芋頭, 蛇頭根草

- a. 豆也 尓 次火 (향구上 14)
- b. 豆也 味次 (향구目 5)
- c. 豆也 摩次 作只 (향월 2)
- d. 豆也 末注 作只 (향집 79)
- e. 豆也 麻造 作 (豆也 麻造 作只 / 두야머조자기) (촌구 25)
- f. 豆也 尓 注 作只 (鬼白) (우마 13)
- g. 두야머주자깃불휘 (구간 1-1)
- h. 두야머조자기 (우마 13)
- i. 두야머조자기 (동탕 734) (제중 8-4)
- j. 턴남성 (마경下 33) (언두下 3)
- k. [鄉名] 豆也 末注 作只 (두야머조자기) 뿌리 · 토야미초뿌리 (향본 53)
- l. 토야미초뿌리 (동사 813)
- m. 철남생이, 찰남생이, 철남송이

이 약초의 뿌리는 토란처럼 둥글게 생겼고, 그 열매는 옥수수 자루같이 생겼다. 줄기에 얼룩점이 있고 줄기가 붙었던 자리에 그 흔적이 둥그렇게 남아 있고, 뿌리의 둘레와 밑부분에 잔부리가 붙어 있다. 그 모양은 흡사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한 아이나 늙은이의 머리같다, 민간에서는 머리카락을 땀은 머리 모양을 보고 ‘철남송이 대가리 같다’고 말한다. 이 식물의 뿌리가 ‘사람의 머리처럼 둥글다’는 데에 이 鄉名의 語源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a)-(f)는 같은 계통으로 보인다. (a)는 ‘豆(두:음가) 也(야:음가) 尓(마:음가) 次(자→스:약음가) 火(불:훈가)’ 즉 ‘두야맛불’로 해독된다. (b)의 ‘味’는 ‘맛-마’로 약훈가가 되어 ‘두야맛’으로 해독된다. (c)의 ‘摩’는 음가차되어 ‘마’가 되고, ‘作只’는 ‘작(자:약음가) 只(지-기:음가)’ 즉 ‘자기’로 되어 ‘두야맛자기’로 해독된다. (c)의 ‘作只’

35) ‘其根四 有圓芽看如虎掌故有此名’ <본강>(唐의 蘇恭) 참조.

는 (a)의 ‘火’에 대응되고, 후대형 ‘자기/지기’형에 이어진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加外作只(茵蔯蒿)’의 ‘作只’가 있고, ‘쇠무릅지기/牛膝草/쇼무릅풀’의 ‘지기’는 차자표기 ‘草’와 한글 해독형 ‘플’에 대응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火’은 ‘플’의 현실음 ‘블’로 해독해야 할 것이다. (d)의 ‘末’은 ‘말-마:약음가’, ‘注’는 ‘주:음가’로 되어 ‘두야마주자기’로 해독된다. (e)는 ‘麻(마:음가) 造(조:음가)’로 되어 ‘두야마조자기’로 해독된다. (f)는 ‘두야마주자기’로 해독된다. (a)(b)(c)의 ‘맛’에 ‘오/우’가 삽입되어 (d)(e)(f)와 같이 ‘마조/마주’로 됨은 특이한 현상이다. 한글 표기에서 ‘주자기 > 조자기’, ‘두야머>두어머’로 모음조화 규칙이 적용되었다. 차자표기는 ‘豆十也(他) (味, 摩, 末, 麻) 次注(造)十火(作只)’로 형태 분석되며, 그 의미는 ‘머리 혹은 구슬 모양 같은 (뿌리를 가진) 풀’로 짐작된다. 그러나 ‘火’를 ‘根’으로 볼 경우는 이 약재의 사용 부위를 명시한 것으로 보아 ‘두야마자블’이 되어 ‘두야마자블휘’의 불완전한 표기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차자표기와 계통을 같이하는 한글표기형은 통용되지 않고, 한어명을 音讀한 天南星이 經驗方書類에서부터 줄곧 통용되어 왔다. 방언에서도 ‘턴남성>천남성>천남생이>철남생이>찰남생이’로 구개음화, ‘ㅣ’모음역행동화, 이화작용에 의한 ‘ㄴ>ㄹ’ 등의 음운 변화를 겪게 된다.

(51) 青箱子(鷄冠子) / 草蒿, 草決明, 遷目童子, 青裏子

- a. 鷄矣碧叱 (향구上 6) (향구目 6)
- b. 白萋月阿比 (향월 3) (향집 79)
- c. 萋月阿彌 (촌가)
- d. 돌기벗 (구방下 17) (구방上 46)
- e. 달기버섯피 (구간 2-91)(구간 1-58)
- f. 흰만드라미 (구간 2-95)
- g. 만드라미씨, 만드라미꽃 鷄冠花³⁶⁾ (동탕 734)
- h. 만도라미 (산림 158) (역어下 39)
- i. 만도람이 (물보 9)
- j. 민도람이 (물명 3-104)

36) ‘花似鷄冠故以名’ <동탕 734> 참조.

- k. 맨드램이꽃 (식취 140)
 l. [鄉名] 白蔓月阿比 (맨드라미)씨 (향본 50)
 m. 맨드라미꽃(鷄公花) (동사 143)
 n. 맨드라미, 민드래미, 달구백실, 닭배실, 닭벽실

(a)는 ‘鷄(둑:훈독) 矣(의:음가) 碧(벽:음가) 叱(슬:음가)’ 즉 ‘둑의벽슬’로 해독된다. 후대 어형을 고려하면 ‘碧叱’이 ‘벗’으로 되어야 한다. 民間에서 많이 불려진 것이니 방언형으로도 解讀이 가능할 것이다. ‘鷄’가 ‘닭’으로 훈독됨은 <鷄林類事>에 ‘鷄曰啄音達’로 되어 암탉의 ‘탁’, 장닭의 ‘달’과 관련시킬 수 있어 13세기에 반침에 ‘ㄱ’과 ‘ㄹ’음이 존재했으리라 추정된다. 또 東南方言에 ‘달구똥, 달구백실’등의 方言形으로 미루어 보아 傍證이 된다. ‘碧’이 ‘벽’으로 解讀됨은 ‘달구벽실, 달구백실’의 방언형이 있기에 ‘벽’으로 解讀했다. ‘叱’은 ‘ㄷ’ㅍ계열의 ‘즐, 즈, ㅈ’ㅍ이나, ‘ㅅ’ㅍ계열의 ‘슬, 스, ㅆ’ㅍ이나, ‘ㄱ’ㅍ계열의 ‘ㄱ’음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³⁷⁾ (a)에서의 ‘叱’은 ‘슬’로, 方言形 ‘달구백실’의 ‘실’로 존재하며 ‘실’은 ‘슬’의 전설모음화로 인한 음운 변이형이다. 후대로 오면서 ‘둑의벽슬>둘기벽슬>둘구벽실>달구백실’로 변천해 전래 민간형이 되었다. (b)는 ‘白(힌:훈독) 蔓(만:음가) 月(돌:훈가) 阿(아:음가) 比(비:음가)’ 즉 ‘힌만돌아비’로 해독된다. ‘만돌아비’는 梵語에서 귀화된 것으로 외래 중양형으로 발전했다. 즉 ‘만돌아비>만돌아미>만돌라미>만도라미’로 되어 (c)의 ‘彌’와 (b)의 ‘比’가 대응되어 ‘비’에서 ‘미’로 변천이 있었고, 또 ‘민도라미>맨도라미>맨드라미>민드래미’로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蔓月阿彌’에 ‘白’이 접두되었고, ‘만드라미’에 ‘씨’ 또는 ‘꽃’이 접미되어 복합어를 구성하고 있다. 또 ‘맨드라미’는 범어 ‘蔓陀羅華’에서 借用한 것으로 여겨진다. 蔓等羅味는 西域에서 ‘蔓陀羅花’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이것은 梵語에서도 역시 方言과 같이 아울러 쓴다.

(52) 茺蔚子 / 益明, 火枚, 益母, 貞蔚

- a. 目非阿叱 (향구상 4)

37) 이은규(1993:11-12)참조.

- b. 目非也次 (향구目 1)
- c. 目非也叱 (향월 4)(향집 78-7)
- d. 目非也叱 / 눈비얏 (촌구 46)
- e. 익모초 눈비엇 (구간 2-73)
- f. 암눈비아즈 (언태 16)
- g. 암눈비얏씨 (동탕 721)
- h. 눈비엇 野蘇子 (역어下 40)
- i. 눈비약이 (물보 10)
- j. [鄉名] 目非也叱(암눈비얏)씨 (향본 27)
- k. 육모초,육무초

(a)는 ‘目(눈:훈독) 非(비:음가) 阿(아:음가) 叱(사:약음가)’ 즉 ‘눈비얏’으로 해독되나 모음조화를 고려하면 ‘눈비엇’이 될 것이다. (b)의 ‘也’는 음가자로 ‘阿:也’의 대응을 보여주어 ‘아>야’에서 ‘j’첨가 현상 ‘a→ya/i-’을 보이고, ‘叱(사)’에서 ‘次(스)’으로 변이되어 ‘눈비얏’으로 해석된다. (c)는 ‘叱(사)’이 다시 표기되어 ‘눈비얏’으로 해독된다.

후대에 와서 ‘암’과 ‘씨’가 부가된다. ‘암’은 ‘益母草’의 ‘母’와의 의미 관계를 聯想할 수 있다. ‘눈비얏’과 ‘익모초’가 혼용되다가 ‘눈비얏’은 死語化되고 ‘益母草’가 통용된다. 蔚 및 益母草의 命名에 대해서는 <향집>의 ‘蔚’항을 參考하면 알 수 있다.³⁸⁾ 이덕봉(1963)에서는 ‘目非也叱’을 ‘目秘藥’으로까지 그 語源을 추측한 바 있다. 그 근거는 <鄉藥集成方>에 이 약재의 효능이 ‘明目益精’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서 눈을 보호하는 약이라고 하는데 근거하고 있다. (j)에서는 앞 문헌의 차자표기를 그대로 轉寫하여 풀이하고, 약재 사용 부위만 ‘씨’로 바꾸었다. 이것은 ‘암눈비얏’의 語形 構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53) 通草 / 附支, 丁翁, 王翁, 方通, 活梵

- a. 伊乙呑呑蔓 (향구中 18)
- b. 伊屹烏呑 (향구目 3)

38) ‘此草及子皆莖盛密蔚故名莖蔚其功宜於婦人及明目益精故有益母之稱’에서 추측컨대 ‘암눈비얏’의 ‘암’은 익모초가 婦人이나 產母에게 효험이 있으므로 附加하여 特徵을 明示한 下位區別 標識로 이해된다.

- c. 水佐耳 (향월 無)
- d. 卽 木通 (향집 79)
- e. 이흐름너출 (구간 2-4)
- f. 으흐름너출 (동탕 727) (제중 22)
- g. 을음겁직 木通實殼 (단방 97)
- h. 卽 목통(木通) [鄉名] 어름덩굴. (향본 38)
- i. 으름덩굴

이 약초의 줄기 속은 작은 구멍이 있어 양끝이 서로 통한다. 그리고 잎줄기는 혈액을 잘 통하게 하고 오줌을 잘 누게 하는 효능이 있다. 이것은 漢語名 通草와 木通의 命名 기반이 된다. 표제어에 卽 木通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通草의 異名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本草綱目 762 >의 ‘通草’ 異名에 ‘木通’이 나와 있고 <동탕 727>에 ‘通草 木通也’라고 되어 있어 音讀됨을 알 수 있다. (a)는 ‘蔓’이 혼독되어 ‘너출’이 되고 나머지는 音借된 것이다. 그래서 ‘이을음너출’로 해독된다. (b)는 ‘이홀음’으로 解讀된다. (c)는 ‘水(물:혼독) 佐(자:음가) 伊(이:음가)’ 즉 ‘물자이’로 해독된다. (a),(b)는 모음조화를 고려하면 ‘이을음너출’, ‘이홀음’으로 된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을/乙:홀/屹’ 대응에서 ‘乙’은 ‘홀’의 불완전한 표기로 보인다. ‘을음겁직’의 ‘겁직’은 어휘 변천상 ‘겁지’와 ‘겁질’의 중간 語形이라 짐작이 된다. 어휘상 변천은 漢語名 ‘通草’와 ‘木通’ 대신에 固有語 ‘으름덩굴’로 改新되었다.

(54) 蒲黃 / 香蒲, 蒲棒, 蒲草, 小香蒲, 甘蒲, 藕草

- a. 蒲錠上黃粉 (향구上7)(향구中 28)(향구中 29)
- b. 助背迫 (향구目 1)
- c. 卽 蒲錠花上黃粉, 香蒲 鄉名 次乙皆 (향집 78)
- d. 蒲錠黃粉 / 부도좨우회누툰분 (춘구 35)
- e. 부들마치우핏누른마ㄹ (구간 2-89)
- f. 부들 (역어하 39)
- g. 부도조갯마ㄹ (우마 9)
- h. 부들솨마ㄹ, 香蒲 卽 蒲黃苗也 (동탕 724)
- i. 부딧솨마ㄹ (산림 241)

j. 부들방망이 (물명 3-66)

k. 부들꽃 (방약 303)

l. [鄉名] 蒲鍾花上黃粉 (부들꽃술가루) (향본 32), 香蒲 부들순 (향본 33)

m. 부들방매이, 부들꽃가리, 부들방치, 즈부들.

(a)는 ‘蒲(부들:훈독) 鍾(마치:훈독) 上(우희:훈독) 黃(누르-:훈독) 粉(マㄹ:훈독)’ 즉 ‘부들마치우희누르마ㄹ’로 해독된다. (b)는 ‘助(조:음가) 背(비:음가) 追(마치:훈독)’ 즉 ‘조비마치’로 해독된다. <금양 52>에서는 ‘擊子个赤粟’을 ‘경즈마치조’로 읽고 있어 ‘마치’는 후대에까지 이어 짐을 알 수 있다. <鄉藥集成方>의 蒲黃에 대한 설명에 ‘포황은 꽃대가 마치 무사의 방망이 같다’고 하여 蒲槌라는 俗名이 나왔다고 했다. 『圖經』曰. 蒲花梗端如武士棒杵故里俗爲蒲追’ 여기서 ‘棒杵’와 ‘蒲追’의 類似性, 이른바 ‘방망이, 마치, 人獸의 雄根’ 등으로 원추형의 聯想이 命名의 緣由가 된다. (d),(g)에서와 같이 ‘꽃’은 圓錐形의 사물에 대한 通稱으로 사용되다가 人獸의 雄根에 대한 名稱에 適用되자 禁忌로 인하여 그 사용 범위가 제한되고,³⁹⁾ 이것은 ‘마치, 방망이, 부들’ 등으로 대체되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蒲黃의 실제 鄉名은 ‘助背鍾’일 가능성이 높다. ‘助背’는 ‘조배’로서 지소적인 의미 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 한 예로 경상도 방언에 ‘조배무시’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발 사이에 무를 심어 볼 품도 없고, 작고 둥근 것을 지칭한다. 즉 ‘조발무시, 조박무시, 조배무시’ 등의 방언형에서 ‘조배’는 ‘조배마치’의 ‘조배’와 의미가 상통한다. 이것을 이덕봉(1963b:8)은 ‘조배방마치’, 최범훈(1976:342)은 ‘조비방마치’, 남풍현(1981:134)은 ‘도(조)비마치’, 이은규(1993:154)는 ‘도비마치’로 각각 해독한 바 있다. (c)는 ‘蒲(부들:훈독,<신합상 7>) 鍾(마치:훈독) 花(꽃:훈독) 上(우흥:훈독) 黃(누르-:훈독, 누르→누른) 粉(マㄹ:훈독)’ 즉 ‘부들마치꽃우희누른마ㄹ’로 해독된다. 여기서 ‘우흥’에 조사 ‘의’가 들어 갔다. 이것은 ‘부들+마치+꽃+우희+누른+마ㄹ’로 분석된다. (k)에서는 ‘蒲鍾’을 ‘부들’로 擬訓讀했고, ‘黃粉’을 ‘술가루’로 擬訓讀했다. 부들꽃

39) 남풍현(1981:134) 참조.

솔가루는 ‘부들+꽃+솔(松花처럼 누런)+가루’로 분석된다. 그리고 ‘次乙皆’는 ‘次(次:음가) 乙(乙:음가)皆(기:음가, <신합상 20>) ‘잘기’로 解讀되어⁴⁰⁾ 부들의 순이나 蒲黃의 싹으로 이해되나, 命名의 緣由를 알 수 없다.

(55) 黃芩 / 腐腸, 空腸, 內虛, 黃紋, 經芩

- a. 所邑朽斤草 (향구上 7)
- b. 精朽草 (향구目 2)
- c. 裏朽斤 (향월 7), 裏腐 (향월 2)
- d. 內朽草 (촌가), 裏朽草/속서근풀 (촌구 24)
- e. 속서근풀뿔휘 (구간 2-107)
- f. 속서근풀 (우마 12)
- g. 속서근풀 (우마 12) (동탕 728) (제중 8-2) (방약 262)
- h. [鄉名] 裏朽斤草 (속썩은풀). (향본 40)
- i. 속썩은풀 (식명 300)
- j. 꼴무풀

黃芩은 꽃이 피면 향이 짙고 벌이 많이 찾아온다. 뿌리의 색이 黃色인 것이 漢語名の 命名의 근거가 된다. 이 藥草는 심은 지 三年이 지나면 속이 썩는다고 한다. 이 사실은 異名 ‘腐腸, 空腸, 內虛’에서도 알 수 있다. 借字表記에서 ‘所邑:精:裏:內’가 對應된다. 가장 先代形 ‘所邑’은 音借되어 ‘습’이고 나머지는 訓借되었다. ‘습’은 ‘습오사라(裏衣也) <능엄 5-19>, 습리(裏) <훈몽하34>’에서 ‘裏’字의 뜻으로 현대어의 ‘속’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地名중 ‘裡里’를 아직도 그 지방 사람들이 ‘습리’라고 하고 있어 ‘ㅂ’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향약명 ‘습서근풀’의 ‘습’과 관계되는 것이다. 또 ‘朽斤:朽:腐’가 대응된다. ‘腐, 朽’는 지금은 ‘썩다’의 ‘썩-’의 뜻으로 쓰고 있으나, ‘朽는 서글씨라 <月印釋譜序24>, 서글 부(腐) <훈몽하50>’에서 보이듯이 古語에서는 ‘식-’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先代形 ‘朽斤’을 訓讀하여 그 대표형을 ‘서근’으로 삼는다. ‘斤’은 ‘서근’의 末音節을 添記한 것이다. ‘草:艸’의 對應은 異表記로 訓讀되어 ‘풀’이다.

40) 김두찬(1983:140) 참조.

(a)는 ‘所(소:음가) 邑(읍:약음가) 朽(석:훈독) 斤(근:음가) 草(풀:훈독)’ 즉 ‘숨서근풀’로 解讀된다. ‘裹朽斤少’도 ‘숨서근풀’로 解讀된다. (b)는 ‘精(습:훈독, 습정<훈몽) 朽(석:훈독, 석-석은) 草(풀:훈독)’ 즉 ‘숨석은풀’로 解讀된다. ‘裹腐少’도 ‘숨석은풀’로 解讀된다. ‘숨서근풀>속서근풀’에서 ‘습~속’의 ‘ㅍ→ㄱ’ 변화는 異化作用에 의한 것이고, ‘풀>풀’의 ‘->ㅍ’ 변화는 원순모음화에 의한 것이다. 현재는 黃芩으로 많이 불리며, 俗名 ‘골무풀’의 名稱은 이 풀의 꽃이 골무같이 생긴 데서 緣由된다.

(56) 黃耆 / 獨槿, 蜀脂, 黃芪

- a. 甘板麻 (향구中 14) (향구目 2) (향집 78)
- b. 든너삼불취 (구간 1-93)
- c. 든너삼불취 (동탕 723)
- d. 단너삼불취 (방약 1)
- e. [鄉名] 甘板麻(단너삼)뿌리. (향본 32)
- f. 횡기, 단너삼, 든느삼

(a)는 ‘甘(돌:훈독, 돌감<훈몽하14), 돌→든) 板(널:훈독) 麻(삼:훈독)’ 즉 ‘든널삼’으로 解讀된다. 후대에 와서 ‘든’이 ‘단’으로 改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과 방언형의 ‘든’은 ‘든>단, 든>든’으로 설명된다(‘板’은 앞의 ‘苦蔘’항을 참조). ‘麻’는 ‘麻曰三<제림)’이고, 15세기어는 ‘열’과 ‘삼’의 두 형태가 있으나 고구려어에서는 ‘麻’의 훈이 ‘널삼[尼沙]’이다.⁴¹⁾ ‘널’에 해당되는 借字 ‘板’이 ‘麻’에 첨가되었다. *널삼은 *널습>*널삼>너삼>너삼’으로의 변천과 *널습>널삼>너삼’으로의 변천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板麻[널삼/너삼]’은 ‘苦蔘’의 鄉名이다. ‘黃耆’와 ‘苦蔘’은 外形이 비슷한 데서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식물명을 이용하여 命名하고 있다. 즉 ‘甘+板麻’로 분석된다. 단너삼뿌리는 ‘단(달다,甘)+너삼(널삼의 ‘르’탈락)+뿌리’로 분석된다.

41) 유창관(1980:310) 참조.

(57) 萱草根 / 黃花菜, 橙黃玉簪

- a. 你叱菜(향집 79)
- b. 넘나물(사성下 11)(훈몽上 5)
- c. 원추리又名 넘늑물(동탕 737)
- d. 넘늑물 黃花菜(역어下 11)
- e. [鄉名] 仍叱菜(넘나물)·원추리뿌리.(향본 58)
- f. 원처리, 놀구서리, 놀구새, 원추리⁴²⁾

이 풀은 봄에 일찍 나물로 이용되는 것으로 몸을 가볍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잎이 넓고 큰 것을 ‘원추리’라 하고⁴³⁾ 잎이 좁고 작은 것을 ‘놀구서리’ 혹은 ‘놀구새’라 한다. (a)는 ‘你(너:훈가)叱(스:약음가)菜(늑물:훈독)’ 즉 ‘넛늑물’로 解讀된다. 후대에 오면서 ‘넛늑물>넛나물’로 되어 ‘스’이 ‘ㄴ’앞에서 ‘ㄴ’으로 바뀌었고, ‘넛나물>넘나물’에서는 ‘ㄴ-ㄴ’ 중출로 인해 하나의 ‘ㄴ’이 다른 음운 ‘ㄹ’으로 변천했음을 보여주고, ‘넛나물>넘나물’에서는 ‘ㄴ→ㄹ/ㄴ’의 자음동화와 ‘ㄴ→ㄷ’의 원순화를 보이고 있다. ‘넘나물’은 ‘잎이 넓다’는 데에 그 命名의 緣由가 있다고 본다. 이 鄉藥名 表記에서 語源을 밝혀 表記하려는 痕迹을 찾을 수 있다.

2) 木 部

(58) 櫛若 / 鐵櫛木, 靑工樹

- a. 所里眞木(향집 80)
- b. 소리참나모(사성下 57)(훈몽上 5)(역어下 41)
- c. [鄉名] 所里眞木(조리참나무늑)(향본 73)

(a)는 ‘所(소:음가)里(리:음가)眞(참:훈독)木(나모:훈독)’ 즉 ‘소리참나모’로 해독되나, ‘소리참나모’로도 解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소

42) 東南方言形에 대해서는, 孫炳胎(1992:6) 참조.

43) 원추리는 漢語名 ‘萱草’에서 訛傳된 풀이라 여겨진다. 즉 ‘원초>원초>원초리>원추리>원처리’와 같이 ‘ㅎ’음의 弱化和 ‘리’의 접미를 거쳐 발달되었다고 추정된다.

리>조리'의 음운 변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所里+眞木'으로 분석할 수 있어 '所里'는 漢語 異名 '鐵櫟'의 '鐵'에 대응되고, '眞木'은 '鐵櫟'의 '櫟(상수리나무, 참나무)'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소리 참나무'는 '상소리나무'와 '참나무'의 혼태형으로 여겨지며, '소리(상소리)+참나무'로 분석된다.

(59) 酸棗 / 山裏棗

- a. 三彌大棗 (향구목 5)
- b. 三彌尼大棗 (향월 9) (향집 80) (향성 639)
- c. 酸棗加柴 白蕪 (향성 647)
- d. 山大棗 / 산대초 (촌구 59)
- e. 예초씨습 酸棗仁 (구간 1-13)
- f. 신대초 俗呼實曰酸棗亦曰鼻菟團又曰山裏棗 (훈몽상 6)
- g. 뫏대초씨 (동탕 739) (방약 318)
- h. [鄉名] 三彌尼大棗 (뫏대추씨) (향본 61)
- i. 메대추나무, 뫏대추, 살매, 산매 (식명 595)
- j. 살맹이씨(평북), 산뫏대추, 산미추, 산미잇대추

산조의 씨앗은 수수알만한 크기에 둥글납작한 모양이고 껍질이 연하다. '白蕪'은 극침으로 뫏대추나무 가시를 말한다. (a)는 '三(삼:음가, 산-삼) 彌(미:음가, 뫏-미) 大(대:음독) 棗(조:음독)' 즉 '삼미대조'로 解讀된다. 산의 의미가 중첩되어 산 속의 대추를 의미한다. <훈몽>의 '山裏棗'는 이를 방증한다. '三彌'에 대해서 남풍헌(1981:85)에서는 '極小'의 뜻으로 '남자 소년'을 지칭했고, 최범훈(1977b:8)에서는 '뫏(산)'와 관련 있는 것으로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b)는 '三(삼:음가) 彌(미:음가) 尼(니:음가) 大(대:음독) 棗(조:음독)' 즉 '삼미니대조'로 解讀된다. 방언형에 '산미잇대추, 산뫏대추, 산미이대추'등이 있어 傍證된다. (c)는 '酸(쉰:훈독) 棗(대조:훈독) 加(가:음가) 柴(식:음가)' 즉 '신대조가식'로 解讀된다. '加柴'는 현대어의 가시[荊]의 借字表記이며 앞에서 '大小薊'의 '大居塞', '曹方居塞' 등의 '居塞'에 해당된다. 즉 '加柴'는 '居塞'의 異表記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신대조가식>신대초가식>신대추

가시'로 발달했다. (a)(b)(d)에서 '大棗'는 공통이고 (d)의 '山'에 대응되는 것은 '三'과 '彌'이다. 그래서 '三'과 '彌'는 '山'의 의미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 형이 굳어져서 후대형의 傳來民間形에 '산매, 살매, 살맹이'가 나타난다. '살맹이'는 다음 두 가지로 설명이 된다. 첫째, (b)의 '三彌尼'에서 '口-口'의 '口' 중첩으로 인해서 '삼미니>살미니'로 되어 여기에 '-앙이'가 접미되면서 '니'가 탈락하여 '살미+앙이>살미앙이>살맹이'로 된다. 평북 방언에 송편을 '살미떡'이라 한다. 송편은 속을 가득 넣어 만든다. 산조인도 껍질속에 씨가 가득 들어 있어 '살미떡'에 비유된다. 그래서 '살맹이'라 命名된 듯하다. 둘째, '어울리지 않게 작다'는 의미로 '살망하다'가 있다. 여기서 '살망'에 명사형성 접미사 '이'가 첨가되고 움라우트에 의해 '살망+이>살망이>살맹이'로 되어 指小的 意味를 지닌다.⁴⁴⁾ 지금도 북한에선 酸棗仁을 '살맹이씨'라고 한다. 이것은 '三彌', '三弥'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大棗는 국어에 차용되면서 '산대조>산대초'로 격음화된 것으로 보인다. 조성오(1983:61)에서는 '삼미니대조'를 '사미니대조'로 解讀하여 '사미니'를 '여자 소년'에 해당된다고 하여 남풍현(1981)의 견해를 따르고, 이은규(1993:95)에서는 '산뿔대조'로 解讀하여 '산'을 '酸/시다/쓰다'의 뜻으로 해독했다. '三'을 '시다'의 의미로 본다면 (f)와 같이 '썬'으로 해독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산미니대조'의 '산'(여기서는 '三'字)을 유연성을 고려하여 '산(山)'의 意味와 '살미', '살망'의 '살'字로 파악하였다. 이들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解 讀 者	借 字 分 析	意 味 分 析	비 고
최범훈	三彌尼十大棗	뿔뿔대조	삼:뿔
남풍현	三彌尼十大棗	사미니(극소)대조	삼미:소년
조성오	-	-	삼미:소녀
이은규	三彌尼十大棗	산(酸)뿔(山)대조	삼:酸, 미:山
필자	三彌尼十大棗	산(山)뿔(山)대조	삼:山, 미:山
필자	三彌尼十大棗	살미(가득찬속)대조	살미+앙이+대조
		살망(指小的)이	살망+이>살맹이

(60) 橡實 / 欒木子,⁴⁵⁾ 櫟實

- a. 猪矣栗 (향구미 4)
- b. 加邑可乙木實 (향집 80)
- c. 도토리 상橡 (훈몽서 11), 덩갈나무 欒(훈몽서 6)
- d. 굴근도토리 橡實 (동탕 745)
- e. 덩갈나무껍질 欒樹皮 (역어하 41)
- f. 상술리 (물보 12)
- g. 상소리 (의손부 33) (방약 334)
- h. [鄉名] 加邑可乙木實(떡갈나무열매). (향본 73)
- i. 참나무, 상수리나무 (식회 119)
- j. 상시리, 속수리 꿀밤

橡實은 상수리나무의 열매로 ‘상수리’라 하고, 일반적으로 참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통털어 ‘도토리’라고 한다. 떡갈나무는 참나무의 한 종류로 열매에 알받침이 있다. (a)는 ‘猪(돌:훈독)矣(의:음가)栗(밤:훈독)’ 즉 ‘돌의밤’으로 解讀된다. <三國史記>의 고구려 고장 이름에 ‘猪足縣一云烏斯廻’가 있는데 여기서 ‘烏斯廻:猪足’이 대응된다. <제림 93>에 ‘猪曰突’이라고 되어 있어 ‘猪’의 古形은 ‘突(뚫-돈-돌)’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함북 방언에 돼지의 고형인 ‘돌’의 형태로 ‘도투, 도티, 돛티, 돌, 도투바우(돼지처럼 우둔하고 바위처럼 무뚝뚝한 사람) 등’의 방언형이 있다.⁴⁶⁾ 현대어 돼지는 고려어의 ‘突(돌)’과 15세기어의 ‘뚫’에서 발전하였다. 후대형 ‘도토리’는 돼지를 부를 때 ‘돌돌’을 고려하면, ‘뚫+돌+이>돌돌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뚫’은 ‘돌돌’이 변한 말이다. (안옥규, 1994:101) (b)는 ‘加(더:훈가)邑(뵈:음가, 음→뵈)可(가:음가)乙(르:약음가, 을→르)木(나무:훈독)實(여름:훈독)’ 즉 ‘덩갈나무여름’으로 解讀된다. 후대로 오면서 ‘덩갈나무여름>*떡갈나무여름>*떡갈나무열매>떡갈나무열매’로 변천 과정을 보이는데, ‘뵈>ㄱ’의 변화는 문헌상으로는 <향집>의 複製本(1942)에서 보인다. 한글표기 ‘상수리’라는 名稱은 漢語 ‘상실(橡實)’의 ‘橡’과 고유어 ‘상소리/상소리’의 ‘소리’와의 合成 즉 ‘상(橡)

45) [圖經] 曰 橡實欒木子也<향본 73>.

46) 김태균(1986:168-169), 함북방언사전, 경기대출판부 참조.

十소리>상소리>상수리'에 의해 造語된 것이다.⁴⁷⁾ '도토리, 상수리'는 전래민간형의 鄉藥名이라 할 수 있다. 민은숙(1982:37)에서는 방언형 '꿀밤'의 어원을 '꿀꿀이밤>꿀밤'으로 추정하여 '猪矣栗/돌의밤'의 解讀에 대한 傍證 資料로 인정할 만하다.

(61) 郁李仁 / 車下李, 爵李, 雀梅

- a. 山叱伊賜羅次 (향구上 12)
- b. 山梅子 (향구目 4) (향월 5) (향집 80)
- c. 郁李仁 山梅子 / 산미즈씨 (촌구 55)
- d. 산미즈 (구간 2-30)
- e. 밋이스랏 (동탕 3-40) (제중 8-15)
- f. 밋이스랏 郁李樹 (역어下 41)
- g. 산미시 (산림 502)
- h. [鄉名] 山梅子(산매자 나무) · 이스랏씨. (향본 72)
- i. 이스라치씨 郁里仁 (동사 1142)
- j. 오얏, 벗나무, 산개벗지나무, 옥리인

(a)는 (e)(f)를 통해 볼 때 '山(되; 訓讀)叱(스:略音假)伊(이:音假)賜(스:音假)羅(라:音假)次(스:略音假)' 즉 '밋이스랏'으로 解讀된다. 15세기의 '이스랏(櫻桃)'과의 대응에서 '次'는 '스'末音表記字임을 알 수 있다.⁴⁸⁾ '밋이스랏'의 '랏'과 (e)(f)에서 '밋이스랏, 밋이스랏'에 나타난 '랏'의 '스>스'은 音節末 破擦音이 摩擦音化된 것이다. (b)는 音讀하여 '산미즈'로 되며, '산미즈'는 다시 '산매자'로 되었다. 鄉藥名으로 '이스랏, 산매자, 옥리인'이 共存한다. 後代에는 '밋이스'의 接頭辭인 '되'가 탈락되고 接尾辭 '이'가 결합되어 '이스랏>이스라치>이스라치'의 변화 과정을 보인다. '山梅子'의 '子'는 '씨'를 意味하는데 '씨'의 意味가 重複된 '산미즈씨'형태와 '즈'와 '씨(시)'로 바뀐 '산미시'의 불완전한 형태도 보인다. 후대형에 '이스라치'가 나타나니, (a)의 '次(스)'이 점차 有氣音 '츠'으로 변천했다고 본다.

47) 방언형 '상시리'는 '橡實+이>상실이>상시리'의 과정으로 설명된다.

48) 남풍현(1981:105) 참조.

(62) 皂莢 / 猪牙, 皂角(동탕3-39), 牙皂

- a. 注也邑 (향구上 6)
- b. 鼠厭木實 (향구目 7)
- c. 走葉木 (향월 9)
- d. 주엽 (우마 13)
- e. 주엽나모여름 (동탕 745)
- f. 주엽나모 角樹 (사성下 41)
- g. [鄉名] 주엽나무 · 아재베과질나무 (향본 71)
- h. 조각자나무

(a)는 '注(주:음가)也(야:음가)邑(비:약음가)' 즉 '주압'으로 해독되지만 모음조화를 고려하면 '주엽'으로 된다. (b)는 '鼠(쥐:훈독)厭(염:음가)木(나모:훈독)實(여름:훈독)' 즉 '쥐엽나모여름'으로 해독된다. 여기서 '쥐엽'은 瘻의 音에서 訛傳된 借用語임을 알 수 있다. '엽'은 '주엽나모'의 'ㅂ'말음이 'ㄴ'에 동화되어 'ㅁ'으로 변동된 것이다. 'ㅂ>ㅁ'의 변화는 '細辛'이 '洗心'으로 표기된 것과 齊를 같이 한다. 또 이중모음을 가진 '鼠'는 '주엽나모'의 '주' 다음 음절 '엽'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d)(e)는 (c)의 번역을 충실히 한 결과로 보인다. 또 '鼠厭:猪牙皂莢'이란 기록이 있다.⁴⁹⁾ '쥐엽'은 '돼지의 어금니나, 쥐의 이와 같다'는 데에서 그 命名의 緣由를 찾을 수 있다. 즉 '鼠厭(쥐엽)'은 '鼠牙(쥐엽)'라고 보는 것이다.⁵⁰⁾ '쥐엽'은 '쥐엽>쥐엽'으로 'ㅅ'가 삽입되는 당시 현실음을 반영한 표기라 여겨진다.

(63) 蜀椒 / 川椒, 胡椒, 秦草, 芭椒, 漢椒, 崖草, 山椒

- a. 眞椒 (향구目 7)
- b. 椒皮 (향집 80)
- c. 川椒 / 전초 (촌구 60)
- d. 조피여름 川椒 (구간 2-33)
- e. 조피 椒, 고초 胡椒又川椒秦皮蜀椒 조피, 분디曰山椒 (훈몽上 6)

49) [唐本註] 云此物有三種猪牙皂莢最下其形曲 (향본 71)

50) 이은규(1993:131)에서 '皂莢'의 모양을 '쥐나 돼지의 어금니와 같다'고 하고 '鼠牙'를 기본형으로 推定하고 있다.

- f. 초피나모여름 (동탕 743)
- g. 난디 즉 山椒 (물명 4-125)
- h. 난테, 난디(군위방언), 분지, 산추, 재피(경주방언), 지피, 초피.

(a)는 ‘眞(진:음독) 椒(조:음독)’ 즉 ‘진조’로 해독된다. ‘조’는 ‘초피’에서와 같이 아직 유기음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것은 상위구별표지 ‘椒’에 특징 명시 하위구별표지 ‘眞’이 부가된 것이다. (b)는 ‘초피’로 해독되어 후대의 ‘조피’와 ‘초피’로 이어진다. ‘초피>조피’와 ‘조피>초피’를 들 수 있다. 여기서 ‘ㄴ>ㄷ’의 單母音化와 ‘스>츠’의 有氣音化를 찾아볼 수 있다. 한어 異名 ‘山椒>산추’로 되었다. ‘분디’는 ‘분디>분지’로 변천하여 구개음화를 보여준다. ‘眞草/秦椒’와 ‘山椒’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前者는 方言으로 ‘재피’ 혹은 ‘초피’라 부르며, 食生活에서 김치나 鱖魚湯 같은 飲食物에 加味하여 독특한 짬을 내게 한다. 反面에 後者는 方言으로 ‘산추’, ‘난테/난디’, ‘분지’ 등으로 부르며 주로 열매의 기름으로 藥用한다. <향구>이래 方書의 藥材에서는 川椒와 蜀椒를 分揀하지 않고 같은 藥材名으로 取扱하다가, 食用으로 利用할 때는 分揀하여 취급한 것 같다. 이들은 외형으로는 매우 類似하여 分揀하기 어려우나 냄새를 맡아서 分揀할 수 있다. ‘椒’에서 意味 分化가 일어나 食生活의 용도에 가치가 큰 것은 ‘眞’ 字를 부가하여 ‘眞椒’라 命名했고, 食用 가치가 떨어지고 藥用으로 이용할 때는 ‘山椒’ 또는 그 異名인 ‘漢椒’등으로 命名되었다.

3) 果 部

(64) 芡仁 / 鷄頭實

- a. 居塞蓮 (향집 84) (향월 9) (촌가)
- b. 거식년밥 芡仁 (동탕 711)
- c. 가시련 (훈몽上 12)
- d. 가시연밥 (산림 133)
- e. [鄉名] 居塞蓮(거식련밥). (향본 118)
- f. 감실, 가시연밥

芡仁은 가시연의 種子인 ‘가시연밤’으로 과실의 크기는 주먹만하며, 그 외관이 鷄頭와 類似함으로 鷄頭實이라는 異名이 있다. 모양은 石榴와 같으며 外皮는 청흑색, 내부는 백색으로 그 안에 많은 씨가 들어 있다. (a)는 ‘居(거:음가) 塞(시:음가) 蓮(련:음독)’ 즉 ‘거시련’으로 解讀된다. ‘居塞’는 ‘가시’를 의미하며 이 향명의 특징명사하위구별표지로 語源의 근거가 된다. 여기에 ‘밤, 밤’이 접미되어 ‘가시련밤,가시련밤’이 된다. ‘거시련밤’의 ‘련밤’은 마름의 ‘말밤’에서 類推된 것으로 보이고, 그 모양이 닭의 머리갈기 때문에 ‘鷄頭實’이라는 異名이 있다.⁵¹⁾

(65) 覆盆子 / 蓬藥, 陵藥, 陰藥⁵²⁾

- a. 末應德達 (향월 5)
- b. 末應德達汝注乙 (향집 84-5)
- c. 末應德達只 / 멩덕달기 (촌가 56)
- d. 멩덕딸기 (구간 6-12), 蓬藥 (동탕 711)
- e. 나모딸기 (동탕 2-19)
- f. 나모딸기 (경험 2)
- g. 나모딸기 (제중 8-15)
- h. 곰딸기, 멩더리딸기 (물명 3-26)
- i. [鄉名] 나무딸기 (향본 119)
- j. 蓬藥 [鄉名] 末應德達汝注乙 멩덕(멍석)딸기. (향본 118)
- k. 뽕곰딸, 복분딸, 배국딸

(a)는 ‘末(머:약음가, 마→머) 應(ㅇ:약음가, 음→ㅇ) 德(덕:음가) 達(달:음가)’ 즉 ‘멩덕달’로 解讀된다. (b)는 ‘汝注乙’이 ‘汝(너:훈가) 注(주:음가) 乙(르:약음가)’로 되어 ‘멩덕달너출’로 해독된다. ‘너출’은 ‘한삼너출<사성상70>, 藤蓂 너출<훈몽상14>’에서와 같이 후대에 ‘너출’로 바뀐다. (c)는 ‘只(기)’가 附加되어 ‘멩덕달기’로 解讀된다. ‘멩덕’은 짚으로 바가지 모양으로 틀어 만든 器物이다. 따 낸 딸기의 모양이 흡사 멩덕같이 생겼기에 ‘멩덕달기’라고 命名한 것이다. ‘멍석딸기’의 ‘멍석’은 ‘멩덕’과

51) [圖經]曰鷄頭實葉大如荷葉而有刺俗謂之鷄頭盤花下結實其形類鷄頭故以名之 (鄉本 118).

52) 久服輕身不老一名覆盆一名陵藥一名陰藥. 圖經曰蓬藥覆盆苗莖也 <향본 119>

名稱이 類似한 관계에 의해서 비슷한 器物인 ‘멍석’을 類推하여 命名한 것이다. 실제로 ‘멍덕’과 ‘멍석’은 짚으로 만들어 곡식을 담는 접은 같지만 모양은 전혀 다르다. ‘탈기, 뜰, 썰’에서와 같이 語頭字音群 ‘ㅁ’와 ‘ㅂ’이 공존하고 있다. 방언형 ‘뽕꿈달’은 漢語 ‘覆盆’과 고유어 ‘달’이 合成된 ‘복분달’이 변한 것이다.⁵³⁾ ‘복분달’은 빼꾸기가 올 무렵 익기에 意味間의 時間의 인접에 의한 名稱의 변화이다.

(66) 菱實 / 菱仁

- a. 末栗 (鄉月 無)
- b. 말밤 (월인석보 21-80)
- c. 말음열매 (향성 697) (동탕 711)
- d. [鄉名] 말음열매. (향본 119)
- e. 말뱅이(함경), 마래미(평안)

(a)는 ‘末(말:음가) 栗(밤:훈독)’ 즉 ‘말밤’으로 解讀된다. 15세기 정음 표기에 ‘말밤’이 있었으므로 당시 이 식물의 현실음 ‘말밤’이었으리라 추정된다. 두 모진 것을 ‘부름’이라 하고, 네 모진 것은 ‘마름’이라고 한다. 후대로 오면서 ‘말밤>말밤>말왈>말암’으로 변천하여 ‘b>β>ω>∅’의 변천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말암’은 ‘말음’ 또는 ‘마름’으로 되었다.

4) 穀 部

(67) 靑梁米 / 靑精米

- a. 生洞粘 (향집 84)
- b. 生洞粘粟 싱동츠조 (금양 11) (금양 52) (벽신 12)
- c. 升伊應同小豆 싱동똥 (금양 47)
- d. 싱동찰 梁靑梁粟 (훈몽상 7)
- e. 찰살粘 (단방 42)
- f. [鄉名] 生洞粘(생동찰)·청정미. (향본 126)

53) ‘복분달>복군달>보꿈달>보꿈달>뽕꿈달’로 발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a)는 ‘生(싱:음가) 洞(동:음가) 粘(출:훈독)’ 즉 ‘싱동출’로 解讀된다. ‘싱동출>생동찰’은 이삭에 털이 있고 낱알이 잘며 푸른빛을 띠는 차조를 일컫는다. (b)는 ‘싱동출조’에서 ‘르’이 탈락되어 ‘싱동초조’로 된다. (c)는 ‘升(스:약음가, 승→스) 伊(ㅣ:음가) 應(ㅇ:약음가) 同(동:음가) 小豆(뫏:훈독)’ 즉 ‘싱동뫏’으로 해독된다. 여기서 ‘應’이 ‘ㅇ’음인 것이 특이하다. 또 ‘小豆/뫏’은 <구급하 92> <물명 73> <훈몽상 7>에서 확인된다. ‘早小豆/올뫏 <산림 123>’ ‘赤小豆花/붉근뫏꽃 <동탕 1-22>’에서도 ‘小豆/뫏’의 用例는 같은 系統이다. ‘小豆花/뫏꽃 <향구상 7a>’의 異名에는 ‘腐婢花’가 있다. ‘花’가 ‘꽃’인 것은 ‘瓜花粟/윗고지조 <금양:50>’에서 ‘고지’의 形態가 있어서 ‘고지>꽃’으로 導出해 낼 수 있다. ‘靑精米, 靑梁米’는 ‘생동찰의 쌀’ 혹은 ‘생동쌀’을 일컫는다. ‘찰쌀’은 ‘차쌀’, ‘차쌀’, ‘참쌀 (찰쌀>참술>참쌀>참쌀)’로 바뀐다.

5) 菜部 鄉藥名

(68) 苦苣 / 野苣, 福苣

- a. 高苣 紫夫豆菜 (향구하 41) (향구목 5)
- b. 苦苣 愁伊禾 (향집 85-7)
- c. 白苣 斜羅夫老 (향집 85-21)
- d. 부루 高苣 (구급상 58) (동탕 716)
- e. 쓴부루, 苦苣 (구급하 78)
- f. 식화불취 苦苣根 (구간 2-60)
- g. 부루 高, 부루 苣 (훈몽상 14) (색경 355) (군목 6)
- h. 식화, 苦苣 卽 野苣 也 (동탕 716)
- i. 부로, 高苣 (산림 155) (물명 84) (역어하 96)
- j. 상추, 高苣 (의손 30)
- k. 상치, 高苣 (방약 327)
- l. 싱치, 생치 (단방 4), 상치 (단방 24) 상취 (단방 21)
- m. 싱치, 생채 (식취 361)
- n. [鄉名] 愁伊花(식화) · 고жат비기. (향본 133)
- o. 白苣 [鄉名] 斜羅夫老(부루) · 생치. (향본 139)

- p. 방가리풀, 苦苣 (동사 72)
 q. 부루, 불기 (함경방언), 상추

苦苣, 蒿苣, 白苣, 紫苣 등은 맛과 형태, 색에 따른 苣의 異名이다. (a)는 ‘紫十夫豆十菜’로 분석되며 ‘紫(즈:음독) 夫(부:음가) 豆(두:음가) 菜(느:음독)’ 즉 ‘즈부두느몰’로 해독된다. ‘夫豆(부두)’는 후대형 ‘夫老(부로/부루)’와 대응되어 ‘ㄷ>ㄹ’의 유음화현상을 보여준다. (b)는 ‘愁(스/수:음가) 伊(이:음가) 禾(화:음가)’ 즉 ‘식화’로 해독된다. (c)는 ‘斜羅十夫老’로 분석되며 ‘斜(사:음가) 羅(라:음가) 夫(부:음가) 老(로:음가)’ 즉 ‘사라부로’로 해독된다. 여기서 ‘사라’는 ‘白(송)’과 관련이 있다. ‘斜羅’는 音假借되었기에 ‘白’과 관련하여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紗羅로 얇은 紗붙이의 비단 같은 색을 연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沙羅樹의 ‘沙羅’라는 佛敎用語를 차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사라수 잎의 길고 둥근 달걀 모양과 색깔을 聯想할 수 있다. ‘苣’에는 ‘白苣, 苦苣, 蒿苣, 野苣’가 있는데 白苣는 잎에 흰 털이 있고, 흰 줄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부루(생치)’라 지칭한다.⁵⁴⁾ 苦苣는 맛이 쓰기 때문에 들상치로 불리었다. 그 異名에 野苣가 있다. 蒿苣는 白苣와 비슷하지만 잎이 뾰족하며 자색이다. 鄉藥 藥材로는 苦苣가 上品이고 白苣와 蒿苣는 下品에 속한다. 이들 鄉名의 대표형은 ‘부로’이다. 그 잔영이 함경 방언의 ‘불기’로 남아 있다.⁵⁵⁾ 현대어에는 ‘부루’가 ‘상치/상추’로 불려진다.

(69) 萊菔 / 蘿蔔,⁵⁶⁾ 富子, 唐青子, 芴富子

- a. 唐菁實 蘿菔子 (향구상 13)
 b. 唐菁 一名 萊菔根 (향구목 4) (향집 85)
 c. 댕무수민 (구간 2-82)
 d. 蘿 댕무수 (훈몽상 14)
 e. 댕무수민 蘿蔔 (우마 14)
 f. 댕무우 (동탕 715) (언두下 42)

54) 陳藏器云 白苣似蒿苣 葉有白毛 (향본 133)

55) 김태균(1986:293) 앞의 책 참조.

56) 唐本註云…俗呼爲蘿蔔…(향본 132)

- g. 대무우 (색경 348)
- h. 댕무우 (역어下 10)
- i. 단무우 蘿菔根 (산림 597)
- j. 무우 蘿蔔 (단방 24) (식명 411)
- k. [鄉名] 唐菁(댄무). (향본 132)

(a)(b)의 ‘唐菁’은 ‘唐(대:훈독)菁(무형:훈독 <훈몽상7>)’ 즉 ‘대무우’로 解讀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唐’이 ‘대’로 訓讀되는 것이다. 그 용례는 ‘唐榘伊/대파리(地膚子)’가 있다. 이것은 藥材의 原產地나 傳來地를 표시하고 있다. 즉 당시에는 中國産에다 ‘唐’자를 冠하던 慣例가 있었다. 또 狄小豆/티팍의 ‘狄’이 ‘티’로 읽히는 것은 ‘되놈/뒛놈/뒛놈/댄놈/뎌놈’이라고 하는 ‘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글 표기 ‘대무우’는 ‘대(唐)十人十무우(菁)’로 분석되며 ‘人’은 屬格音이다. 이것은 ‘티무우>대뎌무우>댄뎌무우>무우>무’로 변천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대뎌무우>댄뎌무우/단뎌무우’의 ‘人’의 絶音化로 인한 ‘人>ㄴ’의 子音同化와 ‘△>○’에서 ‘△’의 약화 현상을 찾을 수 있다. ‘대뎌’는 지금 강화도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蘿菔은 新種으로서 ‘唐/대’를 ‘무우’앞에 附加하여 ‘唐菁實/대뎌무우씨’로 불렀다.

(70) 蕪菁 及 蘆菔/ 蔓菁, 蘿蔔

- a. 眞菁實 蔓菁子 (향구中 30) (향구目 4)
- b. 蔓菁花 (향제 7), [鄉名] 眞菁實 蔓菁子 (향제 3) (향제 5) (향제 6)
- c. 禾菁 (향집 85)
- d. 숫무우 (분문 4)
- e. 숫무우 蔓菁子 (두창방 13)
- g. 쑤무우 (간벽 15)
- h. 쑤무우 蔓菁 (역어下 10) (산림 153) (색경 346) (동탕 715)
- i. 숫무우씨 (방약 325)
- j. 무 (군목 6)
- k. [鄉名] 쑤무. (향본 131)

蕪菁은 蔓菁의 異名이 있고, 蘆菔은 蘿蔔의 異名이 있다.⁵⁷⁾ (a)(b)는 ‘眞(츄:훈독) 菁(무수:훈독) 實(삐:훈독)’ 즉 ‘츄무수씨’로 해독된다. 여기서 ‘眞’은 ‘蘿蔔’을 ‘대(唐)菁’로 하여 外來種이라고 한 것에 반해, 蔓菁 혹은 蕪菁이 在來種으로서 ‘고유의 순수한 의미의 ‘츄무수/츄무’라는 뜻으로 接頭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b)는 <鄉藥濟生集成方>의 鄉名에 대한 유일한 자료로 주목되고, <향제>가 <향구>와 멀지 않은 시기의 方書임을 입증하고 있다. (c)는 ‘禾(쉬:훈가, 훈몽하3) 菁(무수:훈독)’ 즉 ‘씻무수’로 解讀된다. 여기서 ‘菁’의 獨字로 二字의 訓讀이 보인다. 아마도 ‘菁’에 ‘禾’를 첨기한 것은 訓讀을 하도록 하고 ‘쉬’를 附加하여 재래종의 순수한 ‘무수’임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또한 鄉名의 命名法에서 낱자로 命名되는 예가 거의 없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蔓菁은 재래종의 무이다. 후대 한글 표기의 음운 변화를 살펴 보면 첫째, ‘대’와 ‘쉬’가 혼용되다가 本意味인 ‘씻’으로 굳어지고, 둘째 ‘무수>무우>무우>무’로의 변천에서 ‘ㅅ>ㅌ’의 유성음화, ‘ㅌ>ㅇ’의 약화 혹은 탈락 현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씻무우>뀐무우>순무’에서 ‘ㅅ>ㄴ’의 절음화에 의한 자음동화, ‘ㄱ>ㄷ’의 단모음화가 있었다.

(71) 韭⁵⁸⁾ / 竹種乳, 起陽竹, 蘿人菜 (임원 271)

- a. 厚菜 (향구上 3) (향구目 5) (향본 134)
- b. 蘇勑 (향집 85)
- c. 부치 韭菜 (구급上 25) (산림 149) (언두下 40) (동탕 717)
- d. 염교 (구간 1-17)
- e. 염규 (간벽 15) (역어下 10)
- f. 줄 (물보 6), 줄 (물명 3-11)
- g. 줄나물 韭菜 (단방 154)
- h. 부추 (식명 347)
- i. [鄉名] 蘇勑 (염지)·줄·정구지. (향본 134)
- j. 소풀

57) [圖經]曰蕪菁卽蔓菁也蘆菔卽下萊菔今俗呼蘿蔔是也(향본131)

58) ‘韭’는 부춧잎이 땅 위로 돌아 올라온 형상을 象形하였다. 오래 사는 식물이어서 ‘韭’라 하였는데 ‘韭, 久’는 공히 攀友切로 그음이 같다. ‘韭菜也 一鐘而久生者也 故謂之韭’(이돈주, 1992:177) 참조. ‘處處有之一種而久者故謂之韭’<동탕 717>

(a)는 ‘厚(구:음가) 菜(치:음독)’ 즉 ‘구치’로 해독된다. ‘厚’음은 Karlgren(1964:49-50)에서 ‘gu/hou’였으므로 上古音은 ‘非(구)’音과 동일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厚’는 ‘非’와 음이 같은 음가자이다.⁵⁹⁾ 한 자음에서 ‘ㅎ’과 ‘ㄱ’의 교체를 보이는 예는 ‘豆何非(蠙蜎)’, ‘吉刑菜實(車前子)’ 등이 있는데, 여기서 ‘何’는 ‘가’, ‘刑’은 ‘경’으로 해독된다. 후대에 ‘부치>부추’로 변천한다. ‘蘇勅’는 ‘蘇(소:음가) 勅(래:음가)’ 즉 ‘솔’로 해독된다. 방언의 ‘소풀’은 ‘솔풀’에서 ‘ㄹ’이 탈락된 것이라 보인다. ‘非’는 ‘구치, 후치, 부치’형과 ‘솔, 쫄, 줄’형으로 해독된다.

(72) 馬齒莧 / 長命菜, 五行草, 莧實, 馬莧, 莫實⁶⁰⁾

- a. 金非陵音 (향구中 18)
- b. 金非音 (향구目 5)
- c. 馬齒莧子 (향제 15), 入莧子 (향제 15)
- d. 金非廩, 莧實 非廩子 (향집 85)
- e. 쇠비름 (구간 3-4) (동탕 715) (의손 30) (방약 327)
- f. 소비듬 (광제 6)
- g. 돼지풀, 쇠비름, 도둑풀, 말비름, (식명 416)
- h. [鄉名] 金非廩 (쇠비름). 莧實 [鄉名] 非廩子(비름씨) (향본 137).
- i. 소비듬, 소비름, 쇠비듬, 비름씨

이 본초 식물의 잎 모양이 말[馬]의 이 같다고 하여 ‘馬齒莧’이라고 한다. 혹은 잎이 푸르고 줄기가 붉으며 꽃이 누르고 뿌리가 희며 씨가 검다고 하여 ‘五行草’라고도 한다. 또 이 식물은 뿌리채 뽑아 던져 두어도 다시 살아나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녔기에 ‘長命菜’라고도 부른다.

(a)는 ‘金(쇠:훈가) 非(비:음가) 陵(르:약음가) 音(음:음가)’ 즉 ‘쇠비름’으로 해독된다. (b)는 ‘金(쇠:훈가) 非(비:음가) 音(음:음가)’ 즉 ‘쇠비름’으로 해독되나 ‘ㄹ’이 삽입되어 ‘쇠비름’으로 실현된다. (d)는 ‘金(쇠:훈가) 非(비:음가) (름:음가)’ 즉 ‘쇠비름’으로 해독된다. ‘非廩子’는 ‘非(비:음가) (름:음가) 子(씨:훈독)’ 즉 ‘비름씨’로 解讀된다. (a)의 ‘陵

59) 김두찬(1983:27) 참조.

60) 久服益氣力輕身不飢一名馬莧一名莫實細莧亦同生川澤及田中葉如藍 (향본 132)

ㅍ' 2借字를 1借字 'ㅍ' 혹은 '廩'으로 대체시킨 차자 표기상의 한 특징인 개신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馬莧'은 '馬齒莧'을 의미한다. 馬齒莧은 '金非陵音, 金非音, 金非廩'으로 차자 표기되어 '쇠비름'으로 해독된다. 여기서 '金非陵音'의 '陵音'에서 '陵(르:약음가) ㅍ(口:약음가)'으로 '름'을 찾을 수 있다. 즉 '陵音:ㅍ:廩:凜'의 대응에서 '凜'은 '름'이다. 박은용(1977)에서는 '비름'의 고행을 '비듬'으로 보고 '비듬>비드미'로 추정하면서 어형 변천을 "p-t-m>p-t-p> p-d-m>p-n/r/c-m"와 같이 기술하였다. 馬齒莧의 잎 모양이 소(牛)의 비듬(牛垢)같이 생겼다는 데 語源이 있다고 생각된다. <향제>에 '人齒莧'이 나타나 이 식물의 잎 모양의 특징을 동물의 신체 일부인 이[齒]에 비유한 것이 확실하다. 동남 방언형에서도 '쇠비름'을 '소비듬'이라고 부른다. 식물 명칭에 '평의 비듬'이란 명칭이 있는데 이 식물의 잎 모양이 평의 비듬같이 생긴 데 緣由하고 있어, 이를 傍證하고 있다. '평의 비듬'은 '미치현'의 漢語名에서 '馬'란 動物名을 빌려 命名했듯이 고유어 평의 동물명을 접두시켜 命名했다. 쇠비름은 소의 거름을 쌓아둔 근처에 특히 많이 자란다. 그래서 '소'의 동물명을 빌려 '쇠비름'으로 命名했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그리고 차자 표기의 특징상 '非'와 '廩'이 音假借되고 있어, '金'도 音假借됨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金'의 의미를 訓讀의 金屬性으로 보기 보다는, 訓假字 '쇠'로 '소[牛]'의 ㅍ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73) 蘇 (紫蘇)

- a. 紫蘇實 (향구미 5)
- b. 卽 紫蘇 (향집 85)
- c. 초소기 (구급下 58)
- d. 초쇠 (구간 2-14)
- e. 초소기 蘇 (훈몽上 14) (동탕 717)
- f. 초소엽 (간벽 6) (마초下 30) (연두上 14)
- g. 초조기 (역어下 10) (제중 8-3)
- h. 들새 蘇子 (역어下 9) (물명 3-69)
- i. 들새 蘇 佳荏 (물보 5)
- j. 초조기씨 (의손 9) (방약 276)

k. 차조기, 자주깨, 붉은깨, 소엽, 자소자, (식명 806)

l. [鄉名] 차조기. (향본 136)

이 본초 식물은 소엽제로 흔히 쓰이고, 전체 색깔이 자주색이며 들깨와 흡사하다. (a)는 ‘紫(즈:음독) 蘇(소:음독) 實(삐:훈독)’ 즉 ‘조소씨’로 해독된다. (b)는 전체 색깔이 붉은 자주색이므로 ‘紫’자를 앞머리 덧붙인 것이다. 이 식물에 대응되는 향명은 ‘조소기’ ‘초소기’ ‘초조기’형과 ‘들깨’형으로 대별된다. 前者는 ‘조소’가 유기음화를 거쳐 ‘초소, 초조’의 형태로 변하고, ‘기’가 접미되어 ‘조소기>초소기>초조기>차조기’로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後者는 紫蘇 식물의 모양이 흡사 들깨 식물과 같고, 蘇의 새김에 ‘들깨’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방언형으로 ‘붉은깨, 자주깨’ 등으로 불린다. <훈몽上 14>에 ‘蘇 초소기 소 俗呼 紫蘇 又 들삐’로 되어 있어 뒷받침된다. ‘蘇’에 ‘葉’, ‘子’字가 붙어 ‘蘇葉’, ‘蘇子’로 불린다. 지금은 외래 중앙형으로는 ‘소엽’이고, 전래 민간형은 ‘깨풀, 자주깨’ 등이다. 들깨와 紫蘇의 차이는 색과 씨앗의 크기에 있다.

(74) 薺 / 菜芝, 鴻薺

a. 解菜 (향구中 19)

b. 海菜 (향구目 5)

c. 付菜 (향집 85)

d. 부치넙 (구급上 22)

e. 부치 薺菜 (구간 1-44) (역어下 10) (훈몽上 13)

f. 염교 (산림 149) (동탕 717) (물보 6)

g. 부치 非, 염교薺 (색경 353)

h. 줄뿌리 薺白 (단방 154), 줄나물 非菜 (단방 154)

i. [鄉名] 付菜 (부추) · 염교. (향본 135)

염교는 부추와 비슷하나 잎이 넓으며 흰색이 보이고 열매가 없다.⁶¹⁾ (a)(b)에서 ‘解’와 ‘海’는 음가자 ‘히’이며, ‘菜’는 음독한 ‘치’이다. 그래서 (a)(b)는 ‘히치’로 해독된다. (c)는 ‘付(부:음가) 菜(치:음독)’ 즉 ‘부치’

61) ‘似非而葉闊多白無實薺葉闊而更光故古人言薺’ <동탕 717>

로 해독된다. (a)(b)는 漢語名 ‘蕹’를 번역한 차용어 ‘히’로 여겨진다. (c)의 ‘付’는 ‘厚菜’의 ‘厚’에서 緣由한 듯하다. ‘蕹’는 앞에서 언급한 ‘韭’와 별 구분없이 함께 쓰였으며, 外形의 類似性으로 인해 名稱이 변화되고 혹은 같은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結 論

지금까지 借字表記 植物性 鄉藥名을 草部, 木部, 果部, 穀部, 菜部로 나누어 解讀하고 어원, 음운, 형태, 의미 등 국어학적 고찰을 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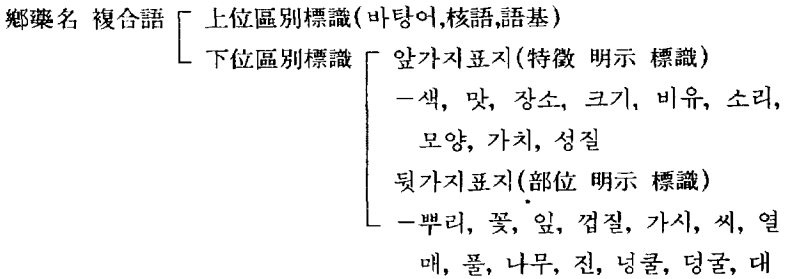
1. 鄉藥은 中國의 藥材에 대한 우리 나라 朝鮮의 藥을 總稱하다가, 서울에 대한 시골 즉 鄉村 窮巷의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藥을 의미하게 되었다.

2. 鄉名은 藥材名, 農器具名, 穀食名 등을 포함하는 말이다.

3. 鄉藥名의 借字 表記 變遷은 音借와 訓借가 바뀌지 않으면서 用字와 表記 方式만 바뀐 것이 있고, 音借와 訓借가 交替되거나 다른 이름의 語形으로 바뀐 것도 있다. 대체로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는 音, 訓借가 共存하나 鄉藥名 表記에서는 音借의 表記가 優勢한 편이다. 그리고 17세기에는 經驗方書에서 보이듯이 漢語名 表記가 다시 우세하게 되었다.

4. 鄉藥名에 사용된 借字表記字는 音讀字, 音假字, 略音假字, 訓讀字, 訓假字, 擬訓讀字로 나누어진다.

5. 形態論의 特徵은 借字表記에서 複合語를 形成하는 語彙가 많다. 이것은 上位區別標識와 下位區別標識로 나누어진다. 下位區別標識는 다시 上位核語의 왼쪽에 부가되는 藥材의 特徵을 나타내는 特徵明示 下位區別標識와 오른쪽에 붙어 藥材의 使用 部位를 나타내는 部位明示 下位區別標識로 分類된다.



6. 鄉藥名은 그 由來와 造語의 배경에 따라 크게 固有語 鄉藥名인 傳來民間形과 外來語 鄉藥名인 外來中央形으로 나누어진다.

7. 命名法의 特徵은 意味間의 類似性에 따른 命名과 意味間의 隣接性에 따른 命名으로 나누어 진다. 意味間의 類似에 의해 名稱이 變移되는 경우가 植物性 鄉藥 藥材名에 특히 많았다. 이것은 다시 그 外形의 類似에 의한 것과 機能, 特性, 性質의 類似에 의한 것으로 下位分類된다. 意味間의 隣接性에 의해 名稱이 變移되는 경우는 空間的 隣接, 時間的 隣接, 因果的 隣接으로 나누어진다. 植物性 鄉藥名은 다른 動植物이나 器物의 名稱을 比喩的으로 사용하여 命名되고 있다.

8. 本考에서는 傳來 醫方書에 나타난 鄉藥名을 수집하여 借字表記에 대한 既存의 研究 方法과 本草書에 대한 解說 및 方言形을 동원하여 지금까지 暫定的인 解讀이나 解讀이 불가능한 몇 語彙에 대해 不完全한 借字表記에 執着하여 民間語源을 동원한다든가 하여 억척을 부려 解讀을 試圖한 점이 없지 않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많은 자료를 보강하여 다듬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한 鄉藥名을 모두 수집해 國語學의 분야는 물론이고 民俗學, 固有名詞學, 動植物學, 本草學, 藥理學, 言語地理學 등의 相關 학문의 정보를 종합하여 獨自의인 鄉藥名의 語彙體系를 構築하는 것이 앞으로의 課題라고 할 것이다.

動物性 鄉藥名과 鑛物性 鄉藥名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로 더 다듬어서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 강신항(1980), <鷄林類事 ‘高麗方言’ 研究>, 서울:성균관대 출판부.
- 강헌규(1989), <韓國語 語源研究史>, 서울:집문당.
- 곽재용(1994), “유해류 역학서의 ‘신체부’ 어휘연구”, 경남대대학원 박사논문.
- 곽충구(1980), “十八世紀 國語의 音韻論的 研究”, 國語研究 제 43호, 서울대.
- 권재선(1980), “吏讀文字 ‘叱’ 考”, 남광우박사 회갑기념논총.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서울:집문당.
- 김규선(1970), “국어의 복합어에 대한 연구”, 어문학 23집, 한국어문학회.
- 김규선(1971), “國語 造語法의 類型에 관한 研究”, 대구교대 논문집 3집.
- 김동소(1982), <同文類解 語彙 索引>, 효대 출판부.
- 김두중(1963), <“鄉藥救急方”(해제)>, 도서 제 5호, 서울:을유문화사.
- 김두찬(1983), “借字表記鄉名の 通時的 研究”, 단국대 대학원.
- 김문웅(1986), <15世紀 諺解書의 口訣研究>, 대구:형설출판사.
- 김방한(1990), <語源論>, 서울:민음사.
- 김신근(1989), <韓醫藥書考>, 서울대 출판부.
- 김영만(1987), “국어초분절음소의 사적 연구”, 고려대대학원 박사논문.
- 김완진(1973), “國語 語彙 磨滅의 研究”, 진단학보 35집, 서울:진단학회.
- 김원표(1949), “보리(麥)의 語源과 그 由來”, 한글 107호, 한글학회.
- 김일훈(1994), <民俗神藥> 1. 2. 3. 4. 묶음집, 서울:광제원.
- 김종택(1992), <國語語彙論> 서울:탐출판사.
- 김중학(1988), “鄉藥 文獻에 나타난 藥材名語彙 研究,” 중앙대 대학원.
- 김중학(1992), “鄉藥 藥材名語彙의 變遷攷”, 어문논집 22, 중앙대 국문과.
- 김주원(1989), “만주 통구스제어의 모음조화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논문.
- 김주원(1994), “18세기 황해도 방언의 음운 현상”, 국어학 24, 국어학회.
- 남광우(1962), <“鄉藥採取月令”의 解讀 考察>, 문정 제 11집, 중앙대.
- 남풍현(1977), “漢字借用 表記法의 發達”, 국어학 논문선, 서울:일조각.
- 남풍현(1981), <借字表記法 研究>, 학술총서 제 6집, 단국대 출판부.
- 마성식(1987), “國語 語義變化 類型에 관한 연구”, 중앙대대학원 박사논문.
- 민은숙(1982), “鄉藥名稱의 吏讀表記와 語形 變遷 研究”, 효성대 대학원.
- 박병채(1973), <古代 國語의 研究>, 고려대출판부.

- 박은용(1966), “〈矣〉借表記에 대하여”, 효성가톨릭대 연구논문집 16.
- 박종갑(1987), “國語 疑問文의 意味機能 研究”, 영남대대학원 박사논문.
- 박종갑(1996), <토론식 강의를 위한 국어의미론>, 서울:박이정출판사.
- 방중현(1963), “鄉藥名 研究”(遺稿,未完), 一養國語學論集, 민중서관.
- 백두현(1992), <嶺南 文獻語의 音韻史 研究>, 國語學會 國語學叢書 19.
- 서재극(1995), <增補 新羅 鄉歌의 語彙 研究>, 서울:형설출판사.
- 서정범(1989), <우리말의 뿌리>, 서울:고려원.
- 서종학(1984), “借字 ‘有’와 ‘在’ “울산어문논집 1집, 울산대학교 국문과.
- 서종학(1991), “吏讀의 文法形態表記에 관한 歷史的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 성환갑(1981), “〈창진방찰요〉의 한자음 연구”, 중앙대 논문집 25.
- 성환갑(1983), “고유어의 한자어 대체에 관한 연구”, 중앙대대학원 박사논문.
- 손병태(1987), “吏讀의 時相形態 表記法 研究”, 영남대 대학원.
- 손병태(1989), “〈牛疫方〉의 吏讀文 研究”, 영남어문학, 제 16집.
- 손병태(1990), “〈村家救急方〉의 鄉藥名 研究”, 영남어문학, 제 17집.
- 손병태(1992), “慶北 東南方言의 山菜類名에 대하여”, 영남어문학, 제19집.
- 손병태(1994), “〈鄉藥採取月令〉의 藥材名 語彙에 대하여”, 외골회갑논집.
- 손병태(1996), “鄉藥 藥材名의 國語學的 研究”, 영남대 박사논문.
- 신경철(1984), “〈物名考〉의 動物名 語彙攷”, 상지실업전문대 논문집 3집.
- 신경철(1985), “〈物名考〉의 植物名 語彙攷”, 羨鳥堂金炯基先生 八耄紀念論叢.
- 신승원(1995), “모음음운현상의 설명에 관한 연구”, 영남어문학 27집.
- 심재기(1964), “國語語義 變化의 構造的 研究”, 국어 연구 제 11집, 서울대.
- 심재완 · 조규설(1966),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에 대하여”, 청구대 논집 9.
- 안병희(1977), “〈養蠶經驗撮要〉와 〈牛疫方〉의 吏讀의 研究”, 동양학 7.
- 안병희(1978), “〈村家救急方〉의 鄉名에 대하여”, 언어학 3호, 한국언어학회.
- 양주동(1968), “國史古語彙 借字原義考”, 명지대 논문집 1집.
- 여찬영(1990), “우리말 동물명칭어에 대하여”, 국문학 연구, 제13집, 효성대.
- 여찬영(1991), “식물명칭어 연구”, 한국전통문화 연구, 제 7집, 효가대.
- 염선모(1987), <국어의미론>, 형설출판사.
- 오종갑(1981), “國語 有聲沮害音의 變遷에 關한 研究 - /b, d, z, g/를 中心으로 -”, 嶺南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오종갑(1988), <國語 音韻의 通時的 研究>, 啓明大學校 출판부.

- 오종갑(1989), “18세기 후기 국어의 표기법 연구”, 인문연구 제11집 1호,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유재영(1985), “이름 表記의 考察”, 신오당 김형기선생 팔절기념 국어학논총.
- 유창균(1980), “借用文字의 表記에 對한 考察”, 국어학 9집, 국어학회.
- 유창균(1981), <韓國 古代 漢字音의 研究>, 계명대학교 출판부.
- 유창균(1994), <鄉歌批解>, 서울:형설출판사.
- 이기문(1975), “<衿陽雜錄>의 穀名에 대하여”, 동양학 제5집, 동양학연구소.
- 이기문(1982), <國語音韻史 研究>, 탐출판사.
- 이기문(1991), <國語史 概說>, 탐출판사.
- 이남덕(1986), <韓國語 語源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덕봉(1937), “朝鮮産 植物名考”, 한글 제5권 1호.
- 이덕봉(1963b), “<鄉藥救急方>의 方中鄉藥目 研究”, 아세아연구 제6권 2호.
- 이돈주(1992), <漢字學 總論>, 서울:博英社.
- 이동화(1990), “慶北方言 聲調의 自立分節音韻論의 研究”, 영남대 박사논문.
- 이상규(1988), <방언연구방법론>(번역), 형설출판사.
- 이승녕(1984), <國語造語論攷>, 서울:울유문화사.
- 이승재(1992), <高麗時代의 吏讀>, 國語學叢書 17, 國語學會. 이시진(1995), “慶北方言의 共時音韻論의 研究”, 영남대대학원 박사논문.
- 이익섭(1992), <國語表記法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은규(1993), “<鄉藥救急方>의 國語學的 研究”, 효성대 박사논문.
- 이은규(1994), “<村家救急方>異本の 借字表記 比較 研究”, 한국전통문화연구 9, 효가대.
- 이은규(1996), “향약명 차자표기의 통시적 연구(1), 어문학 57, 한국어문학회.
- 이현규(1995), <국어형태변화의 원리>, 민족문화연구총서 18집,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 전몽수(1938), “語源攷(一)(二)(三)”, 한글 제6권 4·5·7호.
- 전몽수(1941), “菜名考(일)(이)”, 한글 통권 85·86호.
- 전재호(1973), <杜詩諺解의 國語學的 研究>, 서울:通文館.
- 정철주(1988), “新羅時代 吏讀의 研究”, 계명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오(1982), “<鄉藥採取月令>의 借字表記 體系 研究”, 단국대 대학원.
- 최명옥(1980), <경북동해안 방언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범훈(1976), “高麗時代 借字法 研究”, 한국학논고, 서울:통문관.
- 최창렬(1985), “우리말 색채어의 어원적 의미”, 새걸박태권선생 회갑기념국 어학논총.
- 하치근(1989), <국어 파생형태론>, 서울:남명문화사.
- 허 응(1979), <국어 음운학>, 정음사.
- 현평효(1969), “제주도 방언에서의 ‘나무(木)’와 ‘나물(菜)’ 語辭에 대하여”, 동국대 국어국문 7. 8집.
- 홍사만(1985), <국어 어휘의 의미 연구>, 학문사.
- 홍순탁(1964), “<鄉藥救急方> 語辭攷”, 湖南文化研究 2집, 전남대.
-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 태학사.
- 황선봉(1991), “‘孺童’과 ‘支’ 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제14집, 효성대.
- 버나드 칼그렌 著 / 崔玲愛 譯(1985), <古代漢語音韻學概要>, 서울: 민음사.
- 小倉進平(1932), “<本草綱目啓蒙>에 引用된 朝鮮動植鑛物名”, 청구학총 10.
- 小倉進平(1933), “<鄉藥採取月令> 及 <鄉藥集成方>에 나타난 朝鮮語動植鑛物名解釋補遺,” 청구 학총 14.